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The Bronze Age Landscape of Jinju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2023.

10. 20. Fri

10:30~18:00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대강당(1층)



진행순서

1부			사회 김명선 진주시청
	10:30~10:50		개회사, 환영사, 축사
	10:50~11:00		장내정리
			사회 송영진 경상국립대학교
	11:00~11:30	기조 강연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 가치 재인식과 향후 과제 김권구 계명대학교
	11:30~12:00	발표1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출현과 전개 배덕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2:00~13:30		중식
2부	13:30~14:00	발표2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과 특징 윤호필 상주박물관
	14:00~14:40	발표3	일본 야요이시대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비교연구 平郡達哉 日本 島根大学
	14:40~14:50		휴식
	14:50~15:30	발표4	中国东北石棚与晋州地区支石墓比较研究 华玉冰 中國 辽宁大学
	15:30~16:10	발표5	Jinju Bronze Age Culture in a World Archaeology Context Jack Dave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6:10~16:30		휴식 및 장내정리
	16:30~18:00	종합 토론	좌장 이청규 영남대학교 토론 이성주 경북대학교, 이경아 미국 오리건대학교, 고민정 경남연구원 발표자 전원

개회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곱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한가운데,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서깊은 이곳 진주는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로 자리잡은 남강유등축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과 방문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세계축제도시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천 년 고도의 역사를 간직한 총절과 교육·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특히 시가지 중앙을 흐르는 남강변의 넓은 충적지에는 구석기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어 진주시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남강댐 건설사업으로 이루어진 진주 대평리 일대의 발굴조사에서 대규모로 확인된 청동기시대 발터는 당시 한국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고의 발굴조사 성과였습니다. 300동 이상의 집터와 무덤, 방어용 도랑과 목책시설, 돌도구와 옥장신구를 만들던 공방지 등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와 유물들은 진주가 "청동기시대 중심도시"로 불릴울 만큼 풍부하고 우수성이 뛰어나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회를 복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진주 평거동유적과 가호동유적, 초장동유적 등 남강변을 따라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마을유적들이 연이어 조사되었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세계고고학계에서 청동기시대를 연구함에 있어 진주가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에서도 우리 진주의 청동기시대 연구에 조예가 깊은 석학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김권구 교수님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청규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발표를 준비해주신 배덕환 원장님, 윤호필 관장님, 히라고리 타츠야(平郡達哉) 교수님, 화이빙(华玉冰) 교수님, 잭 데이비(Ph.D. Jack Davey) 교수님과 토론에 임하실 이성주, 이경아 두분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주의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고찰로 선사시대 진주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진주시 연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오늘 학술대회를 마련해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하여,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한국청동기학회와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환영사

반갑습니다.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서부경남의 중심지로서 진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남강을 그 배경으로 말하게 됩니다. 구릉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옥한 충적지와 남강의 풍부한 수계에 의해 진주의 수많은 선사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진주에 취락 및 농경지가 발달할 수 있었던 지리환경적 요인은 고대사회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주의 정주적 위치로 말미암아 촉발된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의 형성으로 많은 주거지와 환호, 경작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집약 농경이나 수공업 생산 등 취락 간의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길을 통해 서부경남에 위치하였던 여러 지역들과도 왕래가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진주의 선사문화를 전시하고 남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실향민이 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은 학술연구를 통한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당연 과제로 여기고 오늘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청동기학회와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이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과 함께 걸음을 맞추어 세 번의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 경남연구원이 힘을 보탠 오늘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3년간의 학술대회의 연구와 성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진주의 선사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고찰을 통해 진주의 선사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고고학의 권위자들께서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뜻깊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발표 준비에 힘써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한국청동기학회,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경남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은 진주의 선사문화 연구에 의무감을 가지고 학술연구를 통한 진주 문화가치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로 인한 진주 선사유적에 대한 연구성과는 진주시의 역사를 더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진주시장 **조규일**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장 양해영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진주의 역사, 그중에서도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며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동기시대 풍경을 복원하기 위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청동기학회,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 및 경남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과 평소 우리 진주의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하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값진 연구성과를 발표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강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촌락이 형성되고, 청동기에 이르러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규모의 청동기시대 문명을 꽃피운 곳이 바로 진주입니다. 이곳이 서부 경남 중심지를 넘어 오랜 기간 영남권 핵심지역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에 꼭 필요한 환경적 요건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 덕분에 선사시대를 연구하는데 있어 일부 유적과 유물이 아닌 진주 전체가 아주 핵심적인 사료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아주 먼 과거의 진주 풍경을 더욱 사실감 있게 재현해 나가는 일에 큰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시간이 빛은 도시'라는 수식어가 걸맞은 진주의 잠재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어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

목차

기조강연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 가치 재인식과 향후 과제 ————— 13
	김 권 구 계명대학교
발표1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출현과 전개 ————— 35
	배 덕 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표2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과 특징 ————— 71
	윤 호 필 상주박물관
발표3	일본 야요이시대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비교연구 ————— 97
	平郡達哉 日本 島根大学
발표4	中国东北石棚与晋州地区支石墓比较研究 ————— 125
	华 玉 冰 中國 辽宁大学
발표5	Jinju Bronze Age Culture in a World Archaeology Context ————— 147
	Jack Dave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토론문	————— 173
	이 성 주 경북대학교 ————— 175
	이 경 아 미국 오리건대학교 ————— 181
	고 민 정 경남연구원 ————— 187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기조강연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 가치 재인식과 향후 과제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 가치 재인식과 향후 과제

-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을 중심으로 -

김 권 구 | 계명대학교

I. 머리말

남강유역에서 1차 다목적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국립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조유전 1987; 문화재연구소 1994) 남강댐 2차 보강공사에서 1995년부터 1999년에 걸쳐 남강댐 수몰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옥방유적과 어은유적을 포함한 대평리유적, 상촌리유적, 귀곡동 대촌유적 등 청동기시대 유적이 대규모로 조사되고 진주지역의 도시개발의 결과 평거동유적과 초장동유적이 전면적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단위 취락의 구성, 공간배치, 환호와 목책, 옥 가공을 포함한 수공업양상, 묘역식 지식묘와 석관묘를 포함한 다양한 무덤, 경작유구 등이 확인되었고 곡물유체 등 다양한 고고학자료가 유구와 함께 당시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태(*in situ*) 그대로 출토되어 실로 생생하게 청동기시대 문화를 분석하며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청동기시대 연구의 이정표를 새로 놓게 되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등 청동기시대 유적이 전체적으로 발굴된 사례가 아주 적었고 여주 혼암리유적, 부여 송국리유적, 울주 검단리유적, 천안 백석동 취락유적 등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이 단계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으나 취락의 전모를 밝히고 주변 유적과의 관계 속에서 취락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정도여서 그 학술적 가치를 크게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故 이상길 선생은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의 가치를 농경의 구체적 확인, 돌대문토기의 존재와 농경으로의 전환, 대규모 취락의 형성과 도시출현의 문제, 주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공옥, 다량의

석기 생산 등을 지적하고 대평리유적에서 남은 문제로 청동기의 부재와 미발달사회 여부의 검토, 저장시설의 빈약, 송국리형 주거이후의 대평리유적, 조사하지 못한 곳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 발굴조사 이후 유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는데(이상길 2002) 지금 생각해봐도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의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지적한 타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초강연에서는 청동기시대 진주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 청동기시대 연구사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 가치

남강유역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 청동기시대 유적들의 학술적 가치는 당시 사회문화상의 연구에 중요한 핵심적 연구자료인데 그 가치는 특히 전면적 발굴을 통해 조사되어 취락의 전모와 시기별 변화양상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유적 간의 관계에 대한 추적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진주지역에서의 청동기시대 유적의 발굴 결과 개별 유구와 개별 유물 중심의 연구 단위와 방법을 뛰어넘어 전반적 구조와 특성의 파악이 개략적이거나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사에서 차지하는 학술적 의미가 크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동기시대 전시기의 장기지속적 점유와 취락 구조 변천의 연구 촉진

옥방지구와 어은지구를 포함하는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과 초장동유적에서는 돌대문단계의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에 이르는 다양한 주거지군이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취락의 주거지 평면형태와 시설, 주거지군의 분포양상을 통한 취락의 구성, 취락 내 주거공간, 저장공간, 생산공간, 무덤공간 등 취락의 공간구분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환호와 토루 그리고 목책 등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방어시설과 사회적 갈등의 존재가능성 등에 대한 귀중한 학술자료가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초기의 각목돌대문토기단계에는 평면 장방형 혹은 방형의

주거지에 판석부 위석식노지와 초석, 단시설, 저장혈 등을 갖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평거동 3-1지구 경남발전연구원 조사구역에서는 이들 주거지들이 열상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 조기부터 전기에 이르는 취락 내 주거지의 배치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민정 2013; 조영제 2013; 김권구 2021).

이러한 취락 관련 자료를 통해 사회최소구성단위로서의 주거지군, 취락의 위계, 취락의 전문적 기능 등 청동기시대 사회구조와 특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남강댐의 건설로 인한 넓은 침수지역에 대한 대규모 발굴로 취락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어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최셋별 2013; 유병록 2019; 고민정 2020;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8). 그리고 이러한 취락 관련 고고학자료의 확보는 청동기시대 사회발전상에 대한 고고학연구의 증진에 큰 자극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진주 대평리유적에서는 300동 이상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된 반면 평거동유적에서는 100여동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진주 대평리유적에서는 환호도 조사되어 아마도 평거동유적에 비해서는 진주 대평리유적이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규모 취락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취락 내 주거지의 수는 동시기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하더라도 취락의 규모와 기능에 따른 취락 위계의 설정과 관계성의 검토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동기시대 수공업 공방지의 양상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시작

진주 대평리유적의 어은1지구에서는 밭 주변에 위치한 수혈주거지와 옥방5지구 A구역 4호 주거지, 옥방7지구 가-15호 주거지 출토 천하석제옥편들과 옥방7지구에서 출토된 지석 등에서 옥편과 대석, 천공도구, 옥 마연석, 옥기재료와 파편 등의 흔적이 나와 옥공방지로 알려진 바 있다(국립진주박물관 200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국립중앙박물관 2010). 그런데 반전업적인 전문공인집단에 의해 제작되어(庄田慎矢 2007) 이 가공된 옥들은 옥방1지구 환호 내의 주거지와 무덤에서 소비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고성 두호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천하석제 구옥(球玉)의 검토를 통해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외에 걸친 범위를

포괄하는 옥의 유통 범위까지 설정하여 검토된 바 있다(최종규 2000; 고민정 2020).

수공업 생산과 농경 생산활동의 집중화가 이루어져서 의례와 축제활동과 같은 공동의례가 권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려고 했던 엘리트들에 의해 이용된 공동전략의 한 부분이었고(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이러한 전략 속에 수공업 공방지도 운영된 것으로 보는 연구도 나왔다.

3. 청동기시대 묘제의 변천과 다양성 확인

진주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식묘, 석관묘, 묘역식 지식묘, 기단을 가진 묘역지석묘, 목관묘, 토광묘 등 다양한 지식묘가 확인되었다(국립진주박물관 200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국립중앙박물관 2010). 특히 송국리단계 후반기의 다양한 묘제의 양상은 우리나라 지식묘의 시기별 변천양상과 지역성 연구 그리고 유물웨어를 포함한 장송의례 등의 연구(하인수 2000; 최종규 2012; 김병섭 2013; 윤호필 2013a; 卍郡 達哉 2012, 2013; 강민석 2022)에 큰 자극이 되었다. 특히 진주 초장동유적이나 진주 가호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지상식 분구 혹은 봉토를 가진 묘역지석묘의 확인은 지상기념물로서의 지식묘 모습을 다양하게 강조하며 지식묘 문화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기단을 가진 봉토 모습의 묘역식 지식묘는 동아시아 지식묘 문화의 마지막 단계에 그 존재를 지상에 뚜렷하게 드러내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화적 ·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석묘라는 지석을 중심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연구한 기존 시각에 진주지역을 포함한 남강유역의 지식묘 자료는 지식, 상석, 묘역, 매장주체부 등 다양한 기준의 조합으로 시기별, 지역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제공하여 청동기시대 연구에 큰 자극이 되었다. 그리하여 청동기시대 후기 묘역식 지식묘의 특성을 반영하여 묘역식 지식묘를 기단묘(基壇墓)로 부르기를 제창하여(최종규 2012) 묘역식 지식묘를 보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청동기시대 생업 양상 연구의 자극

진주 대평 옥방유적과 어은유적 그리고 평거동유적 등에서는 쌀, 조, 밀, 보리, 콩 등의 곡물유체가 확인되고(이경아 2001, 2002, 2011, 2013) 수전유구와 발유구 등도 확인되어 체계적인 생업 양상의 연구(국립진주박물관 200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국립중앙박물관 2010)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동아대가 발굴한 진주 대평리 옥방6지구 경작유구 출토 탄화 보리류, 탄화 팥류, 조와 수수 등의 탄화곡물유체 등도 그 사례이다.

그리고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104호 주거지에서 쌀, 조, 밀, 보리, 콩, 들깨로 추정되는 곡물유체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맥류재배의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옥방1지구 658호 방형주거지의 저장혈에서는 콩 36립이 한꺼번에 출토되어 콩의 재배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진주 평거동 3-1지구의 식물유체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원산의 조와 기장, 콩, 팥과 근동에서 기원된 밀과 보리의 재배가 청동기시대 시작 무렵부터 자리 잡았음도 제시된 바 있다(이경아 2011). 청동기시대 후기에 쌀이나 밀과 같은 생육 주기가 다른 다양한 작물이 출토되어 농경 기술의 발달양상을 보여주면서 농경민이 일년내내 농경에 종사했음도 주장되었다.

진주 평거동 3-1지구에서는 포인트바와 같은 강가 충적대지에 청동기시대 조기와 전기의 주거지의 분포양상 그리고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 분포양상을 중심으로 범람원의 배후습지에 논과 밭이 분포함이 확인되었다. 생업에서의 위험최소화를 위해 다작물복합재배도 이루어졌음이 제시되었다.

평거동유적과 대평리유적의 하천변의 자연제방이나 충적대지에는 취락이 위치하고 배후습지에는 논이 그리고 미저지의 경사면 등에는 밭이 확인되었다. 대평리유적과 평거동유적의 청동기시대 밭은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양상이어서(윤호필 2013b; 고민정 2013, 2020) 청동기시대 후기에 이 지역의 집약농경 형태가 다수의 개별 가계들의 공동 결정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고민정 · Martin T. Bale 2009; 고민정 2020). 재배작물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밭에서 1년에 두 번 이상의 작물재배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작물복합재배로 생업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작유구 및 plant-opal 등 미세식물규산체를 포함한 곡물 유체에 의한 청동기시대 생업 연구와는 별도로 석도, 낫, 팽이 등의 굴지구, 부리형석기 등 각종 농경 도구에 대한 연구(김도현 2010)도 진주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농경구를 포함하여 진행되어 청동기시대 생업 연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하여 남강유적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의 가치를 부각시킨 바 있다.

이렇듯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등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생업과 농경 양상의 연구에 큰 자극이 되었고 곡물유체, 다양한 경작유구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 진주지역에서의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의 발굴과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자연과학과의 융합적 연구도 진행되게 되어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의 수준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배원태 1999; 국립진주박물관 2001a, 2001b, 2001c; 신현철 2001; 이경아 2001, 2002, 2011, 2013; 주식회사 고환경연구소 2001; 김영호 2002; 김재현 200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a, 2011b; 김민구 2011; 류춘길 외 2011; 이희진 2011; 정철환 외 2011; 조대연 2011; 고민정 외 2012; 한국지질연구소 2017; 허의행 2022).

5. 환호 등 방어 취락에 대한 연구 자극

일찍이 울주 검단리취락유적, 창원 남산유적 등에서 환호가 조사된 이래 진주 대평리에서 환호와 토루 등의 방어 유구가 확인되어(남강유적발굴조사단 1998;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a, 2002b; 국립진주박물관 200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국립중앙박물관 2010) 한반도 청동기시대 환호취락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이성주 1998; 정의도 2000; 최종규 2002) 일본열도와의 환호취락과 비교연구도 진행되었다(七田忠昭 2000). 그 후 창원 대울리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전기로 추정되는 환호유구가 조사되고 춘천 중도에서 방형에 가까운 청동기시대 후기의 환호 추정유구가 확인되고 부여 송국리유적에서도 목책 흔적이 확인되어 방어 취락의 등장과 전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진주 대평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환호유구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송국리단계의 총적 대지에 입지하는 평지성 취락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경남고고학연구소가 발굴한 옥방1지구의 환호, 동의대가 발굴한 진주 옥방4지구 대규모 환호, 경남

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옥방7지구 환호 등 진주 대평리유적의 환호유구들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환호자료를 풍성하게 하였고 환호취락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후 옥방 환호에 대한 연구(최종규 2002)를 포함하여 청동기시대 다양한 연구가 전개된 바 있다.

6. 저장시설의 전개

저장양상은 청동기시대 초기와 전기에는 대형주거지의 단벽이나 장벽 모서리에 수혈을 파고 저장구덩이를 만들거나 대형호에 개별 주거지별로 배치되는 양상이다가 전기 후반이나 후기에는 주거지에서 대형토기가 다수 확인되는 저장창고로 추정되는 저장전용 주거지나 창고로 해석되는 굴립주건물지나 저장구덩이 등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양상이다. 그래서 개별 주거지별 저장에서 유력자의 관리나 취락공동의 관리를 받는 저장시설의 존재가 청동기시대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진주 대평리유적 옥방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에는 다수의 대형의 호형토기가 환호 외부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후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대형의 호형토기가 옥방지구 환호 안에서 출토되는 양상이어서 저장물의 관리와 관련되어 주목되었다. 또 진주 대평리유적 옥방1지구 658호 방형주거지의 저장혈에서 콩 36립이 출토되어 주거지 내부에서의 대형토기나 저장혈을 이용하는 저장양상이 확인되었다. 대평리유적의 대부분의 저장용 수혈유구들은 옥방2지구와 옥방9지구의 발 주변에서 확인되었고 옥방1지구 16호 플라스크형 수혈은 환호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저장용 수혈이나 대형의 호형토기 그리고 고상건물 등이 옥방1지구 환호 안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은 엘리트가 농경잉여물의 저장과 같은 집약농경의 일정 측면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고민정·Martin T. Bale 2009)에서도 제시되듯 대평리유적과 평거동유적 그리고 초장동유적 등을 활용하여 청동기시대 저장시설의 사회적 성격과 의미를 연구하여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게 하였다.

7. 기원과 교류

한국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사회는 고고학적 정황을 고려할 때 집단지향적인 사회전통에 기반을 둔 사회로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나서 진행되던 불평등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사회로 보인다. 그러나 잉여 곡물의 저장, 옥 등의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등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엘리트집단은 집약적 벼농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분화, 수장묘 출현, 청동기와 같은 특정물품과 정보의 교환을 매개로 취락 간의 모종의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민정 2013, 2020).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반경 50km 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고성 두호리유적 출토 옥 자료를 가지고 유통권의 범위를 추적한 연구(최종규 2000; 고민정 2020, 2022) 등도 있어서 주목된다.

돌대문토기문화의 기원지를 요동지역으로 보는 견해들과 함께 청동기시대 초기 진주 평거동유적과 연해주 시니가이 문화와의 관련성도 검토되어 청동기시대 초기문화의 기원지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다(김재윤 2018). 이렇듯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에서의 발굴자료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계통내지 기원과 관련하여 주목을 끌었다. 가지문토기와 요동지역과의 관계 연구 등 광역적 연구가 이루어졌고 대구 상동유적 등에서도 가지문토기가 출토되어 낙동강유역권에서의 가지문토기 교류 양상 연구도 이루어졌다. 남강유역과 금강유역의 붉은간토기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상의 비교도 이루어졌다(이정은 2022). 더불어 산청 매촌리유적 등에서 가지문토기나 붉은간토기 등의 부장양상도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청동기시대 연구에 있어서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 출토 자료는 청동기시대 문화의 기원 연구와 지역별 교류 양상 연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송국리문화의 출현 과정이 남강지역의 휴암리식 주거지(말각방향주거지)에서 송국리식 주거지(원형주거지)로의 변화과정 속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송국리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도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로 가능하게 되었다.

8. 남강유역 송국리식 취락의 소멸 양상

남강유역 대평리유적과 평거동유적 그리고 초장동유적 등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자료는 청동기시대 시기별 지속성과 단절성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어서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확산 그리고 소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자료이다. 특히 진주 대평리유적의 경우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흔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송국리식 취락의 소멸 혹은 몰락과 새로운 문화요소인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등장이 상대적으로 단절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진주 대평리유적의 몰락 이유 혹은 이주 이유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고고학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송국리문화의 쇠퇴를 기후변동과 관련시키면서 수전농업을 하기 더 좋은 한반도보다 습윤하고 더운 일본열도로의 이주 이유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즉 송국리문화의 한반도 내 쇠퇴와 일본열도로의 이동이 사회적 갈등 혹은 인구증대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기후변동에 의한 것인지 새로운 주민의 이주에 따른 파동인지 아니면 증거가 어려워 난감한 일이라는 하지만 코비드(Covid19)의 사례가 보여주듯 갑작스런 질병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이유와 기후변동의 이유가 결합된 것이었는지 궁금한 연구과제이다. 단절적 사회변동과 주민이주, 농경의 시작과 확산 등의 이유를 대체로 환경이 원인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환경결정론(environmental determinism)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 일본열도로의 송국리문화 확산 이유와 그 양상의 설명도 문화교류 양상의 설명을 뛰어넘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더 진전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러한 청동기시대 사회변동 양상 연구에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의 발굴자료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핵심적 학술자료이다. 다시 말해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상과 문화상의 연구에 진주 남강유역에서 출토된 자료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룬 한국 청동기시대 사회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만큼 이러한 사실은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구와 유물이 학술적으로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III. 진주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연구에서의 미래 과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조사성과는 그 유구의 문화적, 학술적 중요성으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에 학사적으로 핵심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청동기시대 사회문화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열도의 야요이문화에 끼친 영향과 관련해서도 큰 학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의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들의 학술적 가치와 학사적 의미가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굴 당시의 흥분과 생생함이 점차 시들어가는 느낌도 없지 않고 발굴보고서의 발간이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전에 완료되었지만(문화재연구소 1994;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2001; 국립진주박물관 2001a, 2001b;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2002; 이형구 200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a, 2002b;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2015;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2011a, 2011b; 동서문물연구원 2012a, 2012b, 2017a, 2017b, 2017c) 광역적·학제적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진주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발굴자료가 재조명되거나 재평가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발굴보고서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분석 등도 그때만 이루어지고 더 진행되지 않은 느낌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주 남강유역 주요 청동기시대 유적의 학술적·학사적·동아시아 문화사적 더 나아가 세계문화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널리 공유하기 위한 주요 미래 과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별 유구와 유물에 대한 중요성의 재인식과 연구 심화

과거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개별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새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심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발굴된 유구와 유물을 재발굴하는 자세로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선문대가 발굴한 옥방5지구 출토 곡옥형 청동제 장식 유물도 정선 아우라지 출토 구리 장신구의 출현과 함께 의주 신암리유적 출토 청동도자와 함께 청동기시대 초기에 청동장신구나 청동도자가 전국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여 청동기시대 초기가 청동기가 없는 문화사적 일반론적 청동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가 존재했던 청동기시대로 재인식하

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리형석기의 용도가 농기구의 일종인지 아니면 의례도구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새로이 발굴되는 청동기시대 자료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지역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주거지, 옥방5지구 A구역 4호 주거지, 옥방7지구 가-15호 주거지 등에서 확인된 추정 옥기제작공방의 경우도 반전업적인 수공업전문화단계로 연구되어왔으나 조선시대 대장간과 전문화된 대장장이의 경우처럼 장인과 더불어 그 가족이 하나의 가구 구성원(household)이 하나의 최소사회구성단위가 되어 자신들의 텃밭에서 먹거리를 스스로 경작하여 해결하면서 그 가구 구성원의 일부가 전문화된 수공업체계를 운영할 수도 있어서 수공업전문화의 분류를 굳이 고든 차일드(Gordon Childe)의 수공업 전문가 개념에만 의존한 반전업적인 수공업전문화단계로의 분류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텃밭과 공방지 그리고 3-4개의 주거지군으로 구성된 개별가구단위로 수공업체계가 운영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한다. 만물(萬物)을 소형 트럭에 싣고 시골 곳곳을 방문하며 수요를 찾아다니는 박물장수처럼 순력(巡歷)하는 수공업자의 존재(itinerant craft specialist)의 상정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수공업자는 전문화된 수공업자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다양한 시각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현재의 옥공방지 추정유구의 양상을 토대로 한 공방지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소비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학제적 · 광역적 연구 강화

진주 대평리유적에서는 경남고고학연구소가 발굴한 옥방1지구 493호 석관묘, 동의대가 발굴한 옥방4지구 제26호 석관묘,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 경남대가 발굴한 대평리 어은1지구 4호 석관묘 등에서 출토된 인골에 대한 탄소동위원소분석을 통한 식단 연구 등 기존 자료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되며 인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남강유역 송국리문화의 소멸 양상이 기후변화인지 사회적 갈등에 의한 것인지 혹은 질병 등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요인이 결합한 결과인지 등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의 시각을 동북아시아 전체로 넓혀 광역적인 상호연계된

주민 이동과 사회변동 등의 연구도 더 활발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송국리문화단계와 원형점토대토기문화단계와의 관계는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의 경우 단절적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급격한 단절성과 일본열도로의 주민 이주의 양상과 원인 추적 또한 흥미로운 지역별 연구과제임에 틀림없다.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 남강댐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과정에서 경작유구와 곡물유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이들 곡물유체 등에 대한 연구 심화와 더불어 향후 발굴에서 보다 유의성(有意性) 있는 곡물유체 등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그를 동정하고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조사한 진주 평거3-1지구 유적의 경우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시 유적연대측정 및 고토양분석, 꽃가루분석, 고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식물유체분석, 출토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탄화목재의 수종분석, 수전 및 밭 토양 분석, 2개소 이상의 연대측정기관에 의뢰한 AMS연대 분석 등 학제적 연구가 일찍이 이루어져 다른 연구의 귀감이 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의 발굴을 통하여 과학적 분석과 융합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는데(배원태1999; 국립진주박물관 2001a, 2001b, 2001c; 신현철 2001; 이경아 2001, 2002, 2011, 2013; 주식회사 고환경연구소 2001; 김영호 2002; 김재현 200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a, 2011b; 김민구 2011; 류춘길 외 2011; 이희진 2011; 정철환 외 2011; 조대연 2011; 고민정 외 2012; 한국지질연구소 2017; 허의행 2022) 이러한 과학적·융합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3. 남강 중심지역과 배후지역의 양상 동시 검토 노력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사회문화연구에서 위에서도 언급한 동북아시아 인근지역의 관계속에서의 광역적 연구시각, 장기지속적 문화변동의 양상, 그리고 남강유역의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과 같은 중심지역(heartland)과 그 배후지역(hinterland)의 사회문화변화양상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인구유입인지 인구증가에 의한 취락 규모의 확대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물론 수몰지역이 먼저 발굴되고 그 배후지역은 개별적인 개발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굴되는 자료획득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故 이상길 선생이 지적하듯이 남강유역에서 발굴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과 고려는 필요하다(이상길 2002: 150).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도시 발생 중심지역과 그 배후지역의 취락 분포와 규모 그리고 구조 등에 대한 고고학조사(Adams 1965, 1981)와 초기 메조아메리카의 취락 분포와 규모 그리고 구조 등에 대한 고고학조사(Flannery et al 1976)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과 그 주변지역 그리고 남해안지역과의 취락 구조와 규모 그리고 기능 및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옥기뿐만 아니라 가지문토기, 마제석검과 청동기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연구(최종규 2000; 김영호 2002; 송영진 2016; 고민정 2022; 이정은 2022)뿐만 아니라 가시성 분석과 관계성 분석 등에 연구가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체계속에서 지역적 특성이 주변 지역과 비교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4. 세계고고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격을 높이는 노력의 필요성

이론적으로도 전통고고학, 과정주의고고학, 탈과정주의고고학의 다양한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도 풍부한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발굴자료에도 적용하며 이론의 틀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수정보완하며 새롭게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포함한 발굴성고를 세계고고학계에 알리며 그 학술적 가치를 공유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통고고학, 과정주의고고학, 탈과정주의고고학은 서로 시각과 방법론이 달라서 모순적이면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시각 속에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고고학자료에 대한 다른 측면과 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것임으로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相互補完的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극렬한 상호비판도 서로에 대한 인식론적 틀을 강화하고 고고학적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게 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진주 남강유역에서의 돌대문토기문화, 가락동식토기문화, 송국리식토기문화의 등장 혹은 유입에 대해서 문화전파론 혹은 주민이주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고고학적 현상의 설명에 전통고고학이 적절하기도 하다.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문화가 지역에 와서 내부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보는 생태론적 입장, 문화양상을 사회체제의 변화 과정 속에서 설명하려는 체계론적 입장 혹은 과정주의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주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주민집단이 자신의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지형과 환경에 어떻게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들의 세계(우주)를 구축하고 취락과 지식묘와 입석을 포함한 각종 상징적 기념물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며 문화변동이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질문도 또한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럴 때에는 탈과정주의고고학적 시각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식단의 범위 설정과 상징성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존재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생업과 식단의 연구도 생태적, 환경적 관점의 연구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체계를 고려한 탈과정주의고고학적 연구도 요망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취락체계연구(Adams 1965, 1981)와 메조아메리카에서의 취락체계연구(Flannery et al 1976) 등을 통해 해당 지역들은 세계고고학계의 관심을 받는 유명지역으로 부상하고 해당 유적과 유물은 그 학술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도 이와 같이 세계적 관심을 받는 유적지로 부상하도록 학계의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고 진주시의 지원과 주민의 관심도 요구된다. 함께 노력하여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국내외 연구자 사이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

이번에 시도된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의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많은 것을 밝힐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된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출현과 전개,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과 특징, 일본 야요이시대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와의 비교연구, 중국 고인돌과 진주지역 고인돌의 비교연구 그리고 서구의 최신 청동기문화 연구동향으로 본 진주지역 청동기문화의 새로운 평가도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 연구 그리고 생업 연구

에 큰 자극제이자 진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연구자와 서구의 연구자가 함께 참석해서 진주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과 동아시아의 동시기 관련 문화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6. 지역발전의 자원으로서의 진주 남강 일원 청동기시대 유적의 가치 재인식과 활용 증대

진주 남강유역의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 등이 갖는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과 더불어 진주지역 발전자원으로서의 이들 유적에 대한 높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유적의 정비와 복원 그리고 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으로의 개발과 활용 증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관심과 지원 그리고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의 시발점으로서 발굴자료의 기록화사업도 진주시가 시급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분야이다. 발굴보고서에 나온 사진, 도면 등은 발굴과정에서 생산해낸 자료의 아주 일부이며 그 몇십 배의 자료가 사장(死藏)되어 없어질 수 있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 사진 필름이나 슬라이드 필름이 곰팡이가 나거나 부식되어 사라지거나 발굴 도면이나 발굴기록야장이 그 생명을 다하여 부스러지거나 연필자국의 색이 바라거나 흐려져 보기 어렵게 되기 이전에 디지털자료로 만드는 기록화사업을 하여 진주시민과 학계가 폭넓게 장기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아카이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75년 발굴한 대구 구암동 56호분의 기록화사업 결과는 참고할 만하다(영남대학교 박물관 2022).

또 중국, 일본 그리고 서구의 유사 유적을 가진 도시의 성공적 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해당 도시들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IV. 맺는말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의 연구사에서 풍부한 자료 축적과 다양한 연구의 계기가 되어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사 연구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다수의 석박사논문과 학술논문의 존재가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고고학자료의 학술적·문화사적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발굴 당시의 생생함이 흐려지고 있는 현재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을 포함한 진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학술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으로도 그 가치가 큼으로 지속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학술대회의 지속적 개최와 전문연구자의 교류 활성화 그리고 전략적 체계적 학술발굴을 통한 유적 가치의 재인식과 새로운 파악과 인식공유, 기존 문화유적의 보호 정비 강화, 박물관 연구인력의 강화, 발굴자료의 기록화사업(아카이빙체계 구축) 추진, 기존 유적의 보호와 역사교육자원화 및 관광자원화와 같은 활용 강화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진주 대평리유적, 평거동유적, 초장동유적의 연구와 공유 확대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의 미래 과제이다.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을 자원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려는 진주시의 적극적 노력과 시민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석, 2022, 『묘역지석묘의 유물 훼손과 장송의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민정, 2013, 「진주 평거동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 『남강유역 선사·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유적』(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경상대학교 박물관: 33-64.
- _____, 202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옥의 생산과 교류」,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유역 청동기시대 기술-』(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3회 전문가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35-64.
- 고민정·김남수·이경아, 2012, 「자유패널-진주 평거동유적 출토 식물유체」,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203-204.

- 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한국청동기학보』제2호: 82-115.
- _____, 2009,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 집약화와 사회조직」, 『경남연구』 창간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김권구, 2021,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와 전기의 취락구조」, 『영남고고학』 제90호: 31-66.
- 김도현, 2010, 『영남지역의 원시 · 고대 농경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 김민구, 2011, 「부록5-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출토 탄화목재의 수종」,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VI: 유구도판 · 부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34-357.
- 김병섭,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전개양상」, 『남강유역 선사 · 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 유적』(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경상대학교 박물관: 65-91.
- 김영호, 2002, 「광물로서의 대평 옥」, 『청동기시대의 大坪 · 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115-117.
- 김재운, 2018, 「청동기시대 초기 경남 평거동 유적과 연해주 시니가이 문화의 관련성 검토」, 『영남고고학』 제81호: 39-85.
- 김재현, 2002, 「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청동기시대의 大坪 · 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 132-140.
- 류춘길 · 김용탁 · 소윤환 · 신승원 · 노상건 · 전창표 · 김시영, 2011, 「진주 평거 3지구 택지 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의 고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VI: 유구도판 · 부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23-301.
- 배원태, 1999, 「대평리 옥방 2지구 선사유적 출토 토기편의 분석결과」, 『진주 대평리 옥방 2지구 선사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351-394.
- 송영진, 201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연토기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현철, 2001, 「VII. 부록 - 3. 토기 바닥에 찍힌 나뭇잎의 수목동정」, 『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 유적 I- [1차 발굴] 본문』, 국립진주박물관: 257.
- 유병록, 2019, 『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호필, 2013a,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b, 「진주 평거동유적의 논과 밭」, 『남강유역 선사 · 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 유적』(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경상대학교 박물관: 111-131.
- 이경아, 2001, 「VII. 부록- 2. 옥방 1지구 식물유체분석」,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유적 I-[1차 발굴] 본문』, 국립진주박물관: 254-256.

- _____, 2002, 「[부록] 옥방 1, 9지구 출토 식물유체 분석 보고」, 『진주 대평 옥방 1·9지구 무문 시대 집락(본문·도면)』, 경남고고학연구소: 445-454.
- _____, 2011, 「부록3-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식물유체 분석 보고」,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VI: 유구도판·부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02-319.
- _____, 2013, 「진주 평거동유적 출토 식물유체 분석 검토」, 『남강유역 선사·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 유적』(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경상대학교 박물관: 133-151.
- 이상길, 2002, 「우리는 왜 남강유역의 유적에 주목하는가?」,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141-151.
- 이성주, 1998, 「한국의 환호취락」,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47-88.
- 이정은, 2022,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유통-금강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유역 청동기시대 기술-』(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3회 전문가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1-33.
- 이형구, 2001, 『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선사유적』.
- 이희진, 2011, 「부록6-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수전 및 발 토양분석 결과」, 『진주 평거 3-1 지구 유적-VI: 유구도판·부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58-370.
- 정의도, 2000, 「남강유역의 환호유적」,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 일본-고대 한일문화교류의 제양상-』(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97-137.
- 정철환·김정빈·임현수, 2011, 「부록1: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연대측정 및 고토양분석」,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VI: 유구도판·부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99-222.
- 조대연, 2011, 「부록4-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출토 토기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토기암석학분석과 전자주사현미경분석을 중심으로-」,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VI: 유구도판·부록-』,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20-333.
- 조영재, 2013, 「진주 평거동유적의 고고학적 의의」, 『남강유역 선사·고대 문화의 보고 평거동 유적』(2013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학술대회 자료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경상대학교 박물관: 1-11.
- 조유전, 1987, 「남강유역의 선사문화연구(I)-산청 강루리 선사유적의 성격-」, 『한국고고학보』 제20집: 23-58.
- 최셋별,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 최종규, 2000, 「두호리 출토 天河石製 球玉에서」, 『固城 頭湖里 遺蹟』, 경남고고학연구소.
- _____, 2002, 「옥방환호」, 『청동기시대의— 대평 · 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 51-54.
- _____, 2012, 「V. 고찰 1. 용잠리의 파괴된 무덤을 이해하기 위한 抽象」, 『창원 용잠리 송국리문화 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307-344.
- 하인수, 2000, 「남강유역 무문토기시대의 묘제」,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 일본-고대 한일문화 교류의 제양상-』(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23-274.
- 허의행, 2022, 「남강유역 주거의 축조기술과 디지털복원」,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유역 청동기시대 기술-』(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3회 전문가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65-84.
- Adams, R.M. 1965, *Land Behind Baghdad: a History of Settlement on the Diyala Plains*.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1, *Heartland of Cities: Surveys of Ancient Settlement and Land Use on the Central Floodplain of the Euphrates*.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lannery, K.V.(ed.) 1976,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庄田慎矢, 2007, 『남한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七田忠昭, 2000, 「한일 환호취락에서 변혁의 획기와 그 원인」,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 일본- 고대 한일문화교류의 제양상-』(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97-213.
- 平郡達哉, 2012, 『무덤자료로 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 _____, 2013, 『무덤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a, 『진주 대평 옥방 1·9지구 무문시대 집락(본문·도면)』.
- _____, 2002b, 『진주 대평 옥방 1·9지구 무문시대 집락(도판)』.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경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 _____, 2011a,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I: 본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71-392.
- _____, 2011b, 「부록7: AMS연대분석결과」,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VI: 유구도판·부록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71-392.
-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진주 대평리 옥방 2지구 선사유적』.
- _____,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3지구 선사유적』.
- 국립중앙박물관, 2010, 『청동기시대 마을 풍경』.

- 국립진주박물관, 2001a, 『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 유적 I-[1차 발굴] 본문』.
- _____, 2001b, 『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 유적 II-[1차 발굴] 유물도면·사진』.
- _____, 2001c, 「VII. 부록 - 1. AMS연대측정」,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유적 I-[1차 발굴] 본문』, 국립진주박물관: 251-253.
- _____, 2002,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 I-주거지, 석관묘 편-』.
- _____, 2002,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 II-집석, 야외논지, 수혈, 기타 편-』.
- 남강유적발굴조사단, 1998, 『남강 선사 유적』.
- 동서문물연구원, 2012a, 『진주 평거4지구 II구역 유적(상)』
- _____, 2012b, 『진주 평거4지구 II구역 유적(하)』
- _____, 2017a, 『진주 초장동유적 I』.
- _____, 2017b, 『진주 초장동유적 II』.
- _____, 2017c, 『진주 초장동유적 III』.
-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진주 대평리 옥방 4지구 선사유적 I』.
- _____, 2015, 『진주 대평리 옥방 4지구 선사유적 II』.
- 문화재연구소, 1994, 『진양 대평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영남대학교 박물관, 2022, 『구암동 56호분 발굴과 그 기록』(구암동고분군 56호분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
- 주식회사 고환경연구소, 2001, 「부록: 한국 진주시 대평리유적 옥방 2·3지구에 대한 자연과학 분석」, 『진주 대평리 옥방 3지구 선사유적』: 334-339.
-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8, 『창원의 선사·고대 취락-창원대학교 박물관 1998년 전시도록-』.
- 한국지질연구소, 2017, 「진주 초장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유적 경작층의 식물규소체 분석」, 『진주 초장동유적 III』, 동서문물연구원: 203-230.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발표 1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출현과 전개

배 덕 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출현과 전개

배 덕 환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진주지역에 대규모 청동기시대 취락의 존재가 알려진 계기는 남강댐 보강공사 덕분이다. 홍수조절과 서부 경남지역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계획된 남강댐 공사에 따라 수몰지구로 지정된 산청, 진주, 사천에 이르는 남강유역은 1975~1980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4차에 걸친 발굴조사와 1992년 경상남도 주관의 지표조사 결과,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22개소의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95~1999년 16개 기관으로 구성된 남강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단에서 분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얻은 성과는 본격적인 취락고고학으로의 진입 및 대규모 발굴조사의 신호탄이 되었다. 그 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평거동·초전동·초장동·가호동·이곡리에 이르는 남강 본류 및 지류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취락 조사가 급증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상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료의 양적·질적 가치는 한국고고학에서 유례없는 사례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상류의 산청부터 진주를 거쳐 사천과 함안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 진주의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진주의 청동기시대는 곧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이 변영기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생업 및 환경조건을 보인다. 이에 각 유적 보고자들의 단일취락에 대한 충실한 분석이 취합되어 남강유역을 따라 형성된 각 취락의 관계·교류망 파악 등 진일보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중요성에 따라 총3회에 걸쳐 진행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의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 전문가 학술회의에서는 ‘삶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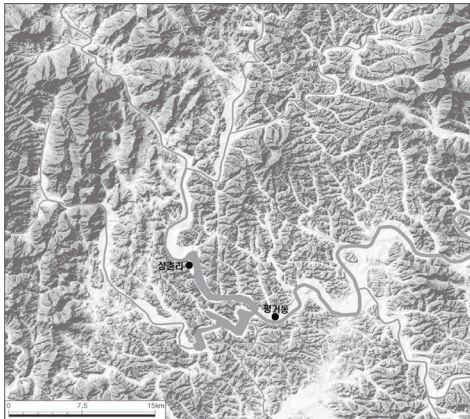
(1회, 2021년),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의례’(2회, 2022년),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기술’(3회, 2022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¹⁾ 청동기시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남강유역의 특징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활한 평지입지, 자체발전 과정을 거친 대평리식 주거지라는 독자의 주거형태, 대규모 경작지와 이를 담당할 전업농의 존재, 일정 간격으로 분포하는 중심취락과 위성 취락, 환호, 목책, 토루로 구성된 삼엄한 방어취락,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저장시스템으로서의 고상창고, 공동식사를 행한 야외노지, 구획된 대상유구,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유통, 옥 작업 및 반출의 분업체계, 묘역지석묘와 석관묘를 비롯한 다양한 무덤 등은 타 문화와는 차별되는 요소로서 기존 송국리문화의 파생이 아닌 독자의 ‘대평리문화’로 규정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남강유역에 처음으로 정착한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까지의 취락 분포 및 주거지의 변화상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의 대평리문화 요소 중 입지, 농경지, 고상창고, 야외노지, 환호(구)의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방어시설을 구비한 중심취락의 성립과 해체를 통해 남강유역 대평리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자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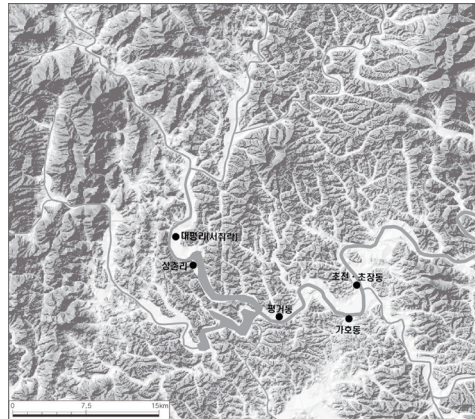
II. 취락의 분포

남강유역에 처음으로 인류 정착 흔적이 등장하는 곳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상촌리유적이며 후기가 되면 평거동유적에도 나타난다(그림 1).³⁾ 상촌리유적에서는 국부마제보습의 출현, 말각장방형의 대형 주거지, 주거지 내부 대응 안치 등을 근거로 강변에서의 안정된 농경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평거동유적에서는 조, 기장, 식용가능한 콩·팥속 자원의 밭 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이경아·윤호필·고민정·김춘영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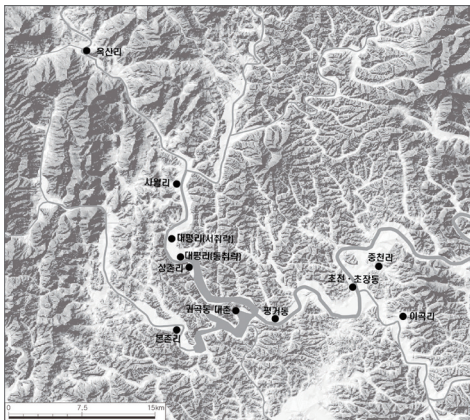
1) 3회에 걸친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 전문가 학술회의 자료에는 발표자마다 시기구분에 의견이 달라 중기와 후기가 혼용되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청동기학회(2007)의 시기구분을 준용하여 중기로 표기하였다.
 2) 본 발표문의 IV·V장은 제1회 공동학술회의 「대평 환호·목책의 구조와 복원」을 요약 수록하였으며 분묘와 의례, 수공업 생산과 유통 등 기술적인 부분은 앞선 전문가 학술회의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3)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수혈, 야외노지 등 부속유구만 조사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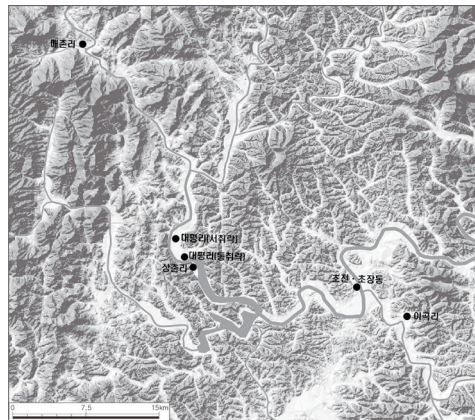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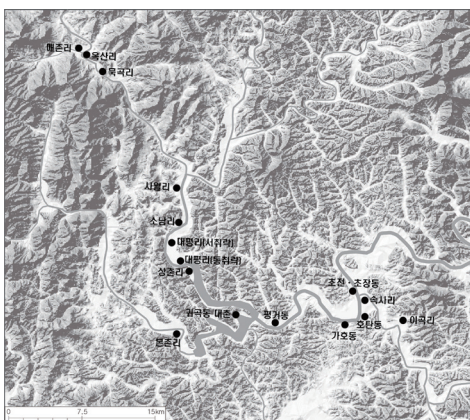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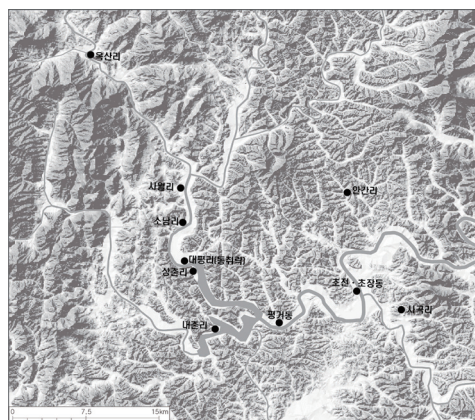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전기



청동기시대 전기 말(하촌리식 주거단계)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대평리식 주거단계)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오곡리식 주거단계)

그림 1. 남강유역 신석기 ~ 청동기시대 취락 분포도

청동기시대 초기에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상촌리·평거동유적과 대평리유적 서취락⁴⁾·가호동·초전동·초장동유적에도 출현한다. 특히 대평리유적은 서취락에만 분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남강유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한다.

전기가 되면 상류의 산청 하촌리·옥산리·사월리·소남리유적, 중류의 대평리유적 동·서취락뿐만 아니라 상촌리·귀곡동 대촌·평거동·초전동·초장동·중천리·이곡리유적, 사천 본촌리유적 등 하류까지 확대된다.⁵⁾ 이 중 초장동유적에서는 공옥 관련 유물이 출토되어 이른 시기부터 옥이 제작되었음을 시사하며 대평리유적은 적색마연토기와 채문토기 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다(고민정 2005; 송영진 2016). 청동기시대 조·전기에도 농경활동은 계속적으로 영위되었으며 이때부터 대평리유적이 남강유역의 중심 취락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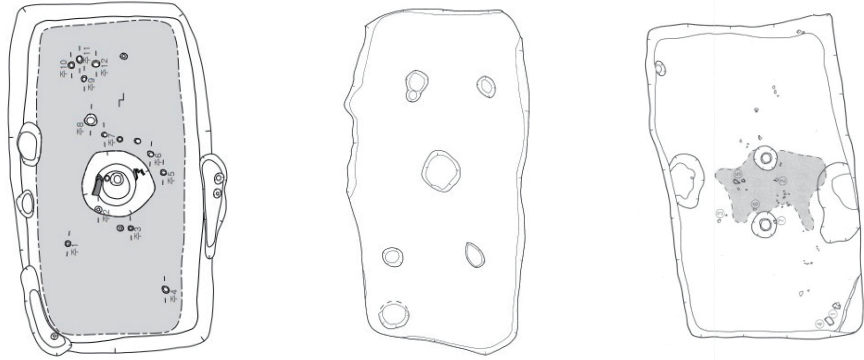
그 이후 전기 말에는 중기의 특징적인 주거형태인 대평리식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하촌리식 주거지가 산청 하촌리·매촌리유적과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상촌리·초전동·초장동·이곡리유적에서 관찰된다(그림 2). 하촌리식 주거지는 규모의 소형화(15㎡ 이하), 장방형 평면형태, 중앙부 노지나 수혈 설치, 단벽 모서리에 4개의 주혈 대칭배치, 중앙수혈과 양단 주혈 배치 등 다양한 변이가 있다(고민정 2004; 배덕환 2009; 김병섭 2011, 2021; 송영진 2012). 전기 장방형 주거지의 외부에 있던 작업장 등이 핵가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내부로 이전함과 동시에 바닥을 불다짐처리 하는 등 기술혁신을 거쳐 단기간에 주거지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포권 및 수량을 감안할 때, 대평리유적 서취락에서 주변부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번영기인 중기 전반은 남강 전역으로 취락이 확대된다. <표 1>과 같이 주거지 수가 단단계에 비해 급증하며 평면형태 방형에 타원형 수혈과 양단의 주혈을 특징으로 하는 대평리식 주거지를 표식으로 한다(그림 3).⁶⁾

4) 대평리유적 발굴조사시 어은1·2지구, 옥방1~9지구로 세분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행하는 남강의 분절지점, 경작지간 거리, 유구 구성을 고려할 때, 어은1·2지구, 옥방4~6 지구는 서취락(어은취락), 옥방1~3·7~9 지구는 동취락(옥방취락)으로 구분가능하다(배덕환 2005; 고민정 2009).

5) 유적명의 기술은 진주지역을 벗어날 경우 산청, 사천 등 행정구역명을 부기하였다.

6) 보고서를 기준으로 주거지 수를 합산하였지만 산청 옥산리·소남리유적 등 보고서 미간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학술대회 발표문, 유구배치도를 참고하여 정확한 평면형태와 구조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포함하였으므로 실제 수치는 <표 1>에 제시된 수보다 많다.



서취락 어은1지구 58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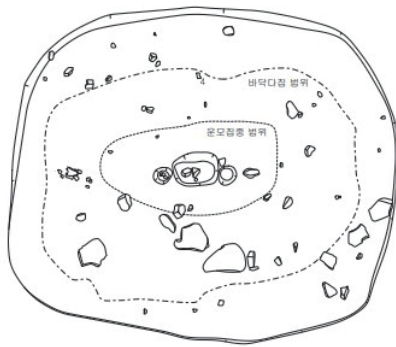
서취락 옥방4지구 11호 주거지

동취락 옥방3지구 26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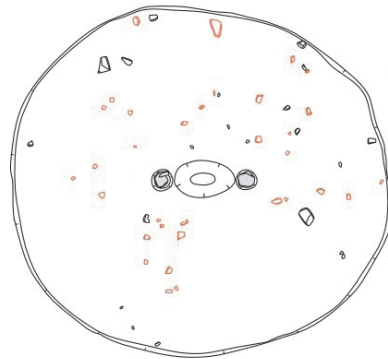
그림 2. 대평리유적의 하촌리식 주거지(縮尺不同)

표 1. 남강유역 신석기시대 중기 ~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 주거지 수 및 증감량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중·후기	조기	전기	전기 말	중기 전반
39동	44동	113동	85동	441동	88동
	(▲5동)	(▲69동)	(▼28동)	(▲356동)	(▼353동)



대평리식 : 산청 묵곡리 3호 주거지



오곡리식 : 가호동 5호 주거지

그림 3. 대평리식과 오곡리식 주거지(縮尺不同)

대부분 평지인 충적지에 입지하며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평거동·이곡리·삼곡리유적에서는 대규모 밭, 평거동·초장동유적에서는 논이 조성되었다. 농경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곡물이 재배되었으며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고상창고와 환호, 목책 등 방어시

설이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환경과 입지조건 하에서도 취락의 규모에 차등이 생겨 중심취락과 위성취락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대평리유적에 동·서 쌍체취락이 조성되는 단계로서 산청 옥산리유적, 초전동·가호동·이곡리유적에도 환호가 설치되었다. 이중 이곡리유적은 거의 완형으로 조사되어 전모파악이 가능한데, 내부 중앙부에 소수의 주거지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제의적 기능을 한 환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중기 후반에는 산청 하촌리·옥산리·사월리·소남리유적과 대평리유적 동취락, 상촌리·내촌리·평거동·가호동·초전동·초장동·사곡리·안간리유적에는 옹리식 주거지가 등장하지만<그림 3>, <표 1>과 같이 주거지 수가 급감하며 새로이 구릉으로의 입지이동이 관찰된다. 대평리유적은 서취락에는 보이지 않고 동취락에만 소수 잔존하며 연결하는 초전동·초장동유적에서 약 20여동의 주거지가 분포하여 남강유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한다는 점에서 중심지가 하류로 이동된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 유적의 존재가 보고된 바 없으며 원삼국시대에는 산청 소남리유적, 삼국시대에는 평거동유적에 대규모 농경취락이 재등장하게 된다.

Ⅲ. 취락의 특징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은 전 시대를 통틀어 남강유역의 최대 번영기로서 대평리문화로 규정가능하며 취락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⁷⁾

1. 입지

남강의 장기간 퇴적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넓은 활주사면부의 천변미고지 내지는 천변 평탄지에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까지 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그림 4). 이러한 입지조건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환경으로서 동시기 낙동강 동안의 검단리문화권 취락들이 구릉에 입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7) 대평리식 주거지 및 대상유구는 제1회 공동학술회의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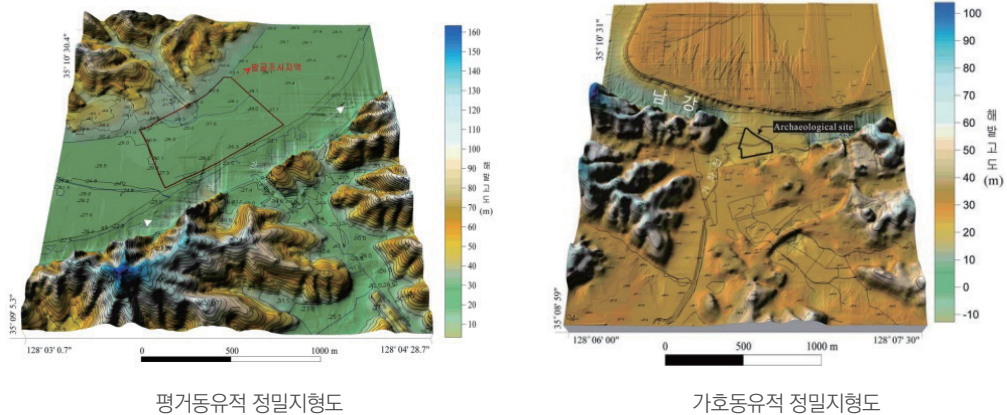


그림 4. 평거동·가호동유적 정밀지형도(縮尺不同)

지형변화가 심한 하천의 활주사면부는 형성, 고정되면 그 이후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거쳐 비교적 안정성이 유지되어 왔다. 상대적인 넓이와 안정성은 결국 취락의 천변 입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취락 규모의 확대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어로와 층적 지에서의 논·밭 경작을 통해 대량으로 식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하천의 범람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⁸⁾ 남강유역의 취락들은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여 취락의 과밀화·대규모화·중심취락화를 이루었지만 많은 노력과 대비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게 된다(배덕환 2022).

〈그림 5〉와 같이 동시기 평지와 구릉취락의 가시권을 비교하면, 평지의 대평리유적 동취락은 동남쪽 상촌리유적과 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으며 최대관측거리도 약 4.3km로 비교적 넓게 조망가능하고, 서취락은 소남리유적을 넘어 구릉쪽으로 약 3km이상 볼 수 있다. 구릉 입지는 검단리문화권의 울산 북구 매곡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경주에서 울산으로 흘러 태화강으로 합류하는 동천의 동쪽 구릉에 취락이 집중한다. 중앙부에 위치하는 매곡동2유적에서 신천동유적까지의 가시권은 약 3km 정도여서 서로를 충분히 조망할 수 있으며 그 외 하천을 넘어 북쪽은 약 7.2km, 남쪽은 약 4.5km 이상의

8) 상대적으로 구릉 입지는 평지에 비해 생업활동의 폭은 좁지만 입지적 특성상 홍수 등 자연재해가 적으며 수렵·핵과류 채집·연료 입수의 용이, 외적 침입에 대한 조망과 방어 유리, 저습지형과 다른 건조한 지형조건, 곡간부를 활용한 농경활동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취락입지로 활용되고 있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천곡동유적에서는 매곡동유적 배후의 구릉을 최대관측 거리로 상정할 때, 약 4~6.3km의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여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 후 생활권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동일 가시권내에 있는 취락들은 모촌(母村)과 자촌(子村)같은 분촌(分村)관계의 취락공동체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배덕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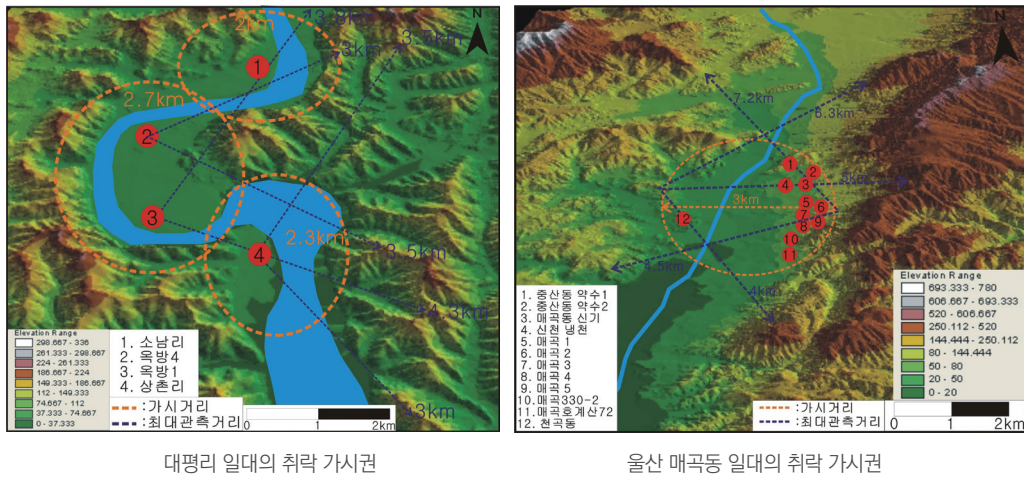


그림 5. 대평리와 울산 매곡동 일대 취락의 가시권(縮尺不同)

2. 생산시설 : 농경지

대평리유적 동·서취락과 평거동·이곡리·삼곡리유적에서는 대규모 밭이 운영되었으며 평거동·초장동유적에서는 논이 조사되었다.

대평리유적은 상류의 서취락 어은1지구부터 하류의 동취락 옥방9지구까지 자연제방을 따라 32ha가 넘는 밭이 길게 분포한다. 동취락 옥방3지구 밭의 이랑형태는 <그림 6>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기경구와 기경방법, 재배위치와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경상대학교박물관 2001) 이처럼 밭의 모양이 정형화·획일화되지 못한 점을 집약농경의 형태가 다수의 개별 가계들의 공동 결정에 기인한 결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민정·Martin T. Bale 2009). 동취락 옥방1·9지구의 식물유체분석 결과, 조와 기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작물에 비해 높으며 저장공에서는 콩류가 많이 출토되었다. 쌀은 단립형으로서 전체 종자 중 약 7.3%의 비율을 보이며 밀은 소립형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토착화된 품종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생육주기가 다른 다양한 작물

의 재배는 농경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와 기장에 집중하던 신석기시대와 달리 1년 내내 농경에 종사하던 구성원이 있었음을 시사하며(이경아·Gary W. Crawford 2002), 밭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나 배수시설, 그 밖의 다른 관련 유구들이 없고,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입지에 밭이 조성된 점은 개별가계가 충분히 농경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민정·Martin T. Bal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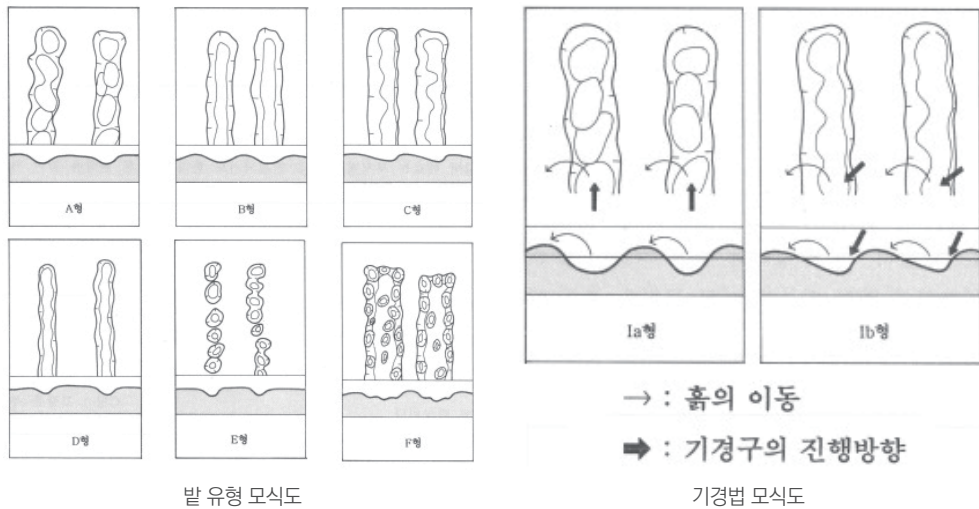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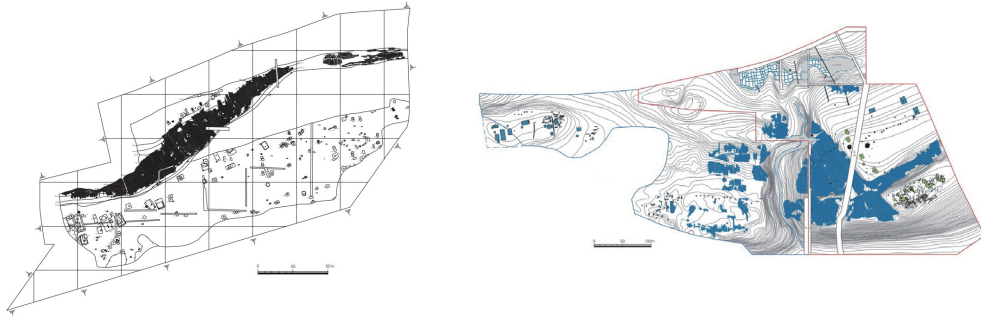


그림 6. 대평리유적 옥방2·3지구 청동기시대 밭 유형 및 기경법 모식도(경상대학교박물관 2001 수정)

평거동유적은 밭과 논이 입지를 달리하며 조성되었는데, 밭은 B지구에서 2개 층이 조사되었다. 1층 밭은 자연제방 상면과 후사면 전역에 총 8면, 28,140㎡가 조성되었으며 이랑의 방향은 대부분 강과 직교하는 북서-남동향이다. 이랑의 크기는 길이 10~110cm, 두둑 간격 80~90cm, 고랑 폭 36~45cm, 고랑 깊이 7~15cm이며 식물유체분석을 통해 밀, 팥, 완두(?)와 야생종자인 나비나물속이 확인되었다. 2층 밭은 자연제방 상면과 후사면 중 지형이 낮은 부분에 입지한다. 밭의 수는 총 9면, 9,590㎡이며 이랑의 방향은 대부분 북서-남동향이다. 이랑의 크기는 길이 17~128m, 두둑 간격 70~120cm, 두둑 폭 35~65cm, 고랑 폭 35~60cm, 고랑 깊이 8~18cm이다. 두둑에서 작물식재흔이 관찰되며 식물유체분석을 통해 밀과 사초과가 확인된다. 밭은 2층에서 소규모로 경작되다 1층에서 획기적으로 증가하며 이랑의 길이가 120m 넘는 것과 1층 밭4와 같이 면적이 2,270㎡에 이르는 큰 규모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족 단위의 경작보다는 마을 단위의 인원

이 경작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B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수가 적고 A 지구의 취락공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공간에 경작지가 입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생산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평리 일대의 취락 가시권

대평리 일대의 취락 가시권

그림 7. 대평리·평거동유적의 논과 밭(縮尺不同)

논은 A지구의 구릉말단부와 자연제방 사이에 형성된 배후습지에 2개 층이 조성되었다. 1층은 가·나부분 모두 조성되었는데, 가부분은 계단식+소구획 논으로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장방형·호형·부정형 등 다양하며 총 91면, 면적은 2,177㎡이다. 이 중 구획이 정확한 논의 면적은 약 2~75㎡의 분포를 보이며(평균면적 22㎡), 논의 구조는 논둑, 논면의 단차, 수로, 수구 등이 확인된다. 나부분은 소구획 논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방형이다. 총 97면이 확인되었으나 분포양상을 감안하면 105면 정도로 추정된다. 구획이 정확한 논의 면적은 5~27㎡이며(평균면적 12㎡)이며, 2층은 가부분에만 분포하는데, 계단식+소구획 논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장방형·호형·부정형 등 다양하다. 총 90면이 잔존하며 3~27㎡ 정도의 분포를 보이며(평균면적 11㎡), 논의 구조는 논둑, 논면의 단차 등이 확인된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초장동유적에서는 토양화로 인해 논의 단위를 파악할 수 있는 논둑은 조사되지 않고 논 경작층을 중심으로 한 논의 범위만 확인되었다. 논층에 대한 식물유체분석 결과, 벼의 규소체가 검출되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00개체/g 이상의 수전층 판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벼가 재배되었음을 시사한다. 논 범위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북향으로 폭 70cm, 깊이 10cm의 수로가 조성되었다(동서문물연구원 2017). 경작과 관련된 수로는 이곡리유적과 연결한 삼곡리유적에서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곡리유적 다지구

의 사면부와 마지구의 층적지에는 구획된 구가 집중된다. 이 중 다지구는 등고선과 직교되게 자연유로가 형성된 뒤 인위적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지선 구를 만들었다. 지선 구 내부는 장방형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경사도에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하였다. 내부공간을 밭으로 구획한 것으로 추정되며 구는 물대기를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마지구 북쪽에 집중배치된 구는 해발고도가 높은 동쪽의 곡간부에서 서쪽의 낮은 평지로 이어지며 서단에는 습지가 조성되어 자연스럽게 유수가 유입되도록 하였다(그림 8). 구는 규모 및 진행 방향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되는 간선 구와 간선 구에서 분기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되는 소형의 지선 구로 대별된다. 간선 구와 지선 구는 장방형·방형·부정형으로 구획되었는데, 대체로 경사도가 높은 동쪽보다는 습지와 가까운 서쪽으로 갈수록 형태가 정연하다. 그리고 서쪽의 간선 구 내부에는 물막이시설로 추정되는 집석 3기가 축조되어 유수의 흐름을 제어하였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이렇게 구로 구획된 시설을 일본에서는 수전을 경영했던 흔적이 조사되어 도작과 관련된 구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도작과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식물유체분석에서는 설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구퇴적층에서 평균 약 3,000개체/g가 검출되어 직접 경작된 층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산출량을 보인다. 이는 매우 인접한 경작층에서 직접 유래된 퇴적물로 채워진 것으로서 벼의 경작과 관련된 밭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大庭重信 2005; 윤호필·고민정 2006; 김병섭 2007).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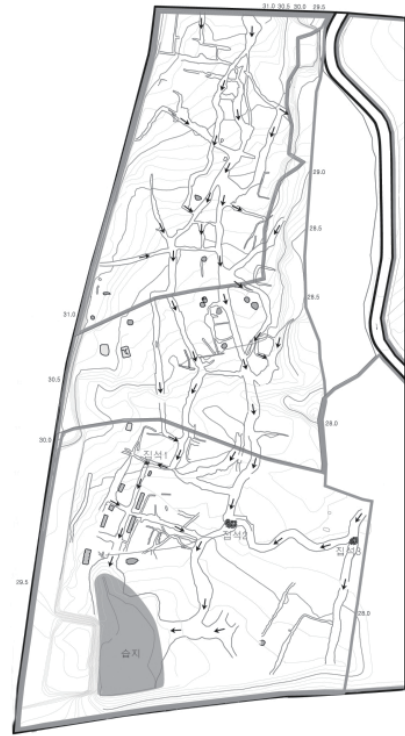


그림 8. 이곡리유적 마지구
구획 구 유수 흐름도(高→低)

9) 大庭重信(2005)은 청동기시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토지조건에 맞추어 다양한 전작이 행해졌으며 하안의 배후저지에서는 미세한 조건의 차이에 따라 이랑과 고랑을 나누어 사용하고 저습지에서는 배수용의 구를 파서 밭을 구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저장시설 : 고상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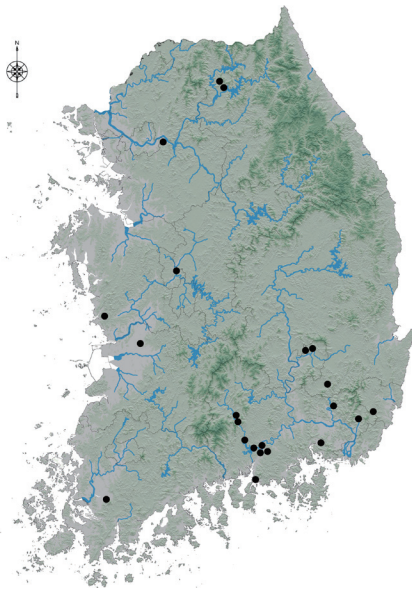


그림 9. 청동기시대 중기 고상창고 분포도

고상건물은 수혈주거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청동기시대 중기에 환호, 도작농경과 함께 등장하여 현재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¹⁰⁾ 도입기인 중기 전반에는 창고로 사용되다가 중기 후반이 되면 망루, 신전, 집회소 등 대형화·다양화되지만 주거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대평리·송국리문화권에 부속되는 시설로서 검단리문화권에서는 울산 검단리 유적에서 1기, 산하동유적에서 20여기가 보고되었으나 구조 및 주칸거리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그림 9).

남강유역에서는 산청 묵곡리유적 9기, 대평리 유적 동취락 8기, 평거동유적 13기, 연결하는 동일취락인 초전동·초장동유적 39기, 가호동유적 4기, 이곡리유적 8기로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에는 필수시설로 조성되었다. 대평리유적은 고상창고 외 저장시설이 플라스크형 저장혈 1기 밖에 없어 취락 및 농경지의 규모, 전업농의 존재를 감안할 때, 저장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¹¹⁾ 이 플라스크형 저장혈을 고민정·Martin T. Bale(2009)은 엘리트가 그들 자신을 위한 잉여물을 수혈 내부에 따로 비축해 두고 통제된 것으로 보았다(그림 10). 물론 위치상 내호 내에 위치하여 중심지와 가깝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지만, 단순히 잉여물이라기 보다는 고상창고와 저장대상물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상창고가 통기가 필요한 곡물의 저장시설이라면 저장혈은 구근식물의 저장시설로서 구분되었을 것이다. 여하튼 남강유역에서는 대평리 동취락에서 단

10)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고상건물을 굴립주(掘立柱) 건물로 지칭하고 있으나 굴립주라는 용어는 지상식 또는 고상식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우리나라는 토양의 성질상 기둥을 땅속에 묻어 세우는 방법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잔존하는 많은 목조건물 중 주혈을 파서 기둥을 세운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근세까지도 기둥 밑동을 땅속에 박아 세우는 방식이 존재하여 이를 굴립주라고 불렀으며 지상식·고상식 외에 주거지의 주혈도 포함되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굴립주라는 용어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배덕환 2005).

11) 대평리유적 서취락에서는 고상창고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동취락은 옥방 1지구에서 8기가 조사되었으나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아 유구배치도상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규모와 구조상 2×2칸의 고상건물 1기는 건물로 분류가능하나 그 외 건물은 칸의 배치 및 형태, 주칸거리 등에서 정연성을 찾기 어렵다.

1기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¹²⁾ 그 외 대형토기의 출토량이 남강유역에서는 대평리유적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환호 외부에서 대부분 출토된다는 점에서 장기 저장용기로 보기 어렵다.

취락민들의 식량문제는 단순히 경작지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장이 수반되어야 미래에 대한 대비 및 안정적인 발전이 도모되며, 남강유역의 취락들과 같은 대규모 농경민들은 계절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기초적인 식량으로 개발하여 이를 대량수확한 후 저장을 통해 남은 기간을 대비하는 경제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이다.¹³⁾ 이를 감안한다면, 대평리유적의 고상창고 부재를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유실된 미조사지역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옥과 같은 규모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품을 식량과 교환하거나, 주변 취락에서 지원 또는 상납 받았을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배덕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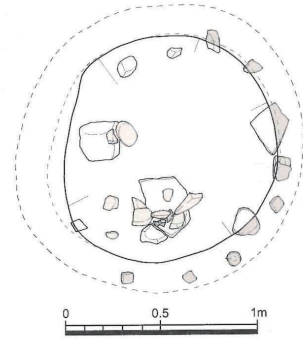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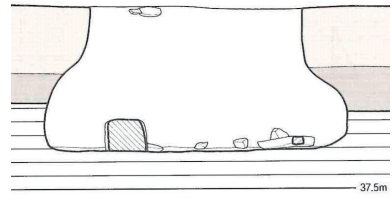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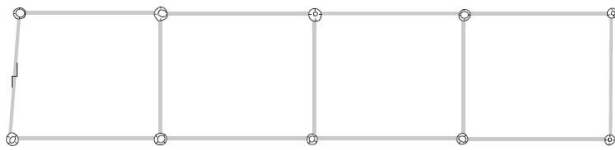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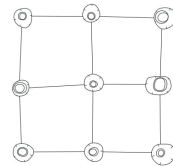


그림 10. 대평리유적 저장형



I 유형 : 이곡리유적 8호 고상창고



II 유형 : 산청 묵곡리유적 1호 고상창고

그림 11. 남강유역 고상창고의 유형(縮尺不同)

남강유역의 고상창고는 <그림 11>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I유형은 단축 1칸×장축 3칸 이상의 (세)장방형 구조를 띠며 이곡리유적에서는 정연하게 구획된 구 내

12) 고상창고는 곡물의 저장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방습(防濕)·방열(放熱)·방서(防鼠)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건물이다. 또한 2차적으로는 곡량이 머무는 장소 및 제사장소로서 수많은 속신을 동반하는 신비적 공간이기도 한 양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고상창고의 하부는 각종 장비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거나 우천시 작업장, 휴식공간, 장지(葬地) 등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된다. 고상창고를 실제로 축조해 보면 높이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식(主食)에 대한 전통적인 존경과 애착이 표현되기 때문이다(배덕환 2012).

13) Martin T. Bale(2014)은 대평리유적의 대규모 밭에 초과식량을 생산했을 간접증거는 될 수 있지만 취락민 전체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부에 조성되었다(그림 12). 이 유형의 건물은 최초 1×1칸으로 조성하였다가 저장물의 축적에 따라 증축을 통해 칸을 붙여 나간 것으로 보인다.¹⁴⁾ 남강유역에서 많은 수가 확인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평리문화의 특징적인 창고형태로 볼 수 있으며 주변 유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곡식창고일 가능성이 높다.¹⁵⁾ II유형은 정면과 측면을 처음부터 2~3칸의 방형으로 조성한 건물로 산청 묵곡리유적, 대평리유적 동취락과 초장동·이곡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곡리유적은 I유형의 곡식창고와 달리 환구와 지석묘 사이, 산청 묵곡리유적은 주거지 주변의 옥 작업과 가까운 곳에 조성되었는데, 내주가 설치된 방형의 구조적 안정성으로 인해 곡식창고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원석, 원자재, 기물 등)을 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이곡리유적의 고상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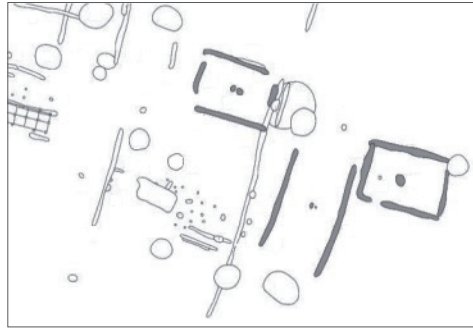


그림 13. 평거동유적 야외노지와 대상유구

4. 조리시설 : 야외노지

야외노지는 산청 묵곡리유적,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평거동·가호동유적 등에서 다수 출토되었지만, 일부 유적에서는 수혈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거역에 혼재된 경우와 일정지역에 군집하는 경우로 구별되며 평면형태는 원형·방형·부정형 등 다양하다. 규모는 대체로 2m 이하이나 편차가 있다. 평거동유적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대상유구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별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진 경우도

14) 방형으로 증축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고려 때문에 확장이나 연장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면적이 커지면 그와 비례하여 지름이 커져야 하기 때문에 구조의 경간(徑間 : SPAN)도 벌어져야 하지만, 방형은 폭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공간만 있다면 길이를 무한정 확대 가능하다. 또한 원형일 경우 누적이나 덧붙이는 방식의 확장이 어려운데 비해 방형은 평면형태의 융통성으로 건축재료와 공간활용의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15) 대구 월성동498·600·상인동 123-1유적의 단축 1칸×장축 다칸의 세장방형 창고는 중기 후반의 오곡리식 주거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유병록 2019).

또한 환호의 평면형태는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이곡리유적 등 대평리문화권은 방형계인데 비해 검단리문화권은 원형계로 차이가 있어 설계단계의 계획성과 자연지형의 활용방법이 엇보인다(표 2).¹⁶⁾

표 2.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환호(구)의 평면형태와 내부 면적

대평리문화권			검단리문화권		
유적	평면형태	면적(㎡)	유적	평면형태	면적(㎡)
산청 옥산리	(‘-’자형)	(3,894)	울산 창평동	원형	3,022
대평리 서취락	(‘-’자형)	(8,593)	울산 연암동	원형	3,760
대평리 동취락	방형	(25,195)	울산 명산리	타원형	4,133
초전동	(‘-’자형)	(10,987)	울산 검단리	타원형	6,041
이곡리	방형	4,705			※ ()는 잔존치

환호로 둘러싸인 내부 면적은 취락의 극히 일부만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평리유적 동취락은 25,195㎡, 초전동유적은 10,987㎡인데 비해 검단리문화권은 3,022~6,041㎡로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이는 취락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이곡리유적이 4,705㎡로 검단리문화권과 유사한 것도 의례취락의 공간적 제한을 시사한다. 의례용 환구 내부는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환구만 파서 공간을 결계한 평면적 시설인데 비해 방어용 환호는 대평리유적 동취락처럼 토루, 목책이 부가된 입체적인 시설로서 취락민 보호를 위한 은폐·엄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배덕환 2019).

한편 대평리유적은 변영기를 구가하던 중기 전반에는 직선거리 약 1.5km 정도 이격된 2개소의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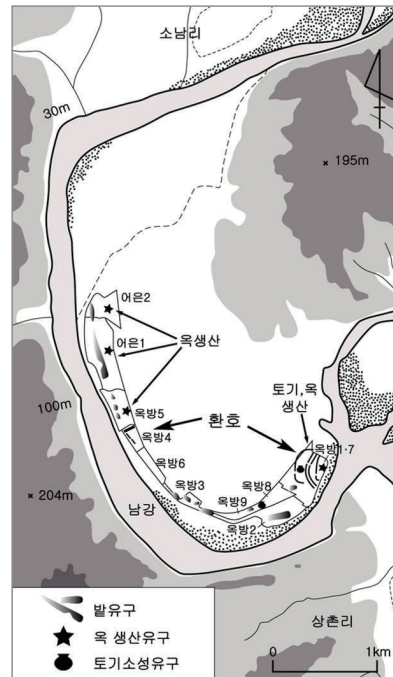


그림 15. 대평리유적 구간도 (고민정·Martin T. Bale 2008)

16) 춘천 중도유적 환호의 평면형태도 방형계이다. 규모는 장축 121.6m, 단축 87.2m, 면적 약 9,516㎡로서 출입구 2개소와 돌출부를 갖추고 있다(한강문화재연구원·한백문화재연구원·예맥문화재연구원·고려문화재연구원·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

취락이 공존하였는데, <그림 15>와 같이 적색 마연토기, 석검, 옥 장신구와 같은 수공업 생산과 교역(고민정·Martin T. Bale 2008; 쇼다 신야 2009), 농경, 어로, 수렵 등 취락간 역할분담(배덕환 2019)을 통해 우호적인 쌍체취락으로서의 관계설정이 가능하며(배덕환 2000; 최종규 2002; 고민정 2009), 동일공간을 점유하는 우호적인 집단이 분리 조성되었다는 점은 광활한 충적지 전체에 환호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임과 동시에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방향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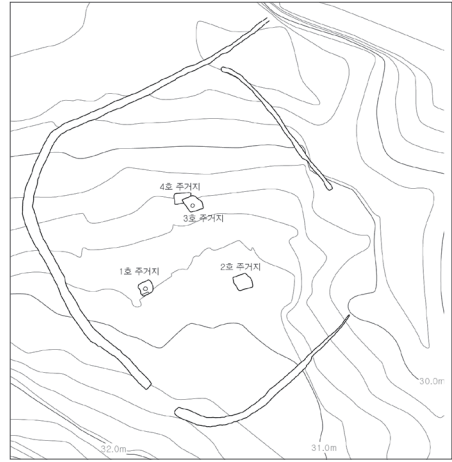


그림 16. 이곡리유적의 환구

이에 비해 이곡리유적의 환구는 총 연장 약 176m, 너비 1~2m, 깊이 0.5~0.8m, 내부 공간의 면적은 약 4,705㎡이다(그림 16). 환구 내부에는 3동의 주거지가 삼각배치되어 있으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향으로 구획하고 남호와 동호의 모서리와 북호와 서호의 모서리에 2개소의 출입구가 대칭적으로 배치되었다. 출입구의 너비는 남호쪽이 4m, 북호쪽이 1m로 편차가 있는데, 주변 유구와의 배치관계상 남호쪽 출입구는 구릉에 조성된 조상의 묘역과 제단으로의 출입을 행하는 관념적인 시설이라면 북호쪽의 출입구는 속세에서 신성한 공간으로의 출입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IV. 방어취락의 구조와 효용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에는 남강유역에 방어시설로서 환호, 목책이 조성된 취락이 산청 옥산리유적,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가호동·초전동유적에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취락은 극히 일부만 조사되어 정확한 양상파악이 어려우므로 대평리유적 동·서취락을 중심으로 구조 및 효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어시설의 전개

대평리유적 동취락은 3개 기관에서 6열의 환호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상당히 혼란스러운 편이다. 환호의 서쪽은 주거지, 수혈, 무덤, 경작지 등이 서취락으로 이어지며 남쪽과 동쪽은 남강, 북쪽은 미조사구역으로 정확한 양상과 약은 어렵지만 평지가 약 1km정도 펼쳐져 있어 서쪽과 같은 유구분포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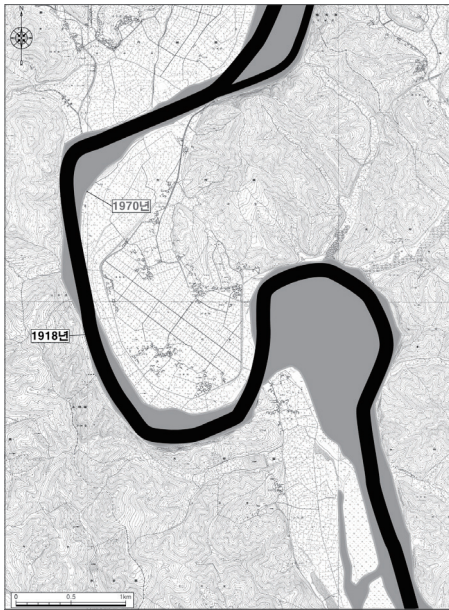


그림 17. 남강 유로 변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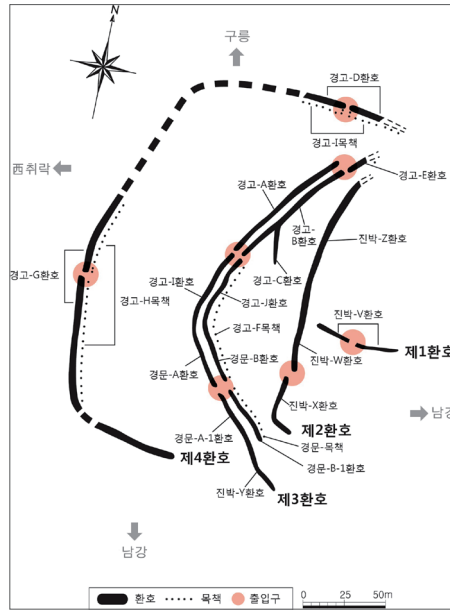


그림 18. 대평리유적 동취락 환호 통합도

1918년 일제강점기때와 1970년대의 지형도를 비교한 <그림 17>을 참고하면 남강의 하천 폭이 훨씬 넓어짐에 따라 강변 축적지가 약 200m 정도 유실되어 환호취락의 1/2정도만 잔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취락 제4환호의 잔존 내부면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환호취락 중 가장 넓다.¹⁷⁾

서취락은 옥방4·6지구에서 ‘L’자형으로 조사되어 평면형태 방향으로 추정되나 전체적인 규모파악은 어렵다. 길이 130m의 이중환호가 북서-남동향으로 진행하는데, 남

17) 일본 요시노가리(吉野ヶ里)유적의 전체면적은 583,000㎡인데 비해 현재 남아 있는 대평리 축적지의 전체면적은 1,670,900㎡로 거의 3배에 육박한다. 전체 면적이 유적의 분포면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평리유적의 극히 일부만 발굴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요시노가리유적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쪽의 동의-1환호가 내호, 북쪽의 동의-2환호가 외호이다. 동의-1·2환호는 2~5m간격으로 나란히 진행하며 서쪽의 동의-3환호는 동아-1환호로 연장된다(그림 19).¹⁸⁾ 중앙부에는 2~4m너비의 출입구가 위치하며 환호 내측 주거지는 모두 대평리식으로 동취락과 동일하나 다음 단계인 오탁리식 주거지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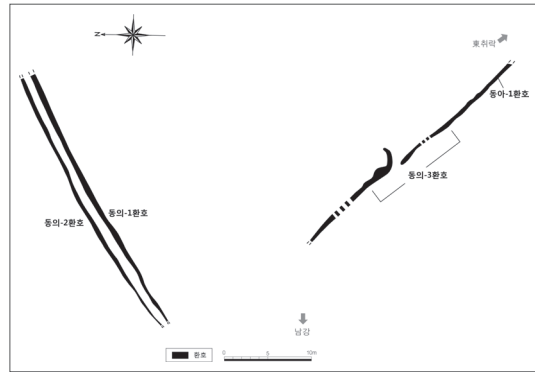


그림 19. 대평리유적 서취락 환호 통합도

상기와 같은 동·서취락의 환호 중 중심이 되는 곳은 단연 동취락이다. 최종규(2002)는 동취락 환호를 제1~4환호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으며(그림 18)¹⁹⁾ 제1환호 내측에는 대평리식 주거지가 조성되었으나 제2환호 내측에는 대평리식 주거지뿐만 아니라 4동의 오탁리식 주거지도 있어 시기특정이 어려우며 제4환호 내측에도 3동의 오탁리식 주거지가 위치하나 환호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환호는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 곧 폐기되고 그런 후에라도 필요하게 되면 다시 굴착되는 양상으로 단순화하였다. 즉 제1환호가 선축되었음은 분명하나 제2~4환호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이견없이 수용되어 왔으며 대평리유적 쌍채취락의 구체적인 공존 시기 및 분촌양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전된 바 없다.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림 20>과 같은 동취락 환호의 발생과 통합, 폐기 등의 변화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환호간 직접적인 중복관계를 보이는 것은 제1환호와 제3환호로서 제1환호가 선축되었음은 분명하지만 제3환호가 제1환호의 곡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기 후 바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2~4환호는 주거지의 구조는 동일하나 제3환호의 중심축이 제2·4환호와와는 상이하며 출입구의 방향도 어긋난다. 따라서 환호의 중심축이 일치하고 출입구의 방향이 동일한 제2·4환

18) 동의-3환호와 동아-1환호는 보고서 유구배치도에는 구로 명명되었으나 규모, 단면형태, 진행방향 등에서 동의-1·2환호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이 환호들은 남강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유실된 동취락의 동쪽 역시 남강의 진행방향으로 환호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9) 최종규의 논문(2002)과 경남고고학연구소의 보고서(2002) 비교 결과, 개별 환호 및 목적 번호가 일부 불일치하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작성하였다.

호가 동시 운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제2환호가 내호, 제4환호가 외호로서 기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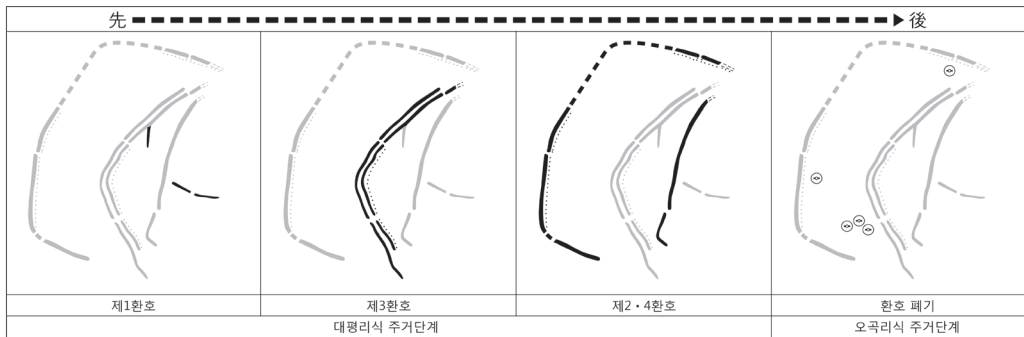


그림 20. 대평리유적 동취락 환호의 발생과 폐기

한편 서취락의 환호는 동취락처럼 다회 조성하지 않고 이중환호 1회로 한정된다. 근거리에 입지하는 쌍체취락으로서 같은 자연환경 및 변화과정을 거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어느 시점인가에 동·서취락 중 한 곳은 분촌 등의 이유로 신규 개척된 곳으로 볼 수 있다.

서취락 이중환호와 동일구조는 동취락 제3환호로서 양 취락이 쌍체취락으로 존재한 시기는 바로 제3환호 단계이며 이후 제2·4환호 단계가 되면 <그림 21>과 같이 서취락 동의-3환호와 동아-1환호 상부에 경작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서취락이 폐기되고 난 뒤 동취락에 합촌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주거입지 및 가경지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공업 생산의 집중화를 유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내호와 외호의 공간 폭이 넓어 지는데, 내호 내에 위치하는 주거지 규모가 커지고, 토주·꼬막의 출토, 유물 수량이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수장층의 주거구역으로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배덕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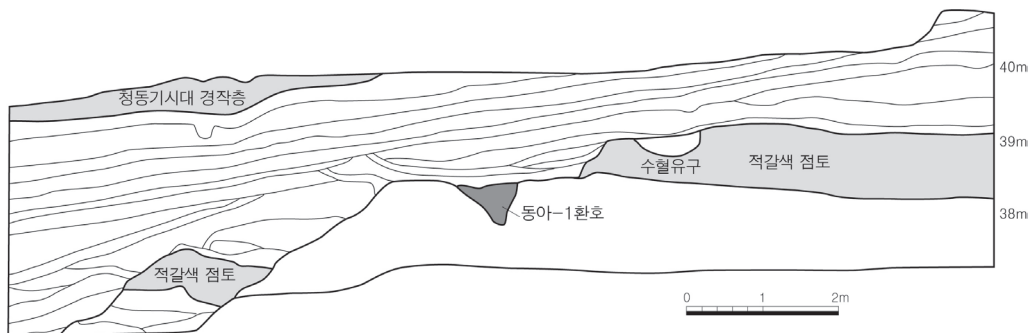


그림 21. 대평리유적 서취락 동아-1환호와 경작층 토층도 (동아대학교박물관 2002 수정)

이후 오폭리식 주거단계가 되면 환호는 폐기되고 동취락에 소수의 주거지만 산포할 정도로 급격히 축소된다. 결국, 동취락의 환호는 제1환호→제3환호→제2·4환호 순으로 조성의 선후관계는 보이지만 주거지 및 유물의 형식상 시기 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취락의 입지는 가경지를 최대화하고 비생산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경지-물 복합체로서 농업생산성을 최대화한 경지배열을 전제로 남강과 가까운 동쪽에서 구릉 방향의 서쪽으로 점차 규모가 확장되며 환호의 평면형태(원형→방형), 구조(단독→다중), 환호간 간격(연접→내·외호의 분리), 목책 설치 등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단기간 수회에 걸친 환호의 설치 및 유지는 대규모 경작지의 운영과 함께 취락 구성원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수장의 강력한 통솔력과 구성원 전체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배덕환 2019).

2. 방어시설의 구조

대평리유적 동·서취락에서 환호, 목책은 명확하지만 지상구조물인 토루는 조사되지 않았다. 환호, 목책의 길이는 21~130m로 다양하나 긴 구의 형태로 연속되거나 단절되어 분류기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환호의 단면형태, 출입구의 양상, 목책의 규모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다.

1) 환호

환호의 단면형태는 ‘V’·‘Y’자상으로 대별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동기시대 환호의 단면형태는 대부분 ‘U’자상이며 ‘V’자상은 울산 검단리·연암동환호유적, 창원 남산유적, 이곡리·가호동유적 등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Y’자상은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가호동유적에서만 나타날 정도로 극소수이며 일본에서는 요시노가리유적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것은 처음 조성시부터 계획한 것으로 침입자가 빠르게 되면 거동을 제한시켜 쉽게 공략하기 위함이다(그림 22).

환호의 너비는 동취락 1.2~4.5m, 서취락 1.5~2.9m이며 깊이는 동취락 0.85~1.7m, 서취락 0.8~3.2m이다. 잔존상태로는 너비나 깊이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삭평되었음을 감안하면 최소 너비 3m, 깊이 3m를 상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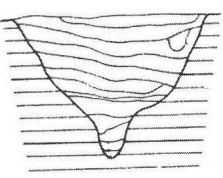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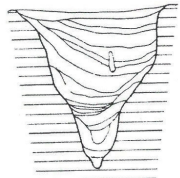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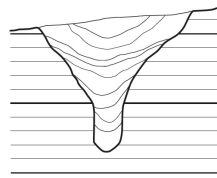
대평리유적		가호동유적
동취락	서취락	
		
경문-A환호	경문-B환호	동의-1환호

그림 22. 대평리·가호동유적 'Y'자상 환호 단면형태(縮尺不同)

환호의 출입구²⁰⁾는 동취락 제1~4환호는 환호들 사이를 단절시켜 조성하였는데, 가호동·이곡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울산 검단리·연암동환호유적, 춘천 중도유적 등 대부분의 환호취락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동일하다. 환호가 만나는 지점을 굴착하지 않았다는 점, 대칭되는 위치에 다른 출입구가 배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계획된 설계로 판단된다.

출입구의 너비는 2~5.1m로 편차가 있으나 제2환호를 제외하면 2~4m 범주에 포함된다. 울산 연암동환호유적의 동쪽 내호 0.6m, 외호 4.5m, 서쪽 내호 0.72m, 외호 1.96m로 편차가 있으나 울산 검단리유적이 남쪽 3m, 북쪽 2.75m, 남강유역의 이곡리유적 남쪽 4m, 북쪽 1m, 가호동유적은 3.7m로 유사하다.

2) 목책

목책은 남강유역의 다른 취락들에서는 보이지 않고 대평리유적 동취락 제3환호 내호와 제4환호의 진행방향을 따라 열상배치되었다. 출입구쪽은 의도적으로 기피하였으나 보안을 요하는 제4환호의 경고-1목책은 환호 출입구의 내측에 2열의 목주를 들여세운 뒤 2열부터 목책을 조성하였다. 다른 목책들의 목주간 간격은 2.5m 정도이나 경고-1목책은 4.2m로 넓은 편이다. 주혈의 직경 55cm, 깊이 35cm로 일정한데, 주거지나 고상건물에 사용된 목주의 직경이 20cm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목책 목주의 직경 역시 이와 유사

20) 환호 사이의 단절부를 육교부(대평리유적 옥방1지구-국립진주박물관·경남고고학연구소, 이곡리유적-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출입구(대평리유적 옥방4지구-동의대학교박물관, 옥방7지구-경남문화재단연구원, 울산 검단리유적-부산대학교박물관), 출입구(육교부) 혼용(창원 남산유적-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입구부(가호동유적-동서문물연구원)로 보고자별 용어상 차이는 있으나 의미는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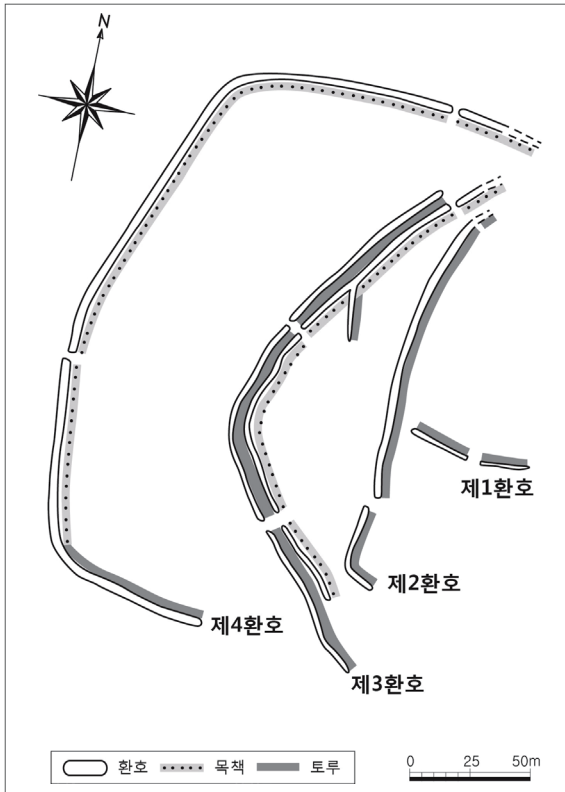


그림 23. 대평리유적 동취락 목책, 토루 모식도

하거나 약간 컸을 것이다. 주혈 굴착 후 목주를 세운 뒤 흙으로 보강하였으며 고정된 목주 사이는 다른 목주를 종·횡으로 연결하여 약간 성글게 고정하고, 뒤쪽에 토루를 쌓아 보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목책은 전체를 일주하지 않고 <그림 23>과 같이 북쪽과 서쪽에 집중되고 있다. 남강과 가까운 남쪽과 동쪽은 유실되어 전모파악이 어렵지만, 취락 중심부에서 남강쪽은 설치하지 않고, 북쪽과 서쪽의 구릉에서 진입하기 쉬운 구간에만 전략적으로 설치하였다. 그 외 구간은 방어성이 좋지만 수급이 까다로운 목책보다는 토루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토루는 발굴조사시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환호 굴착시 나온 배토(排土)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환호 내에 흙을 쌓아 올리면 토사운반 비용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환호의 깊이와 배가되어 높이가 훨씬 높아진다. 침입자가 느끼는 체감효과는 훨씬 크며 실제로도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24>는 동취락 제3환호의 경문-A·B환호를 토대로 복원한 것이다. 현지표에서 경문-A환호의 너비 1.6m, 깊이 1.2m, 경문-B환호의 너비 1.5m, 깊이 1.7m이나 삭평을 감안하여 구지표를 1m만 상승시켜도 경문-A환호의 너비 1m, 경문-B환호의 너비가 1.3m 넓어지며 배토를 활용하여 경문-A·B환호 사이에 토루를 쌓는다면 그 효과는 훨씬 증대된다. 결국 환호, 목책, 토루 중 환호보다는 목책, 토루가 효과적인 방어시설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상구조물인 목책, 토루는 유실되고 지하구조물인 환호만 남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환호취락’으로 명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시설이 복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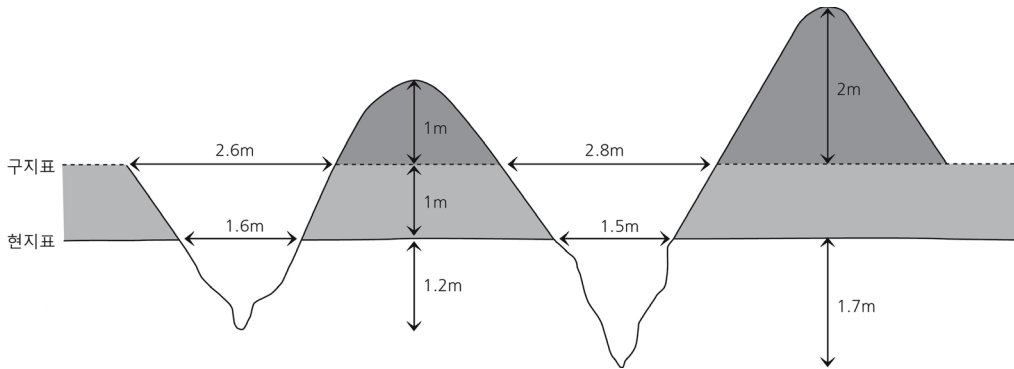


그림 24. 대평리유적 동취락 환호, 토루 복원도

3. 방어시설의 효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호, 목책, 토루가 방어시설로 기능하였다면 당시의 긴장과 갈등관계가 반영된 전쟁유구가 검출되어야 한다.²¹⁾ 동취락 옥방7지구 17호 석관묘에서는 두향이 남향인 양와신전장(仰臥伸展葬)의 단수인골(斷首人骨) 1구가 검출되었는데, 추정신장 149.3cm의 여성이다. 김재현(2002)은 고대 전쟁에서 단수행위는 대개 남성 전사에 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쟁희생자로 보기 어려우며 동일 묘역에 묻혔다는 점에서 형벌에 의한 참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되었다는 점, 시신을 거둬 묘역에 안치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중요도가 높은 인물이었음을 유추가능하게 한다. 그리스신화 속의 아마조네스, 중국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여장군이자 제사장이며 상나라 22대 왕 우딩(武丁)의 비인 푸하오(婦好) 등에서 보듯 이 단수인골은 여성 전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사의 전쟁에서 남녀구별은 무의미하며 뒤의 무구류 분석에서 언급하겠지만, 활과 같은 여성의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원거리 무기라면 충분히 전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무덤의 무구류 출토양상에서도 전쟁희생자의 양상을 파악가능하다. 이주현(2000)은 무덤 내 무구류의 출토위치와 파손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적인 부장품으로 보는 인식에 재고를 요하였으며, 동취락 옥방8지구 2·5호 석관묘를 전쟁희생자로 보았다. 전쟁희생자는 몸에 무구류가 박힌 채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물

21) 김권구(2005)는 청동기시대 중기에 논농사를 포함한 농경집약화와 같은 생업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현상으로 사회적 긴장이나 갈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완형으로 출토되기 보다는 서취락 옥방4지구 1호 석관묘와 같이 석축의 선단부만 피장자의 위치에서 출토된다.



그림 25. 달성 평촌리유적과 대평리유적 무덤의 유물출토양상(縮尺不同)

〈그림 25〉는 인골이 양호한 상태로 검출된 달성 평촌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과 비교한 것인데, 완형상태로 피장자와 벽면 사이에서 출토되는 부장품과 달리 전쟁희생자는 완형이 아닌 석검·석촉편이 몸에 박힌 채 중앙부에서 수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의례행위에 수반되는 파검·파촉 등의 부장품습(이재연 2016)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당시의 긴장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결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실제 침입자들이 환호를 대면하면 도약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지, 활과 같은 비병기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그림 26〉은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서취락 동의-1환호를 기본으로 환호(A), 환호+목책+토루(B), 환호+토루(C)의 상황을 대입하여 도약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지①, 활쏘기로부터 엄폐²²⁾ 가능한지②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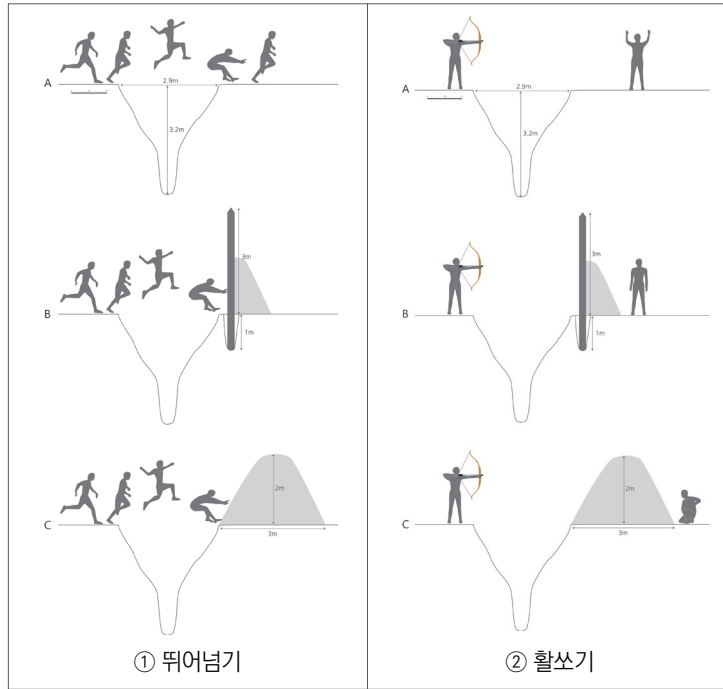


그림 26. 환호, 목책, 토루 뛰어넘기와 활쏘기에 대한 대비

〈그림 26-①〉은 멀리뛰기로 환호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 것이다. 현재 제 자리 멀리뛰기 세계기록은 3.73m, 우리나라 25~29세 남성의 평균기록은 2.21m이며 한국체대 입시 만점기록은 3m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시 달려와서 뛰는 것을 감안하면 멀리뛰기가 적합하다. 멀리뛰기 한국기록은 8.22m, 세계기록은 8.95m 이나 도움닫기 거리가 40m에 달하고 과학적인 훈련과 장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이에 연령대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움닫기 거리를 3·6m로 설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2) 엄폐(Cover) :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는 것, 공격시 방어 가능
은폐(Hide) : 적의 시야로부터 숨는 것, 공격시 방어 어려움

23) 대상자는 인골이 잔존하는 옥방4지구 26호 석관묘의 남성 신장인 164cm를 기준하였다(김재현 2002). 초기철기시대인 늑도패총의 인골분석결과, 남성의 평균신장이 161cm, 기타규슈(北部九州)의 야요이(弥生)시대 남성 신장이 160cm 미만 인 점을 고려하면 장신에 속한다.

표 3. 연령대별 멀리뛰기 거리측정

연령	도움닫기	3m	6m
	20대	①	2.3m
②		2.5m	3.2m
30대	①	2.3m	2.4m
	②	2.5m	3.2m
40대		2.2m	2.3m

〈표 3〉을 참고할 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일 경우 도움닫기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보통 2m 정도는 가능하지만 3m 이상은 어렵다. 또한 환호 안을 해자처럼 물을 채워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거나, 경사도 차이가 있거나, 앞에 방어자가 있다면 쉽게 뛰어넘을 수 없다. 다만 이를 공략하기 위해 목책 다리를 놓는 방법도 고려되지만 기동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그 외 〈그림 26-①-B·C〉와 같이 목책, 토루 등 일종의 벽이 있다면 뛰어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호만으로 방어기능을 수행하려면 너비와 깊이가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목책, 토루가 부가된다면 방어효과는 보다 확실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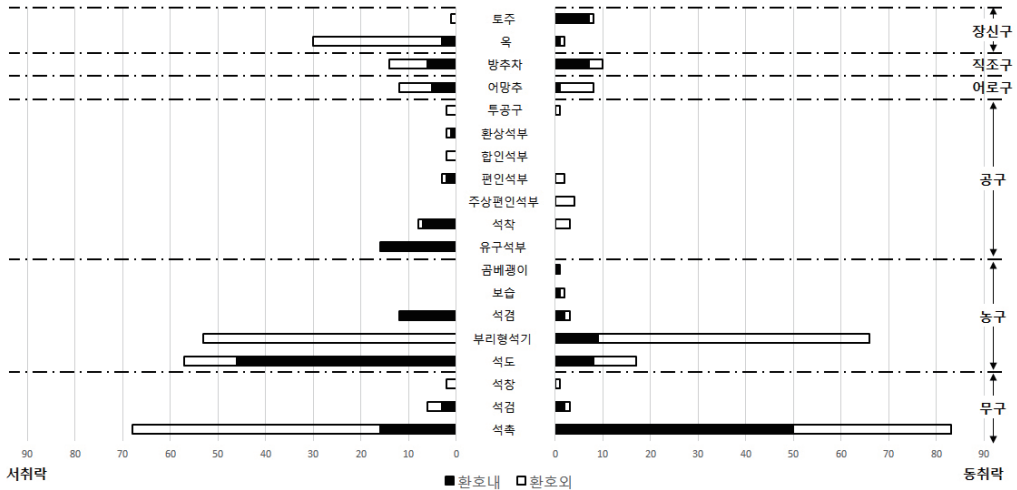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서취락 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무구류 중 압도적으로 출토량이 많은 원거리 무기인 활에 대한 대비이다. 동·서취락의 출토위치가 명확한 주거지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점유율을 비교한 〈표 4〉를 참고할 때, 무구류는 석검이 동취락 4점, 서취락 5점이고 석창은 동취락 1점, 서취락 2점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석촉은 보통 주거지당 1~3점씩 출토되나 대형 주거지일 경우 10점 이상으로 많다.²⁴⁾ “국궁신문 (2010. 06. 20)”의 ‘국궁, 세계대회시 과녁거리에 대하여’라는 기사에는 세계에서 가장 먼 국궁의 유효사거리가 145m이며 전투시에는 보통 2~300m, 실전 사용시 3~400m는 여유롭게 날아간다고 한다. 시대적·과학적 한계를 최대한 감안하여 유효사거리를 50m로 설정하더라도 상당히 위력적이다.

따라서 당시 전쟁에서는 근접 무기인 석검, 석창보다는 원거리 무기인 활이 선호되었으

24) 원삼국시대에는 더 많은 수량이 부장되었는데, 김해 대성동고분군 29호묘 304점, 김해 양동리고분군 200호묘 100점·235호묘 70점·280호묘 155점이며 162호묘는 너무 많아 보고서에 정확한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정도이다(배덕환 2022).

며²⁵⁾ 이는 앞에서 살펴본 옥방4지구 1호 석관묘와 옥방8지구 5호 석관묘와 같은 전쟁희생자 무덤 출토품으로도 증명가능하다. 당시 취락 인구=병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활은 여성이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이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²⁶⁾

표 4.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환호 내·외 주거지 출토 유물 비교(배덕환 2019)



이상과 같이 활이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제아무리 환호의 너비와 깊이가 받쳐주더라도 입체적 시설물이 부가되지 않으면 <그림 26-②-A>와 같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지만 <그림 26-②-B·C>와 같이 목책, 토루로 엄폐가 가능하면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은 채 효과적인 공격도 가능하다. 특히 목책과 목책 사이의 공간을 총안(銃眼)²⁷⁾과 같이 활용하거나 망루를 쌓는다면 적의 움직임을 넓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25) 안재호(2019)는 석검이 무기형 석기로써 위신재에 해당하므로 수장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더욱 정교하게 과시적인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보았으며 조진선(2020)은 청동기시대 무기는 석촉과 석검이 주류를 이룸을 지적한 바 있다.

26) 인류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무기 중 하나로 평가되는 활은 창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무기로서 인간과 동물의 전력 차를 극복하여 부상률을 감소시키고 적은 힘으로 사냥이 가능하였다. 활의 작동원리는 크게 줄을 당기는 힘과 되돌아가는 힘인 장력으로 이루어지며 재료(목궁·죽궁·각궁·천궁 등), 크기(단궁·장궁), 탄성(곡궁·만궁),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군사전문가들은 활의 장점을 ① 피해없이 적 공격 가능, ② 병력손실 최소화, ③ 수적 열세를 극복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① 다루기 어려움(단순한 구조로 사용자 역량 중요), ② 가능자와 같은 조준도구가 없음(궁수의 감각, 바람의 세기와 온도 등 외부조건의 영향을 받기 쉬움), ③ 많은 훈련 필요, ④ 보관의 어려움(민감한 무기로서 특히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YouTube “오랑의 판타지 사전”).

이상을 고려할 때, 전쟁시 활과 같은 원거리 무기에서 근접전으로 전환된 것은 대도가 출현하는 국가형성기부터이며 이후 화약무기로 대체될 때 까지 장기간 사용되었다.

27) 총포를 사격할 수 있도록 토치카, 엄폐호, 장갑차 등에 내놓은 구멍. 축성물의 총안은 사각(死角)의 범위가 가능한 한 좁고, 화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의 지형을 고려해서 설치되며 적 화기의 집중적인 공격 표적이 되므로 최소한의 공간이 되게 설치한다(『두산백과사전』).

아래로의 공격에 중력이 미치게 되어 무기의 효력이 증대하는데 비해 아래에서 위로의 공격은 위력이 반감된다.

동취락 제1~4환호 중 제3환호부터 목책이 부가되고 이중환호 사이에 토루를 조성하는 등 보다 삼엄해져 제4환호까지 이어진다. 구조적으로 가장 뛰어난 단계는 제3환호 조성시기의 쌍체취락으로서 이중환호와 목책, 토루로 방어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취락간 유기적인 협공이 가능하였다(그림 27).



그림 27. 대평리유적 동·서취락 방어시스템

V. 취락의 해체

대평리유적에는 동·서 쌍체취락과 내·외호로 분리된 대규모 환호가 순차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다음 단계가 되면 동취락에만 환호도 없는 소규모 주거군집으로 축소되며 이는 평거동·가호동·초전동·초장동유적 등 남강유역의 모든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남강유역의 중기 전반은 농업집약화와 잉여의 불균형에 따른 집단간 갈등, 전쟁의 빈발 등 본격적인 취락간 경쟁단계에 접어들어 남강유역에도 다수의 환호취락이 일정거리를 두고 분포한다. 환호가 설치된 취락은 중심취락으로서 위성취락을 개발하여 각자의 취락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 취락공동체간은 물류의 유통에 따른 평화로움과 자원, 식량을 둘러싼 긴장의 연속성을 대비하여 방어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렇지 않고 동일 주거유형의 분포를 우호적인 관계로만 상정하면 굳이 그런 방어시설은 필요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대평리와 경쟁취락은 넓은 강변 충적지의 입지조건을 가진 상류의 산청 옥산리유적과 하류의 초전동유적이 유력하다(그림 28). 21.3km 이격된 산청 옥산리유적은 인근의 산청 묵곡리유적을 위성취락으로 두고 옥 제작 및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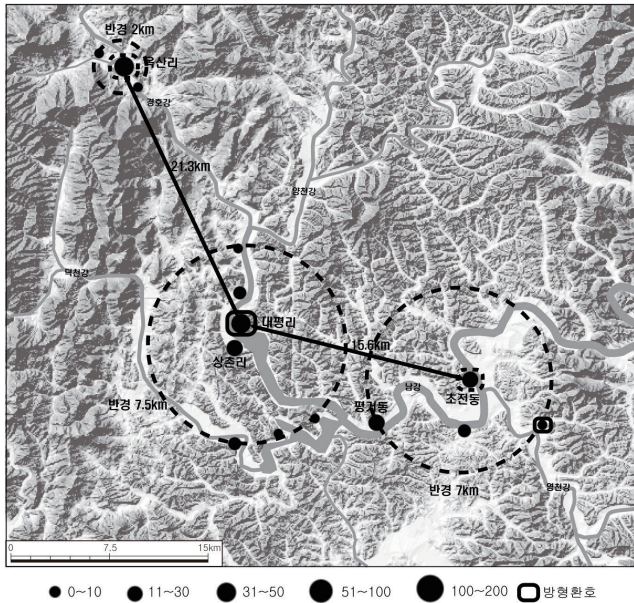


그림 28. 대평리 취락과 경쟁취락의 분포권(배덕환 2019)

배와 관련하여 경쟁하였으며 15.6km 이격된 초전동유적은 평거동·가호동유적을 위성취락으로 두고 대규모 식량생산이 가능하였다.²⁸⁾

대평리유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농경지를 운영한 취락임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로 볼 만한 고상창고는 빈약하여 마치 ‘약탈자’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 결국 남강유역의 중심취락들은 환경과 자원을 두고 경쟁이 불가피하여

침략, 약탈,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환호, 목책, 토루와 같은 다중의 방어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갈등의 증거로서 화재주거지를 예로 들 수 있지만 남강유역의 취락에서 화재주거지는 전무하다. 대신 환호의 매물, 주거지의 중복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전쟁과 같은 갈등상황이 아니라 남강의 범람에 따른 수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비단 대평리유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강유역의 다른 취락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넓고 비옥한 충적평야에서 일시에 소멸되다시피 없어진다는 점에서 대홍수와 같은 수해가 예상된다.²⁹⁾

황상일(2002)은 지형분석을 통해 수차에 걸친 홍수나 범람의 피해를 지적하였지만, 고

28) Martin. T. Bale(2014) 역시 대평리와 초전동유적을 다수의 주거지와 부속유구들이 밀집된 1등급 취락으로 규정하였다. 환호와 목책 같은 유구를 두름과 동시에 기능적으로 공간이 분리되고 특수 기능의 건축물과 영구 경작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축과 사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구조화가 진행되며 개인과 집단들 상호간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즉 흔히 볼 수 없는 거대취락으로서 중심취락, 거점취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황재훈·이정은(2022)은 남강유역 생활유구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는 대부분 대평리유적으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서 출토된다고 보았다.

29) 비슷한 시기의 김천 지파리유적도 대홍수 이후 주거지의 수가 급감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지적되었다(안재호 2020). 각 지역별 수해사례의 취합 필요성이 있지만, 남강과 문천유역의 사례는 마치 을축년(1925) 대홍수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朝鮮總督府 1925).

고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가능하다(배덕환 2019).

- ① 전쟁 등의 이유라면 나타나야할 승자독식의 정황이 보이지 않음
- ② 대평리유적에 국한되지 않고 남강유역 취락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남
- ③ 각 차수별 환호의 폐기도 수해로 인해 일거에 매몰, 재굴착

이는 다음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중기 후반의 오폭리식 주거단계가 되면 남강유역 평지 취락은 상당히 축소되어 대규모 취락은 보이지 않고 산청 사월리유적, 귀곡동 대촌유적 처럼 구릉에 소규모 취락을 형성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환호, 목책, 토루 등의 방어시설을 설치하여 생존에 특별한 공을 들인 대규모 취락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닌 자연의 힘에 굴복하여 종말을 맞게 되고, 이후 1,000여년이 지난 삼국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써 농경취락이 재등장하게 된다.

VI. 맺음말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은 평지입지, 대규모 농경지, 방어시설의 구축, 고상창고, 대상유구, 야외노지군, 토기가마와 함께 토기 및 옥, 석기의 생산과 유통 등의 독특한 특징으로 대평리문화로 규정지을 수 있다. 특히 중심이 되는 대평리유적은 한정된 공간에 쌍체취락이 조성되어 독자적·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변영을 누리다 홍수의 영향으로 쌍체취락이 수몰되고 난 후 기존과는 달리 동취락으로 합촌됨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고 내·외호로 구분된 환호 안에서 신분질서를 재편한다. 동·서취락으로 분리되어 있던 역할분담을 동취락으로 일원화·집중화시킨 단계로 변영기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이후 들이 닦친 대홍수로 취락 자체가 소멸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난 후 다음 단계에는 동취락만 소규모 주거 군집이 잔존할 정도로 급격히 약화된다. 이러한 재해는 대평리유적 뿐만 아니라 남강유역 동시기 취락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서 고고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당시의 생업, 환경 복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남강유역의 대평리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중요한 유적군으로서 진주지역 청동기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로 재평가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4, 「남강유역 무문토기문화의 변천」,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무문토기시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 『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_____, 2009,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중심취락과 취락간 관계」,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제2회 워크숍 발표요지, 한국청동기학회.
- 고민정·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분화-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韓國青銅器學報』第2號, 韓國青銅器學會.
- _____, 2009,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집약화와 사회조직」, 『慶南研究』창간호,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국립김해박물관, 2022, 『환호의 성격과 의미』,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 국립진주박물관, 2002,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山淸 默谷里遺蹟』.
- 경남문화재연구원, 2012, 『진주 평거동유적Ⅳ』.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Ⅲ』.
- 경상대학교박물관, 2001, 『晉州 大坪里 玉房3地區 先史遺蹟』.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달성 평촌리·예현리유적』.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김재현, 2002, 「인골로 본 남강 대평사람들」,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 김병섭, 2007, 「南江流域 下村里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南研究』4,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_____, 2007, 「無文土器時代 嶺南地域의 區劃溝에 대한 檢討」, 『東西文物』創刊號, 동서문물연구원.
- 동서문물연구원, 2011, 『晉州 加虎洞遺蹟(上)』.
- _____, 2017, 『晉州 草長洞遺蹟Ⅲ』.
- 동아대학교박물관, 2001, 『晉州上村里先史遺蹟』.
- _____, 2002, 『晉州玉房遺蹟』.
- 동의대학교박물관, 2008, 『晉州 大坪里 玉房4地區 先史遺蹟Ⅰ』.
- _____, 2015, 『晉州 大坪里 玉房4地區 先史遺蹟Ⅱ』.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晉州 耳谷里 先史遺蹟Ⅱ』.

- 배덕환, 2000,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環濠聚落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第14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5, 「先史·古代의 地上式建物」, 『東亞文化』創刊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_____, 2012, 「청동기시대 후기 樓子式倉庫의 등장과 파급효과」, 『동아시아의 문물』, 중헌 심봉근선생 고희기념논선집, 중헌 심봉근선생 고희기념논선집 간행위원회.
- _____, 2019, 「방어취락으로 본 수장층의 출현」,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2, 「대평리 방어취락의 성립과 해체」, 『한국고고학보』2022권 2호,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2, 「변진한 환호의 방어적 성격」, 『환호의 성격과 의미』, 2022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 송영진, 2012, 「南江流域 磨研土器의 變化와 時期區分」, 『嶺南考古學』60, 嶺南考古學會.
- _____, 201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慶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영남고고학회, 1998,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第7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 유병록, 2019, 『嶺南地域 松菊里文化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윤호필·고민정, 2006, 「발유구 조사법 및 분석방법」, 『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이경아·Gary W. Crawford, 2002, 「옥방 1, 9지구 출토 식물유체 분석 보고」,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時代 集落』, 慶南考古學研究所.
- 이경아·윤호필·고민정·김춘영, 2011, 「신석기시대 남강유역 식물자원 이용에 대한 고찰」, 『嶺南考古學』56, 嶺南考古學會.
- 이재언, 2016, 「한반도 남부지역 청동기시대 부장풍습 연구」, 『韓國青銅器學報』第19號, 韓國青銅器學會.
- 이주헌, 2000, 「大坪里型 石棺墓考」,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20周年 紀念論叢』, 慶北大學校 人文大學 考古人類學科.
- 안재호, 2019, 「松菊里文化의 起源 再考」, 『영남고고학』83,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0, 「青銅器時代 智佐里聚落의 形成過程과 社會相」, 『韓國青銅器學報』第26號, 韓國青銅器學會.
- 朝鮮總督府, 1925, 『大正十四年 朝鮮ノ洪水』.

- 조진선, 2020,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무기조합과 전쟁유형·사회유형」, 『한국고고학보』제115집, 한국고고학회.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2021,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삶의 공간』, 2021년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학술회의.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2022,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와 의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2회 전문가학술회의.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2022,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남강유역 청동기시대 기술』,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공동주관 제3회 전문가학술회의.
- 최종규, 2002, 「옥방환호」,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 한강문화재연구원·한백문화재연구원·예맥문화재연구원·고려문화재연구원·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내 문화재 발굴조사」.
- 한국청동기학회, 2007,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황상일, 2002, 「남강 중류 대평 층적평야의 지형발달」, 『청동기시대의 大坪·大坪人』, 국립진주박물관.
- 황재훈·이정은, 2022,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고학보』2022권 2호, 한국고고학회.
- 大庭重信, 2005, 「無文土器時代の畠作農耕」, 『待兼山考古學論集-都出比呂志先生 退任記念-』, 大阪大學考古學研究室.
- Martin. T. Bale, 2014, 「경제만이 아니다-무문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이행에 대한 실험적·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의 신지평』, 제38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 발굴조사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용 외에는 지면관계상 제외하였다.

발표 2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과 특징

윤 호 필

상주박물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과 특징

윤호필 | 상주박물관

I. 머리말

인류가 처음 무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정착생활이 시작되는 신석기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는 아직 수렵·채집의 비중이 높아 이동 생활이 주가 되었으며, 정착생활은 일부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무덤의 축조도 정착생활이 이루어진 일부 취락공간에서 확인된다. 무덤에 대한 인식은 정착생활과 농경이 본격화되는 청동기시대로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어 무덤을 죽은 자(死者)의 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생활 속 공간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무덤의 외형적인 형태와 구조가 다양화되고 대규모 무덤군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의 무덤은 이전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청동도구가 일반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석재가공기술은 더욱 발달하여 대형 석재의 채석, 운반, 가공, 축조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덤 재료로 석재가 채택되고 무덤축조가 일반화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동묘지의 등장, 대규모 무덤조성 등이 활발해지면서 무덤은 단순한 피장자를 안치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까지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덤연구는 당시의 기술력과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주지역은 청동기시대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사례가 풍부하여 관련 고고자료가 많으며, 남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문화권설정이 가능하여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상과 사회상의 일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다. 이에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무덤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여, 시기별로 무덤들의 성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무덤의 종류

청동기시대 무덤의 종류는 지석묘(支石墓), 석관묘(石棺墓), 목관묘(木棺墓), 토광묘(土壙墓), 석개토광묘(石蓋土壙墓), 옹관묘(甕棺墓), 주구묘(周溝墓) 등이 있으며, 이중 지석묘와 석관묘가 주를 이룬다. 또한, 이들 무덤은 외형적인 형태와 구조, 매장주체부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1. 지석묘(支石墓)

‘지석묘(支石墓)’는 큰 돌을 괴고 있다는 뜻의 궤돌(고임돌)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인돌로 불린다. 지석묘의 가장 큰 특징은 큰 돌을 무덤의 표시적 구조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거석문화(巨石文化)¹⁾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석묘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동해안지역과 동북지방, 일본 구주지방 등 세계적인 거석문화 분포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탁자식 지석묘, 위석식 지석묘, 분구식 지석묘, 기반식 지석묘, 개석식 지석묘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앞의 3가지 지석묘는 지상에 시신이 안치되는 지상식 지석묘이며, 뒤의 2가지 지석묘는 지하에 시신이 안치되는 지하식 지석묘이다. 각 지석묘의 외형적 특징을 보면, 탁자식 지석묘는 지상에 판석 3~4매를 세워 석관을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올린 후,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판석으로 막는 구조이다. 위석식 지석묘는 지상에 여러 매의 할석이나 판석을 이용하여 시신이 안치될 공간을 남겨두고 장방향으로 돌린 후 그 위에 상석을 올리고 내부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 입구를 막는 구조이다. 분구식 지석묘는 지상에 원형 또는 장방향으로 깎돌이나 흙을 쌓아 분구형태로 만들고 그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고 상부에 상석을 올린 구조이다. 기반식 지석묘는 땅에 묘광을 파서 매장주체부를 설치하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 개석을 덮고 상부를 흙이나 돌로 충전하여 묘광내부를 채운다. 그리고 그 위에 지석을 설치하고 상석을 올리는 구조이다. 개석식 지석묘는 기반식 지석묘

1) 거석문화(巨石文化)는 인간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연석 또는 가공한 돌로 구조물을 축조하여 송배의 대상물이나 무덤으로 이용한 문화를 말한다. 거석(Megalith)이란 하나의 구조물이나 기념물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된 돌을 말하며, 거석물(Megalithic)은 인간 행위에 의해 직접적인 대상물 즉, 돌로 만든 구조물을 뜻한다.

와 하부구조는 비슷하지만, 상석이 매장주체부의 개석 역할을 하거나 개석이 있을 경우 그 위를 지석 없이 상석만 올려놓은 구조이다. 즉, 지석 없이 상석이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판석을 조립한 석관형(石棺型), 할석이나 강돌(川石)로 쌓은 석곽형(石槨型), 구덩이만 있는 토광형(土坑型), 나무로 만든 목관형(木棺型), 상석 아래에 돌이 둘러진 위석형(圍石型) 등이 있다. 이러한 매장주체부는 상석이 없다면 독립적인 묘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묘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고 하겠다.



탁자식지석묘(평양 문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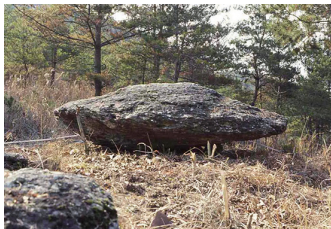
위석식지석묘(제주도 용담동)



분구식지석묘(창원 진동)



기반식지석묘(전북 고창)



개석식지석묘(전남 함평)



제단시설(경남 밀양)

그림 1. 지석묘의 종류

지석묘 구조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상석-지석-묘역-묘광(충전토, 충전석)-개석-매장주체부'로 구분되며, 각각의 속성에 따라 특징과 의미가 있다. 상석은 지석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전체적인 변화의 경향성은 거대화화 소형화이다. 이는 서로 상반되는 경향성으로 묘역의 적극적인 채용과 관련성이 깊다. 즉, 청동기시대 중기로 갈수록 묘역의 설치가 증가하고 묘표적 기능과 제단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일부는 상대적으로 상석의 규모가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상석과 묘역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지석묘도 확인된다. 지석은 상석을 받치는 돌로서 묘역시설과 같이 상석과 매장주체부를 분리하는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분묘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역할도 한다. **묘역**은 상석 아래의 일정 범위에 할석, 천석, 판석 등을 쌓거나 깔은 시설물로, 상석의 무게를 분산시켜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과 분묘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분묘를 알리는 묘표적 기능인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평면형태는 크게 장방형계와 타원형계로 구분되며, 이중 장방형계의 묘역이 더 많이 확인된다. 묘역은 기본적으로 군집을 이루면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타원형계보다는 장방형계의 연결경향이 두드러진다. 묘역시설은 무덤의 종류나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없이 설치된다. 묘역의 평면적은 일반적인 규모와 극대화된 규모가 뚜렷이 구분된다. 묘역의 연결형태도 주로 일반적인 규모의 묘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극대화된 묘역은 독립적인 위치에 배치된다. 묘역의 구획석은 할석이나 소형판석을 쌓아서 구획한 것과 판석을 세워 구획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중 극대화된 묘역에는 쌓아서 구획한 것이 주로 확인된다. 특히, 창원 덕천리유적 1호, 마산 진동유적 E-1호, 진주 가호동유적 1호에서 확인된 구획석처럼 ‘들여쌓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많아 축조방법에서도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묘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주구가 설치된 것도 연관성을 가진다. **묘광**은 매장주체부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형태는 1단묘광과 다단묘광으로 구분된다. 다단묘광은 주로 2단과 3단이 대부분으로 매장주체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설치되며,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이다. 다단묘광의 기능은 첫째, 묘광벽 보호 및 시신을 더 깊은 곳에 안치하기 위해 사용되며, 둘째, 묘광을 넓게 축조하여 묘역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고, 셋째, 묘광 내에서 매장주체부 재료 및 충전석, 시신 등의 운반편리를 위한 계단 역할로 사용된다. **충전토와 충전석**은 묘광에 설치된 매장주체부의 외곽을 채우거나 묘광의 빈 공간을 채울 때 사용하는 흙과 돌을 말한다. 충전토와 충전석은 기본적으로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묘광을 채워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묘광을 채움으로써 매장주체부를 고정시키고 내부를 밀폐시키는 역할이다. **개석**은 기본적으로는 매장주체부의 상부를 덮어 외부로부터 피장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다중개석일 경우는 개석이 상하로 붙어있는 경우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붙어있을 경우는 2차 개석이 1차 개석의 사이에 위치하여 최대한 밀폐시키며, 떨어진 경우에는 개석과 개석사이를 충전토나 충전석으로 채운다. **매장주체부**는 시신 및 부장유물의 보호가 가장 큰 목적으로 석관형, 석곽형, 목관, 토광, 목석관(木石棺) 등 다양한 형태가 사용된다. 바닥도 생토면, 판석, 할석, 자갈 등 다양하게 설치된다.

2. 석관묘(石棺墓)

석관묘는 지석묘와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에 가장 많이 확인되는 묘제로서 시베리아, 중국 동북지방, 한반도,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전역에서 확인된다. 석관묘는 지하에 묘광을 파고 깎돌이나 판돌, 강돌 등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공간인 장방형의 매장주체부를 만들고 그 위에 1매 이상의 뚜껑돌(蓋石)을 덮은 무덤양식으로 돌상자무덤(石箱墓)이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석관묘는 대부분 돌을 주재료로 하여 무덤을 축조한다. 하지만 일부 무덤에서는 돌과 판재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석관묘는 돌널의 형태와 축조 방법에 따라 상자형 석관묘와 석축형 석관묘로 구분된다. 전자는 판돌이나 판돌형의 깎돌을 세워 장방형으로 조립한 형태로 벽석을 이루는 석재의 수에 따라 단판석식(單板石式)과 여러 매로 이루어진 복판석식(複板石式)으로 분류한다. 후자는 깎돌이나



그림 2. 마산 진동유적(좌: 상형석관묘, 우: 석축석관묘)

강돌을 이용하여 무덤벽을 쌓아서 축조하였다. 무덤 상부는 모두 판돌이나 판돌형의 깎돌을 이용하여 덮었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닥을 돌로 깎 경우가 많다. 일부는 송국리식토기를 바닥 전면에 까는 경우와 요갱시설(凹坑施設)을 설치한 것도 있다. 이중 요갱시설은 대부분 금강유역권에서 발견된다. 묘광은 축조방식과 깊이에 따라 일단 석관묘와 이단 석관묘로 구분한다. 이중 이단 석관묘는 묘광이 상대적으로 깊어서 매장주체부의 뚜껑돌을 덮은 후에 상부에 남은 빈공간을 흙이나 깎돌, 판돌 등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다. 석관묘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며, 펴묻기(伸展葬)와 굽혀묻기(屈葬)의 형태가 모두 확인된다.

석관묘의 분포와 배치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며, 배치는 1기 또는 소군집의 형태와 수십기가 군집한 경우가 확인된다. 무덤배치의 특징은 무덤 간에 중복이 거의 없고, 열상 배치 및 군집배치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주요 분포지역인 금강중·하류에서 석관묘,

석개토광묘, 독목관묘가 함께 확인되어 세 묘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송국리형집자리도 함께 공반되고 있어 송국리형 묘제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석관묘는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지식묘와 혼재하여 확인된다. 껌문거리(副葬品)는 다양하게 확인되며, 주로 돌검, 돌화살촉, 붉은간토기, 옥, 비파형동검 등이 출토된다. 외부구조로는 석관묘 주위에 강돌이나 깎돌을 이용하여 장방형이나 원형의 묘역시설을 만들거나, 세장방형의 도랑을 파서 묘역의 범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3. 토광묘(土壙墓)과 석개토광묘(石蓋土壙墓)

토광묘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는 무덤양식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매장방식이다. 따라서 묘광 내부에 인골이나 유물이 없으면 무덤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토광묘는 청동기시대에도 사용되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석개토광묘도 별도의 관을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지만 묘광 상부에 납작한 깎돌이나 판돌을 덮은 무덤형식이다. 따라서 토광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형태와 구조는 대부분이 움의 형태이지만 일부는 벽에 판돌형의 벽석을 조성하기도 한다. (논산 마전리 1·17·39호, 서천 오석리 9호, 진안 여의곡 56호, 전주 여의동 1호 등)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깎돌이나 강돌, 토기를 까는 경우도 있다. 구조는 토광묘와 같이 대부분 일단묘광이지만 이단으로 축조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단묘광의 구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국리형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목관묘(木棺墓)

시신을 안치할 관을 나무로 따로 만들고 그 관을 땅속에 매장하는 무덤양식이다. 목관묘의 형태와 구조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것과 판재를 조립한 것으로 구분된다. 목관묘는 재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나무의 흔적은 묘광 바닥에 남아 있는 흔적(목질흔, 기초흙)이나 묘광 매몰토의 양상('U'자형태의 토층)을 통해 파악된다. 청동기시대는 매장주체부를 대부분 돌을 사용하기 때

문에 나무는 일부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묘는 청동기시대에는 일부만 사용되었으며, 초기철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5. 옹관묘(甕棺墓)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옹(甕)을 이용하여 시신이나 뼈를 묻는 무덤양식이다. 옹의 크기나 형태로 볼 때 유아 전용의 무덤이거나 성인의 시체를 썩혀 육탈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무덤(洗骨葬)으로 생각된다.

옹관묘의 형태와 구조는 옹을 매장주체부로 이용하며, 개석은 일반적으로 소형의 납작한 할석이나 판석을 이용한다. 일부 유적에서는 토기편이나 소형의 발형토기(鉢形土器)를 두껍으로 사용한 것도 확인되었다. (논산 마전리 6호와 22호, 익산 화산리 B1호와 B2호 등) 바닥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수나 방습 혹은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매장방법은 수직으로 세우는 직치(直置)와 비스듬히 눕혀서 안치하는 사치(斜置)로 구분된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 보면, 납작한 할석으로 막는 옹관묘는 직치와 사치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며, 토기로 막는 옹관묘는 모두 사치만 확인되었다.

6. 주구묘(周溝墓)

매장주체부 주위에 장방형이나 원형으로 좁은 도랑을 파서 묘역의 범위를 만든 무덤양식이다. 매장주체부는 석관, 석곽형, 목관, 토광 등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묘역내에 기본적으로 1기만 설치되지만 2기가 설치되는 경우(옥방8지구유적 3호묘, 5호묘, 철정리 II유적 2호묘)도 있다. 매장주체부는 대부분 깊이가 얇은 지하식(반지하식)이 많다. 분포는 강원 영서지역, 호서지역, 경상 남서부지역, 경상 남동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충적대지와 구릉사면에 입지한다. 배치는 단독배치가 많으나 군집을 이룬 경우도 있다.

Ⅲ. 청동기시대 전기

1. 분포와 입지

진주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 무덤은 진주 대평리 옥방8지구 유적, 진주 신당리유적, 진주 소문리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4곳에서 확인되며, 무덤 종류는 지석묘, 석관묘, 주구묘, 토광묘 등이다. 유적별 무덤현황 및 입지양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주지역 전기무덤 유적 및 입지 현황

유적명	입지	유구번호	묘제
진주 이곡리유적	총적지	16호	개석식 묘역지석묘
		27호	분구식 지석묘
		29호	토광묘
		30호	개석식 묘역지석묘
		33호	개석식 묘역지석묘
		41호	상형석관묘
진주 대평리 옥방 8지구유적	총적지	3호	주구묘
		5호	주구묘
		7호	주구묘
		9호	주구묘
		15호	상형석관묘
		16호	상형석관묘
20호	상형석관묘		
진주 소문리유적 (10공구)	총적지	B-1호	석개토광묘
진주 신당리유적	구릉	1기	상형석관묘

지석묘는 진주 이곡리유적에서 4기가 확인되며, 석관묘는 진주 대평리 옥방 8지구유적에서 3기, 진주 이곡리유적에서 1기, 진주 신당리 죽산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주구묘는 진주 옥방8지구에서 4기가 확인되며, 토광묘는 진주 소문리유적(10공구)에서 1기, 진주 이곡리유적에서 1기 확인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진주지역 전기무덤은 총 15기 정도로 후기무덤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는 한반도 전체에서 확인된 전기무덤의 수가 약 69기 정도임을 볼 때 비슷한 양상으로 생각된다.²⁾

무덤 종류별 출토 비중은 한반도 전체로 보면, 석관묘의 비중이 40% 전후로 가장 높고 토광묘의 비중이 가장 낮는데, 진주지역은 토광묘의 비중이 가장 낮은 건 비슷하지만, 나머지 묘제들은 비슷한 비중으로 출토된다. 전체적인 수량이 적어 일반적인 양상으로 보긴 어렵지만, 진주지역의 전기무덤 조성은 다양한 묘제가 고루 축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청동기시대 전기무덤은 수량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영문(2011)은 지석묘 21기, 석곽묘 26기, 주구묘 13기, 토광묘 9기 등으로 총 69기로 파악하였으며, 배진성(2011)은 토광묘 11기, 석개토광묘 1기, 석관묘 21기, 지석묘 2기, 주구묘 10기 등으로 총 45기로 파악하였고, 平郡達哉(2012)은 토광묘 4기, 석개토광묘 1기, 석관묘 25기, 주구묘 16기, 지석묘 14기, 기타 2기 등으로 총 62기를 파악하였다. 이렇듯 각 연구자마다 무덤의 수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유구를 정리하는 시점과 유물에 대한 편년판의 차이로 발생한다. 아무튼 전기무덤의 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진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조사사례가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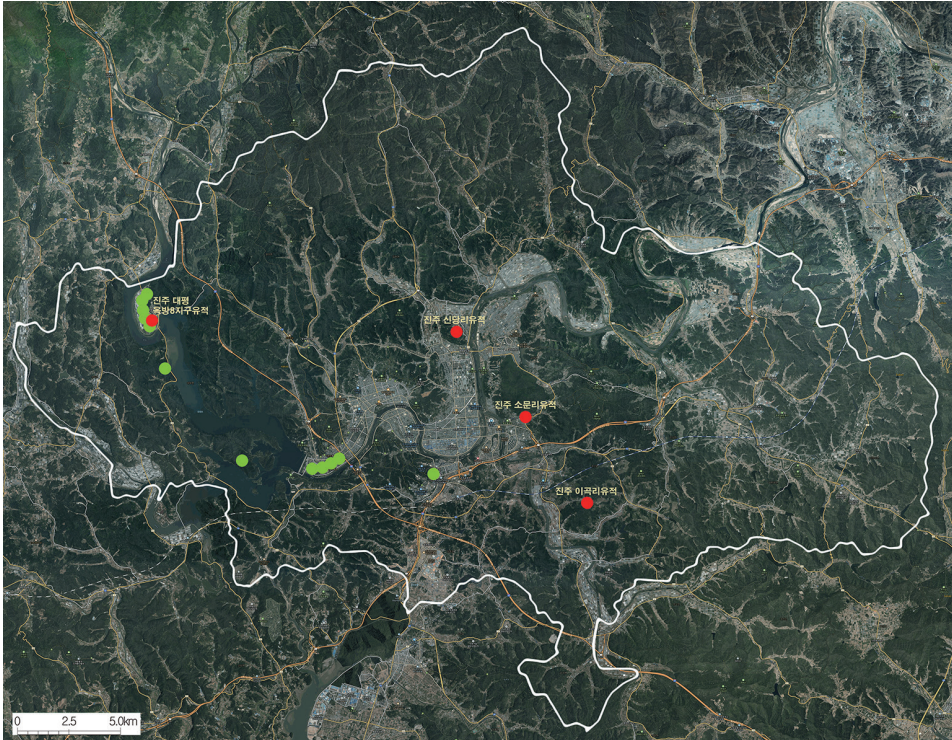


그림 3.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무덤 및 취락 분포도(●무덤, ●취락)

전기무덤의 분포는 확인된 유적이 4곳 뿐이라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한곳에 집중되기보다는 분산되어 분포하며, 남강과 영천강 등의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세부적인 입지양상은 충적지와 구릉 모두에서 확인된다. 이는 일반적인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같은 것으로, 취락 주변에 무덤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덤 조성은 특정 위치나 입지보다는 취락 주변에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무덤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배치형태는 열상으로 배치되거나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배치를 보인다.

2. 무덤의 구조와 출토유물

지석묘는 크게 두 형식이 확인된다. 개석식 지석묘와 분구식 지석묘이다. 전자는 이곡리유적 16호, 30호, 33호이며, 후자는 이곡리유적 27호이다. 세부 속성별 양상을 살펴 보면, 상석은 개석식 묘역지석묘인 이곡리유적 16호와 이곡리유적 30호에서 확인된다. 모두 두께가 20cm 내외의 판석형으로 크기는 소형이다. 상석의 위치는 매장주체부가 위치한 묘역의 중앙부가 아니라 묘역의 서쪽 구획석 가까이에 치우쳐있다. 후대에 옮겨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례에서도 중앙부에 위치하지 않은 상석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묘역시설을 갖춘 개석식 지석묘에 채용되는 상석의 형태는 판석형이 많다. 특히, 남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개석식 묘역지석묘의 상석은 대부분이 판석형이다. 또한 묘역의 규모에 비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이 많이 채용된다. 묘역은 모든 지석묘에서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 방형, 원형이다. 묘역조성은 할석을 이용하여 묘역을 구획하고 내부를 채운 형태이며, 규모는 대부분 길이 4m, 너비 2~3.5m 정도이나 이곡리 30호 지석묘는 장방형으로 길이 895cm, 너비170cm 정도로 다른 묘역에 비해 규모가 2배 정도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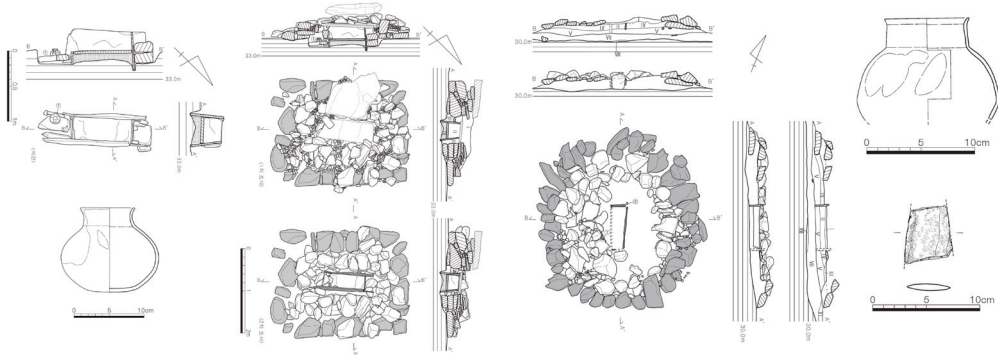


그림 4. 진주 이곡리유적 16호 지석묘 및 출토유물 그림 5. 진주 이곡리유적 27호 지석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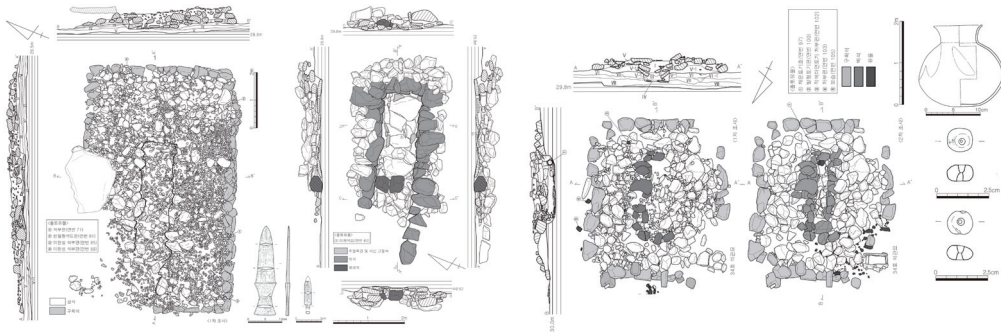


그림 6. 진주 이곡리유적 30호 지석묘 및 출토유물 그림 7. 진주 이곡리유적 33호 지석묘 및 출토유물

매장주체부는 상형석관과 석축석관이 확인된다. 상형석관은 판석을 이용하여 ‘묘’ 형태로 조립한 것으로 전형적인 상형석관묘의 구조이다. 석축석관도 할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이곡리 27호 지석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길이 160cm 이상으로 신전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이곡리 27호 지석묘 매장주체부는 소형의 상형석관으로 길이 90cm, 너비 27cm 정도로 굴장을 하기에 작은 편이다. 따라서 유아용 석관이나 세골장의 형태로 생각된다. 이곡리 30호 지석묘는 매장주체부가 석축석관의 형태로 추가장이 가능한 횡구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단벽 부분이 입구부로 생각된다. 횡구식 구조의 지석묘는 평안북도의 묵방리유적³⁾, 합천 저포리 E지 구유적, 대구 상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횡구식 구조의 무덤은 추가장을 전제로 축조되는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기본적인 매장방식이 1회성임을 볼 때 특이한 구조이다. 또한, 추가장은 단순히 1개의 무덤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관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조사사례의 증가와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이곡리 27호 지석묘는 묘역을 저분구형태로 성토하고 그 위에 할석을 층석한 형태로 분구식 지석묘이다. 창원 진동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등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

석관묘는 기본적으로 매장주체부가 상형석관으로 벽석을 1매로 사용한 것과 여러 매로 사용한 것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기본적으로 ‘ㄱ’형태이며, 지석묘의 매장주체부와 같이 부장공간을 만든 구조이다. 개석은 소형의 경우는 판석 1매가 주로 사용되고 중대형의 경우는 여러 매의 판석을 사용한다. 또한, 개석을 덮는 방식은 1단 이외에 다중개석도 사용한다.

주구묘는 매장주체부 둘레에 구를 파서 묘역을 만든 형태로 묘역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방형이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는 할석이나 판석으로 만든 묘역의 평면형태와 유사하다. 규모는 대평리 옥방8지구 3호와 5호는 한 개의 묘역 안에 매장주체부가 2개 조성된 것으로 장방형의 묘역은 길이 2,320cm, 너비 740cm 정도로 큰 편이다. 원형 묘역은 대평리 옥방8지구 7호와 9호에서 확인되며 규모는 직경이 6~7m 정도로 장방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 매장주체부는 주로 상형석관이 채용되며, 일부 목관이 사용되기도 한다.

토광묘는 묘광내에 별다른 구조물 없이 묘광을 매장주체부로 이용하였다. 토광묘 모두 바닥에서 유물 부장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시신이 안치되는 공간과 유물부장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토광묘의 공간구분은 특이한 사례이다. 이중 소문리 b-1호는 토광묘

3) 리정남, 1985, 「묵방리 고인돌에 관한 몇가지 고찰」 『역사과학』1.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에 개석이 설치된 석개토광묘이다. 토광의 규모는 길이가 175cm 이상으로 모두 신전장이 가능한 크기이다.

출토유물은 부장유물과 의례유물로 구분되는데, 부장유물은 매장주체부에서 채문토기,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유경식석촉, 옥 등이 확인되며, 의례유물은 주로 묘역에서 토기편이나 석기편 등으로 출토된다. 부장유물의 구성은 토기(채문토기)+석기(석검, 석촉) 구성으로 일정한 부장 양상을 보인다. 부장유물의 부장방식은 단벽의 바깥 부분에 부장공간을 만들어 토기를 부장하고 석기와 옥은 관내에 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무덤 상석, 묘역, 묘광 현황

묘제	유적명	호수	상석			묘역			묘광				
			길이	너비	두께	형태	주구	길이	너비	높이	장축	단축	깊이
지석묘	진주 이곡리유적	16호 (개석식)	120	102	18	장방형		330	260				
		27호 (분구식)				원형		380		40			
		30호 (개석식)	225	170	23	장방형		895	170	23			
		33호 (개석식)				방형		390	350	40			
석관묘	진주 대평 옥방8지구 (창문연)	15호								210	90	40	
		16호								220	95	35	
		20호								160	90	30	
	진주 이곡리유적	41호								95	54	35	
진주 신당리 죽산유적	20호								142.5	62.5			
주구묘	진주 대평 옥방8지구 (창문연)	3호				방형	○	2320	740		290	160	60
		5호				방형	○	2320	740		220	95	40
		7호				원형	○	600	600		103	32	25
		9호				원형	○	730	670		240	85	50
토광묘	진주 이곡리유적	29호											
	진주 소문리유적 (10지구)	b-1호 (석개토광묘)									246	93	55

표 3.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무덤 매장주체부 및 출토유물 현황

묘제	유적명	호수	매장주체부					출토유물	
		형태	장축 방향	길이	너비	깊이	비고		
지석묘	진주 이곡리유적	16호 (개석식)	상형 석관		184	37	30	관외부장	채문토기1(남단벽 관외부장), 옥(관내)
		27호 (분구식)	상형 석관		90	27	20	관외부장	채문토기편1(서장벽 적석하부), 석검편1(북단벽 외부)
		30호 (개석식)	석축 석관 (횡구)		230	100	58		이단병식 석검1(서단벽), 유경식석촉1
		33호 (개석식)	석축 석관		159	60	36		채문토기1(남단벽), 옥2(남단벽, 중앙)
석관묘	진주 대평 옥방8지구 (창문연)	15호	상형 석관	동-서	155	35	35	관외부장 (부장칸)	채문토기2(동단벽 관외부장), 삼각만입촉1, 이단병식석촉1(남장벽 모서리)
		16호	상형 석관	동-서	130	30	42	관외부장 (부장칸) 2중개석	채문토기1, 무문토기호1(동단벽 관외부장)
		20호	상형 석관	동-서	110	50	25	관외부장 (부장칸) 2중개석	채문토기1(동단벽 모서리), 환옥2(바닥석위)
	진주 이곡리유적	41호	상형 석관	동-서	65	25	14	관외부장 (부장칸) 2중개석	채문토기1(북단벽 관외부장)
	진주 신당리 죽산유적	20호	상형 석관	남-북	135	43	27		채문토기1, 삼각만입촉2
주구묘	진주 대평 옥방8지구 (창문연)	3호	상형 석관	동-서	175	45	50	관외부장	채문토기2(관외부장), 이단병식석검1, 삼각만입촉2, 이단병식석촉1
		5호	상형 석관	동-서	165	40	60	관외부장	채문토기2(목관과 석관사이), 석검편1, 삼각만입촉4, 이단병식석촉1, 일단병식석촉1(목관내)
		7호	상형 석관	동-서	102	30	23	관외부장 (부장칸)	채문토기1(관외부장)
		9호	목관 추정	동-서	185	40	70	관외부장 (부장칸) 2중개석	채문토기1(목관 충전토내)
토광묘	진주 이곡리유적	29호	토광	동-서	227	75	23	관외부장 (부장대) 2중개석	채문토기2(동단벽), 이단병식석촉1, 삼각만입촉2(남단벽)
	진주 소문리유적 (10지구)	b-1호 (석개토 광묘)	토광		175	70			채문토기2(부장대위), 이단병식석검1, 삼각만입촉5, 이단병식석촉3

IV. 청동기시대 후기

청동기시대 후기로 들어서면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농경을 중심으로 한 생계경제시스템의 발달은 취락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이와 함께 무덤조성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취락의 발전으로 나타난 계층화의 진전은 무덤에도 적용되어 개인 무덤 또는 무덤군 간의 계층화도 진전시켰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무덤조성은 취락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대규모 취락의 등장은 대규모 무덤군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주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후기 무덤은 25개 유적에 382기 정도이다. 여기서는 발표 지면 관계상 세부적인 속성표는 생략하고 전체적인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⁴⁾

표 4. 진주지역 주요 취락 및 무덤 현황

유적명	입지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			
		주거지	야외노지	구	대상유구	주혈	함정	수혈	집석	적석	폐기장	토기군	환호	굴립주			저장혈	논(㎡)	밭(㎡)	
																				有
진주 안간리	구름사면	9						20												
진주대평리	어은1 총적지	120	38					27	25							有	23		13,200	
	어은2 총적지	50	33					32	42								11		밭	
	옥방1 총적지	74	35	112		3개소		361	3		4		4	5		有	37		150	
	옥방23 총적지	30		12				80	7									31		13,300 (1+2차)
	옥방4 총적지	66	22	7				76						5			5		1,100	
	옥방5 총적지	64	13					9		1						有	9		500	
	옥방6 총적지																			3,700
	옥방7 총적지	21		10				90					3열					5		
	옥방8 총적지	13	16					125	10							有	21		5,000	
	옥방9 총적지	13		1				33												400
진주상촌리	A 총적지	1																		
	B 총적지	2																		
	C 총적지	3						3		1										
	D 총적지	1																		
	E 총적지	48		1				20								有	57			
진주귀곡동대촌	A 총적지																	2		
	대촌 총적지	12						1								有	12			

4) 관련 자료는 향후 단행본 발행시 보완하여 제시함.

유적명	입지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			
		주거지	야외노지	구	대상유구	주혈	함정	수혈	집석	적석	폐기장	토기군	환호	굴립주			저장혈	논(㎡)	밭(㎡)	
																				논(㎡)
내촌리 B	총적지	1																		
진주평거동	3-1	총적지	35		15		군	59	91					2		3개소	7		1층-가 2,177	28,140
																		1층-나 2,025		
																		2층 1,210		
	3-2-1	총적지	15			23	6군	16	281					7		有	30			2,900
	3-2-2	총적지																		4,300
	4-1	총적지	5		2				25	3								3	1층 3,217.8	24,222
																		2층 483.7		
4-2	총적지	19		22				24	101											16,713.4
4-3	총적지																			6,498.1
진주 가호동	단구면(평지)	26	9					19	26					1	4		有	39		800
진주 호탄동	구릉사면	1		12			2		10	3										
진주 초전동(한국문물)	총적지	57			78			12	155					1	12		有	10		
진주 초장동(동서문물)	총적지	52		39					132	1					25		有	21	논	
진주 이곡리	총적지	8							32					2			有	40	논	

1. 분포와 입지

무덤공간의 입지는 주거공간과 많이 떨어진 독립적인 공간에 배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거공간이나 생산공간 가까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 지리적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주지역의 기본적인 지리환경은 남강을 중심으로 한 하천환경과 주변일 때에 분포하는 구릉지역이다. 하천주변은 주로 강변총적지나 하안단구면에 입지하며, 구릉입지는 대부분 완사면에 입지하지만, 일부 구릉정상부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생활에 유리한 지형에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취락의 입지양상과도 같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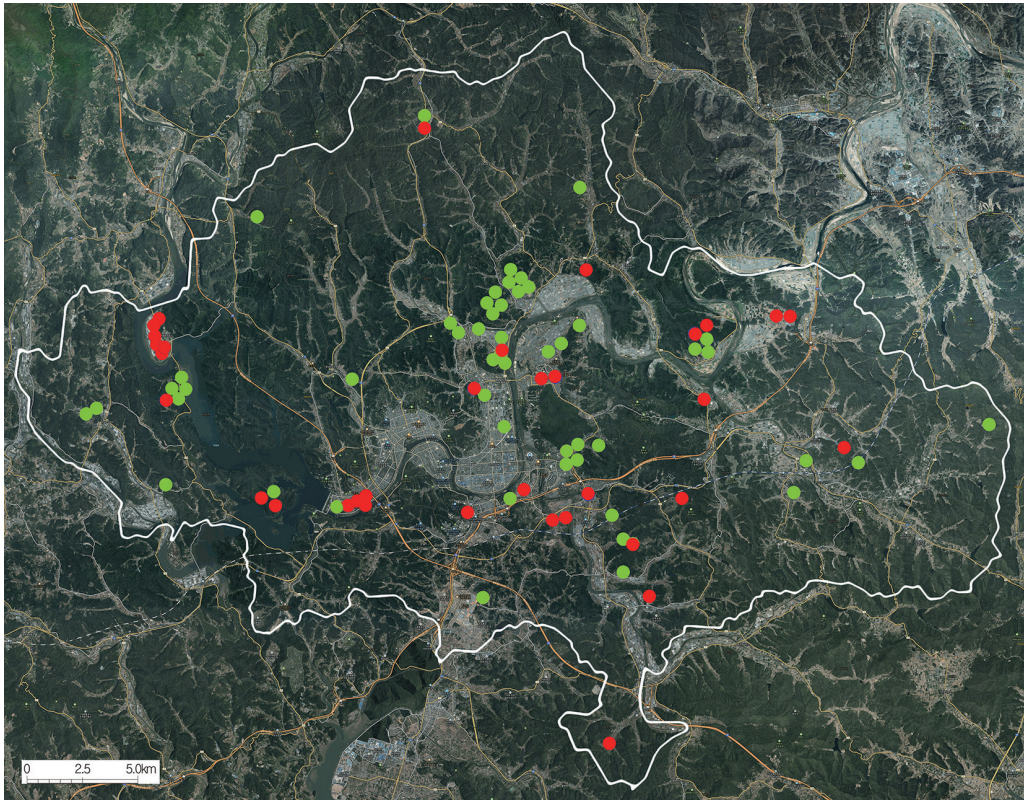


그림 8.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무덤 및 취락분포도(●무덤, ●취락)

무덤은 대부분 단독으로 조성되기 보다는 일정 공간에 여러 기가 모여 군집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지석묘 중 일부는 단독으로 조성되거나 일정 간격으로 1기씩 열을 지어 분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덤배치는 일정한 무덤공간 내에서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경우와 무덤공간의 틀이 없이 1기 또는 여러 기가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으로 배치되거나 혹은 그 주위에 소형묘 배치, 묘역시설이나 묘광의 크기가 유사한 무덤 여러 기가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 묘역의 규모가 다양한 무덤들이 부가연접되면서 여러 열로 배치, 여러 기의 무덤들이 환상 또는 부정형으로 배치 등으로 세분된다.⁵⁾

전자는 크게 열상배치(列狀配置)와 군상배치(群狀配置)로 나누어진다. 열상배치는 무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열을 지어 조성된 것으로 무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

5) 김현, 2006,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39, p23.

져 배치되거나 서로 연결해서 배치된다. 이러한 배치양상은 대체적으로 자연지세보다는 입지한 지형적 조건에 따라 주로 배치되는데, 이는 지석묘의 장축방향을 등고선과 관련시킨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⁶⁾ 열상배치의 특징은 무덤공간의 규모가 큰 경우에 유리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쉬운 곳에서 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공간 확보가 유리한 구릉의 완사면이나 충적지 등에서 많이 확인된다. 열상배치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무덤구성 계획을 가지고 축조한 것으로 집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철저한 무덤구성 계획 하에서 무덤을 축조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무덤배치나 규모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열상배치된 무덤공간에서는 무덤간의 우열을 구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된 무덤축조의 틀을 가진 무덤들에서는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의 질이나 수량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즉, 유물은 무덤 간에 상대적 수량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위계화를 가시적으로 표출할 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유구의 위계화를 검토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⁷⁾

진주지역에서 열상배치가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은 진주 대평리유적, 상촌리유적, 귀곡동 대촌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진주 평거3-2지구유적이 있다. 이중 진주 대평리 어은취락에서 확인된 석관묘는 생산공간인 밭의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특징적인 배치형태라 볼 수 있다. 진주 이곡리유적의 무덤공간은 주거공간과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배치되며, 특히 주거지 수에 비해 무덤 수가 더 많이 확인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다. 이는 주거지와 무덤의 공반관계에서 후기전반에는 주거공간과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이거나 후기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주거공간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무덤공간이 조성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⁸⁾

군상배치는 일정공간에 무덤들이 일정한 방향성 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배치된 것으로 공간을 비교적 잘 활용하여 배치된다. 군상배치는 열상배치보다는 상대적으로 계획성이 많이 떨어지나, 세부적으로는 무덤간에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기도 한다. 즉, 몇 기의 무덤들이 소군집을 이루어 배치되거나 한 무덤을 중심으로 몇 기의 무덤들이 소군집

6) 조진선, 1997, 「지석묘의 입지와 장축방향 선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6, 호남고고학회.

7) 윤호필, 2000, 「銅劍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에 관한 研究」, 慶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8) 황재훈, 2018,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취락경관의 구축」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호 한국고고학전국대회, pp.69-78.

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치형태는 한정된 무덤공간에 무덤을 효율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무덤공간의 범위가 좁거나 한정되어 있을 경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무덤공간이 한정되어 있거나 집단에서 무덤의 공간을 한정할 경우에 이러한 배치형태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유적으로 진주 귀곡동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등이다.

무덤의 종류에 따른 배치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무덤 종류별로 배치되는 경우와 혼재되어 배치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열상배치와 군상배치가 모두 확인되며, 후자는 열상배치 보다는 군상배치가 주가된다. 군상배치의 경우 대부분 지석묘를 중심으로 다른 종류의 무덤이 소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덤의 배치형태는 지형적 여건 및 주변 자연경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열상배치와 군상배치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무덤조성의 계획성이나 무덤공간의 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열상배치가 보다 발전된 형태로 생각된다. 진주지역에서도 열상배치가 중심을 이룬다.

2. 무덤의 구조와 특징

무덤축조는 시신을 처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지만,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피장자 및 무덤 축조자를 대외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즉, 무덤이라는 특수한 구조물을 통해 피장자 및 무덤축조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무덤축조는 강한 전통성을 바탕으로 축조기술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다양한 문화양상도 포함되어 나타난다. 청동기시대 무덤은 지석묘(탁자식지석묘, 기반식지석묘, 개석식지석묘, 위석식지석묘, 분구식지석묘), 석관묘(석축석관묘, 상형석관묘), 목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다. 진주지역에서는 이들 무덤 중 개석식지석묘와 석관묘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여기에서는 지석묘를 중심으로 형식과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위석식지석묘는 탁자식지석묘와 같이 지상에 매장주체부가 설치되거나 상석이 개석 역할을 하는 것은 비슷하나 형태나 축조방식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상석 아래 할석을 돌려 매장주체부를 만드는데, 묘역과 함께 축조되는 것과 묘역 없이 축조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것 중 가장 발전적인 모습은 ‘제주도식지석

묘'이다. 주요 유적은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유적 등이 있다. 위석식지석묘 중에서 반지하식의 매장주체부도 확인되는데, 이는 매장주체부의 일부가 지상에 드러난 것으로 보아 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상에 있는 것으로 지상식지석묘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위석식지석묘는 진주지역에서도 많이 확인되지만 분포양상으로 서부경남 내륙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성이 강한 묘제로 생각된다.

분구식지석묘는 진주지역을 비롯한 남강유역과 동남해안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축조재료에 따라 다시 돌로 축조한 것, 돌과 흙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외형적인 모습은 묘역의 중심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저분구 형태와 묘역 전체를 같은 높이로 쌓고 상면을 기단처럼 평탄하게 축조한 것이 있다. 돌을 이용한 것은 구획석(축)의 내부에 할석이나 천석으로 모두 채워 넣은 것이며,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한 것은 구획석(축)의 내부에 흙을 채워 넣어 축조하거나 다시 돌로 증석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분구식의 경우 매장주체부가 지상과 지하 모두에서 확인되나 지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기반식지석묘는 상석, 지석, 매장주체부의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묘역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많다. 상석은 지석에 의해 매장주체부와 분리되어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개석과 적석 등에 의해 보호된다. 입지는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 등에 단독이나 몇 기씩 모여서 띄엄띄엄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개석식지석묘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입지선정이나 배치양상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단독이나 소규모의 군집을 통해 무덤의 존재를 드러내야하기 때문에 지석묘의 규모가 크고 입지도 주변 경관이 잘 보이는 곳에 주로 입지한다. 기반식지석묘의 매장주체부는 다양한 형식이 확인되나 대부분 석축석관의 형태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토광의 형태도 2~3단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고 깊이도 깊은 것이 확인된다.

개석식지석묘는 가장 많이 분포하는 묘제로 매장주체부의 형태도 가장 다양하게 확인된다. 묘역의 형태는 원형과 (장)방형이 있으며, 이 중 (장)방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원형의 묘역을 가진 것은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유적, 진주 평거3-1지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호탄동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등이 있다. 매장주체부는 석축석관, 상형석관, 목관, 토광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중 석축석관이 가장 많이 채용된다. 매장주체부의 종류에 따른 시간성은 아직 반영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토광 및 개석은 일부 다단토광

과 다중개석의 형태를 갖는 것이 많이 확인된다. 다중개석은 개석과 개석 사이 또는 개석 상부에 할석을 채워 넣은 것으로 매장주체부를 밀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남해안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 다단토광과 다중개석의 형태는 송국리형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확인된 무덤 모두가 2단 토광에 개석이 지하에 있는 형태로 개석 상부는 할석이나 흙으로 채워진 상태이다. 이는 송국리 문화가 남하하면서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일대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비파형동검의 분포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다단토광이나 다중개석이 나타나는 유적에서 송국리형 주거지나 송국리형 옹관, 석관 등 송국리형 문화 요소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무덤군이 조성된 것은 지식묘를 조성한 주민이 토착 세력화하여 어느 정도의 세력권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파형동검 같은 위세품으로 인정되는 유물이 출토되거나 거대 묘역 내지는 연접한 묘역들이 확인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3. 무덤 출토유물의 특징

진주지역 무덤 출토유물은 크게 매장주체부(부장간 포함) 내와 외부 무덤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부장용 유물이며, 후자는 주로 의례용 유물이다. 매장주체부 내 출토유물은 채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석검, 석촉, 석창, 반월형석도, 부리형석기, 지식, 석창, 어망추, 옥(곡옥, 환옥), 인골 등이다. 외부 무덤공간은 묘광내, 묘역, 주구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묘역과 주구에서 많이 확인된다. 이들 출토품은 대부분이 파손품으로 편으로 출토되며, 무문토기편이 가장 많다. 출토유물 종류는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채문토기, 석검, 석촉, 석부, 지식, 어망추, 방추차, 토제구, 부리형토제품, 부리형석기, 갈돌 등이다.

진주지역 무덤 출토품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묘역지석묘의 수가 많고 매장주체부가 다양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다. 묘역지석묘는 지석묘에 묘역시설을 갖춘 무덤으로 상석과 더불어 묘역도 중요한 속성을 가진다. 특히, 무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외부로 드러나 있으므로 무덤축조 후 행해지는 지속적인 의례행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묘역출토 유물은 축조과정에서 유입된 유물과 후대의 지속적인 의례과정에서 유입된 유물이 섞여 있으며, 일부 묘역에서는 대량의 유물이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묘역이외에 매장주체부를 덮고 있는 개석

상부에서도 의례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묘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진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의례유물의 출토사례가 많은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부장유물은 대부분이 시신이 안치되는 매장주체부 내에 시신과 함께 매납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진주지역에서는 시신이 안치되는 공간 외부에 유물을 부장하거나 따로 부장칸을 만들어 유물을 부장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된다. 부장공간을 사용하여 유물을 부장하는 행위는 특별한 매납방식으로 생각되며, 모두 토기만을 부장한다.

4.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특징

진주지역 무덤의 특징은 개석식지석묘의 분포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며, 하부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형식의 무덤들이 확인되고 있다. 묘역시설을 갖춘 묘역지석묘와 분구식지석묘의 증가는 경남지역 무덤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부구조에 있어서는 다양한 매장주체부의 등장과 다단토광, 다중개석(적석) 등의 방식이 채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송국리형 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단토광이나 다중개석(적석)의 형태는 지석묘 뿐만 아니라 석관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묘광과 개석의 변화는 매장주체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매장주체부에 대한 밀봉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신을 땅속 깊이 안치하고 그 위에 2중, 3중의 개석을 덮고 또 다시 적석하는 것은 진주지역의 특징이자 경남 남해안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매장양식이라 생각된다.

V. 맺음말

진주지역은 경남 서부의 중심지역으로 특히, 청동기시대는 남강이 위치한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진주지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청동기시대 유적이 조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을 뿐아니라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초장동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진주 호탄동유적 등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가히 진주지역은 청동기시대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이 중 청동기시대 무덤은 취락연구와 더불어 당시 문화상과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자료이며, 특히 사회발전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진주지역 무덤자료 검토에서 확인된 다양한 특징들은 진주지역만의 특징이 아니라 경남지역과 남해안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강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망이 청동기시대부터 잘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즉, 남강일대의 충적대지와 산림자원, 해안과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 등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무덤의 발달도 취락발달과 함께 이러한 기반하에서 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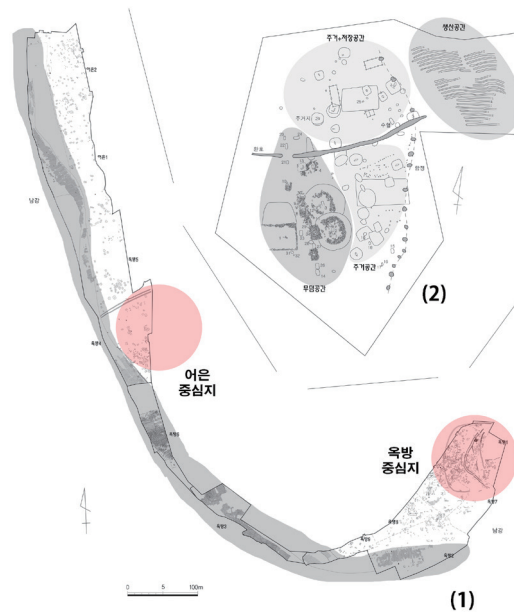


그림 9. 진주 대평리유적 유구배치도(1), 진주 가호동유적 유구배치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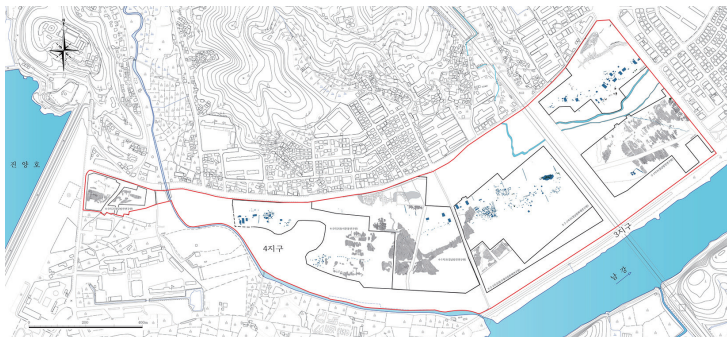


그림 10. 진주 평거동유적 유구배치도(3지구, 4지구)

[참고문헌]

- 고민정,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20, 「南江流域 青銅器時代 聚落과 生業」,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 『경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 김미나, 2019,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취락 유형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담, 2019, 「청동기시대 영남지역 석관묘의 시·공간적 전개」,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현, 2005, 「경남지역 무문토기시대 무덤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덕환, 2009, 「嶺南 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7, 『陝川 苧浦里 E地區 遺蹟』.
- 리정남, 1985, 「목방리 고인돌에 관한 몇가지 고찰」, 『력사과학』1.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 송영진, 201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중환, 2000, 『大邱 上洞支石墓 發掘調査 報告書』, 국립대구박물관.
- 윤호필, 2000, 「銅劍墓와 그 被葬者의 性格에 관한 研究」, 慶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9,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 『경남연구』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0,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변천 및 성격」, 『한일고고학의 신전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9회 합동고고학대회.
- _____, 2013, 「축조와 의례로 본 지석묘사회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 _____, 2020, 「영남지역 지석묘의 기원과 출현」, 『가야선주민의 무덤-영남의 지석묘사회』, 2020년 가야학술제전 학술총서 02, 국립김해박물관.
- 이형원, 2009, 「韓國 青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조진선, 1997, 「지석묘의 입지와 장축방향 선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6, 호남고고학회.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박물관, 2021,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
- 최셋별,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황재훈, 2018,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취락경관의 구축」,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호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平郡達哉, 2012, 「무덤자료로 본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발굴조사보고서는 생략함.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발표 3

일본 야요이시대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비교연구

平郡達哉

日本 島根大学

일본 야요이시대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비교연구

- 묘제를 중심으로 -

平郡達哉 | 日本 島根大學

I. 머리말

일본열도 야요이시대의 역사 및 문화적 평가가 일본열도에서 식량생산의 시작과 계승 사회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언급된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佐原眞 1975). 이러한 평가는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 않았다.

그리고 야요이시대를 구성하는 문화 요소를 3가지 종류 즉 1.대륙에서 전래된 요소, 2.요몬문화에서 전통으로 계승된 요소, 3.야요이문화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요소로 구분한 것도 佐原眞의 연구성과이다. 1970년대 전반은 중국대륙이나 한반도 특히 남부 지역의 농경문화의 실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일본열도에서도 야요이문화 특히 야요이문화 형성기의 고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문화요소들을 정리하면서 설명하려고 한 시각은 隻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 야요이시대 성립기의 문화요소 중 한반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묘제, 부장용토기 및 부장풍습을 실마리로 한반도 남부지역 특히 진주지역과의 문화 교류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¹⁾

1) 이 글은 2020년에 발표한 「彌生時代開始期の墓制」(『新・日韓交渉の考古學-彌生時代-(最終報告書 論考編)』所收)를 바탕으로 그 후의 연구 결과를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II. 묘제로 본 문화교류 -지석묘, 목관묘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부터 벼농사 문화가 최초로 전래된 북부구주에서의 야요이시대 개시기 묘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야요이문화 형성기 일본 지석묘에 대하여

일본열도 지석묘는 동북아시아에 넓게 전개된 지석묘 분포권 중 가장 남쪽에 있다는 지리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일본열도에서 지석묘가 축조된 역사 및 문화적인 배경을 말해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 지석묘의 축조 시기, 형태, 매장주체부 구조, 출토유물, 부장풍습, 피장자 문제들은 한반도 남부지역 지석묘와 관련지어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먼저 일본열도 특히 북부구주지역에 분포하는 지석묘²⁾의 양상을 살펴본 후, 일본 지석묘의 기원지인 한반도 남부지역 지석묘와 비교하면서 고지(故地)의 형태나 매장풍습 등 묘제로서 어느 정도 재현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일본 지석묘 현황과 분포

일본 지석묘는 지금까지 약 585기 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일본열도 전역이 아닌 구주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그중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등 구주 북서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이 지역에 570기 즉 일본열도 지석묘의 약 94%가 축조되었다. 분포상황을 자세히 보면 북부구주의 지석묘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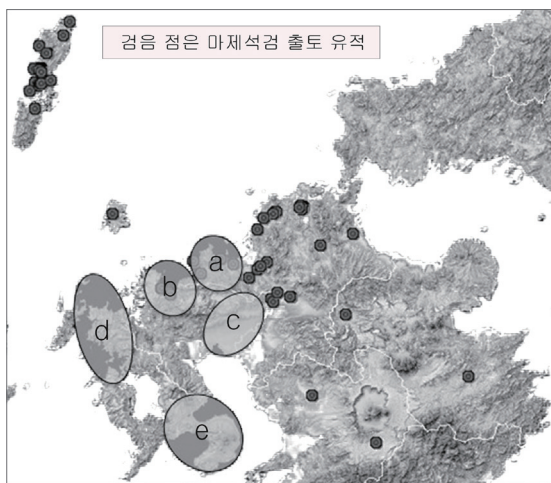
- a. 이토시마(絲島)반도, 이토시마 평야(신마치(新町), 이시자키마가리타(石崎曲り田), 이시자키야카제(石崎矢風), 나가노마야노마에(長野宮ノ前), 오타(小田), 시토(志登), 이타요에(井田用會), 미쿠모카가이시(三雲加賀石) 등)
- b. 가라츠(唐津)평야와 그 주변(오토모(大友), 도쿠스에(徳須恵), 하야마지리(葉山尻), 세토구치(瀬戸口), 모리타(森田), 사코가시라(迫頭) 등)
- c. 사가(佐賀)평야 동부(고다(香田), 센바가다니(戰場ヶ谷), 후나이시(船石), 구보이즈미마루야마(久保泉丸山), 츠부테이시(礫石) 등)

2) 일찍부터 森貞次郎은 “유우스(夜臼)식토기로 상징되는 문화” 단계를 “야요이문화 형성기”로 보는데 그 시기에 축조된 지석묘를 “초기 지석묘”로 보았다(森貞次郎 1969).

- d. 기타마츠우라(北松浦)반도 서안(다스케(田助), 사토타바루(里田原), 오노다이(大野台), 고가와치(小川内), 다누키야마(狸山), 시탄다(四反田), 아마쿠보(天久保) 등)
- e. 시마바라(島原)반도와 그 주변(하라야마(原山), 니시온즈카(西鬼塚), 쇼카엔(景華園), 후칸다케(風觀岳), 이자키(井崎) 등)

番號	地域	遺蹟名	彌生 早期			彌生 中期		立地	遺構	他副外 共有	埋葬主體部			出土遺物	人骨 (數)
			彌生 早期	彌生 早期	彌生 中期	石棺	土塚				甕塚				
1	絨島半島와 前原平野	畑田	■	■			段丘 上	5	있음		●	●	小壺		
2		小田	■	■			砂丘 上	2	있음		●	●	小壺	2	
3		志登	■	■			沖積平地	10	있음		●	●	磨製石鏃·打製石鏃		
4		井田用會	■	■			微高地	1			●	●	管玉		
5		三雲石ヶ崎	■	■			丘陵 上	1			●	●	管玉		
6		長野宮ノ前	■	■			段丘 斜面	2	있음		●	●	小壺·磨製石鏃		
7		新町	■	■			砂丘 上	7+	있음		●	●	小壺	14	
8		石崎矢風	■	■			微高地	3	있음		●	●	小壺		
9		石崎曲り田	■	■			丘陵 上	1	있음		●	●	小壺		
10		五反田	■	■			丘陵 上	5	있음		●	●	小壺		
11	唐津平野	岸高	■	■			丘陵 上	9	있음		●	●	小壺		
12		葉山尻	■	■			丘陵 上	4	있음		●	●	小壺·打製石鏃		
13		追頭	■	■			丘陵 上	3			●	●	小壺		
14		瀬戸口	■	■			丘陵 上	12	있음		●	●	小壺		
15		森田	■	■			丘陵 上	16	있음		●	●	小壺		
16		割石	■	■			丘陵 上	6	있음		●	●	小壺		
17		大友	■	■			砂丘 上	13	있음		●	●	小壺·貝輪	20여	
18		香田	■	■			中位段丘 上	1			●	●	小壺		
19		戰場ヶ谷	■	■			中位段丘 上	1			●	●	小壺		
20		佐賀平野 東部	久保泉丸山	■	■			中位段丘 上	118	있음		●	●	小壺·甕·鉢·高坏·管玉	
21	黒土原		■	■			中位段丘 上	8	있음		●	●	小壺		
22	礫石		■	■			中位段丘 上	23+	있음		●	●	小壺·管玉·土製勾玉		
23	龍小路		■	■			礫狀地	1			●	●	小壺		
24	宇久松原		■	■			砂丘 上	10	있음		●	●	小壺·貝輪	5	
25	北松浦半 島西岸	里田原	■	■			微高地	3+		●	●	小壺			
26		大野台	■	■			丘陵 上	46+	있음		●	●	磨削形大珠		
27		小川内	■	■			丘陵 上	10	있음		●	●	小壺		
28		狸山	■	■			丘陵 上	7	있음		●	●	磨削形大珠		
29		四反田	■	■			微高地	1			●	●	小壺		
30		天久保	■	■			丘陵 上	7	있음		●	●	管玉		
31		風觀岳	■	■			山の鞍部	35	있음		●	●	小壺·打製石鏃		
32		島原半島와 그 주변	井崎	■	■			丘陵 上	7+	있음		●	●	小壺	
33			西鬼塚	■	■			丘陵 上	1			●	●	小壺	
34			原山	■	■			丘陵 上	60+	있음		●	●	小壺·管玉·打製石鏃	
35	年の神		■	■			丘陵 上	1			●	●	貝輪		
36	熊本		■	■			丘陵 上	9	있음		●	●	小壺		
37		塔の本	■	■			?	2	있음		●	●	小壺		
38	鹿兒島	入來	■	■			砂丘 上	1			●	●	小壺		
39		下小路	■	■			砂丘 上	1			●	●	貝輪		
40	山口	中ノ浜	■	■			砂丘 上	1		?	●	●	小壺		

일본 지석묘 조사 현황(武末純一·平郡達哉 2009)



- a. 이토시마(絲島)반도, 이토시마 평야 (신마치(新町), 이시자키마가리타(石崎曲り田), 이시자키야카제(石崎矢風), 나가노마야노마에(長野宮ノ前), 오타(小田), 시토(志登), 이타요에(井田用會), 미쿠모카가이시(三雲加賀石) 등)
- b. 가라츠(唐津)평야와 그 주변 (오토모(大友), 도쿠스에(徳須恵), 하야마지리(葉山尻), 세토쿠치(瀬戸口), 모리타(森田), 사코가시라(追頭) 등)
- c. 사가(佐賀)평야 동부 (고다(香田), 덴바기다니(戰場ヶ谷), 후나이시(船石), 구보이즈미마루야마(久保泉丸山), 츠부테이시(礫石) 등)
- d. 기타마츠우라(北松浦)반도 서안 (다스케(田助), 사토타바루(里田原), 오노다이(大野台), 고가와치(小川内), 다누키야마(狸山), 시탄다(四反田), 아마쿠보(天久保) 등)
- e. 시마바라(島原)반도와 그 주변 (하라야마(原山), 니시온즈카(西鬼塚), 쇼카엔(景華園), 후칸다케(風觀岳), 이자키(井崎) 등)

그림 1. 일본 지석묘 분포지역(平郡達哉 2023에 가필)

2) 일본 지석묘 구조와 형식

한반도 지석묘의 형식은 주로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영문 2004), 같은 동북아시아 지석묘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지석묘에도 이러한 형식분류의 기본적인 분류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시킬 수 있다. 즉 중국 동북지역과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 보이는 탁자식 지석묘는 일본열도에서는 1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기반식 내지 개석식만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 개석식은 나가카시현 후칸다케 8호와 우쿠마츠바라(宇久松原)에서 약간 보일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기반식이다. 따라서 내부구조인 개석과 매장주체부의 재료와 종류를 기준으로 목관형, 석관형, (석개)토광형, 토기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武末純一·平郡達哉 2009; 平郡達哉 2020)(그림 2).

가. 목관형 : 이시자키야카제유적 I지구 1호 지석묘에서 조합식 목관의 바닥판과 측판(側板)이 확인된 바가 있고, 신마치유적에서 발견된 이단토광을 가진 지석묘는 목관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된 바가 있다(宮本一夫 2012). 비교되는 한반도 자료로서 덕천리 2호 지석묘 석실 바닥에서 확인된 목관의 상판, 하판으로 추정되는 목질(경남대학교박물관 2013)이 있고 진주 호탄동 나지구 16·17·18호 구획묘의 매장주체부로서 목관 단벽을 장벽판으로 끼운 목관 흔적을 들 수 있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나. 판석석관형 :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깊이가 있는 것(다누키야마 5호, 하라야마 지석묘군)과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폭과 깊이가 얇은 것(세토구치 7호, 고가와치, 오노다이 6호)으로 세분된다. 석관의 크기는 나가사키현의 경우 장축이 50~100cm 정도인 것이 대부분이다(安樂勉 1997). 축조방법은 네 벽 각각을 한 장의 판석을 세워 조립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판석 2~3장을 이어 세워서 장벽으로 한 것도 있다.

다. 할석석관형 : 묘광 바닥에 방형으로 돌을 배치하고, 토광 측면을 따라 돌을 세운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오토모유적 21·6·7·8·3·4·23·57호를 들 수 있다. 이것의 시기에 대해서는 부장유물을 근거로 유우스(夜臼式) 新段階부터 이타즈케(板付) 1식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본다(宮本一夫 2001).

라. (석개)토광형 : 일본 지석묘 중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시기적으로도 야요이 초기부터 야요이 중기 초까지 긴 시간에 걸쳐 보인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원형 내지 장

타원형을 이룬다. 또 석개토광묘는 구보이즈미마루야마·츠부테이시·구로츠치바루(黒土原)유적 등 사가평야에서 많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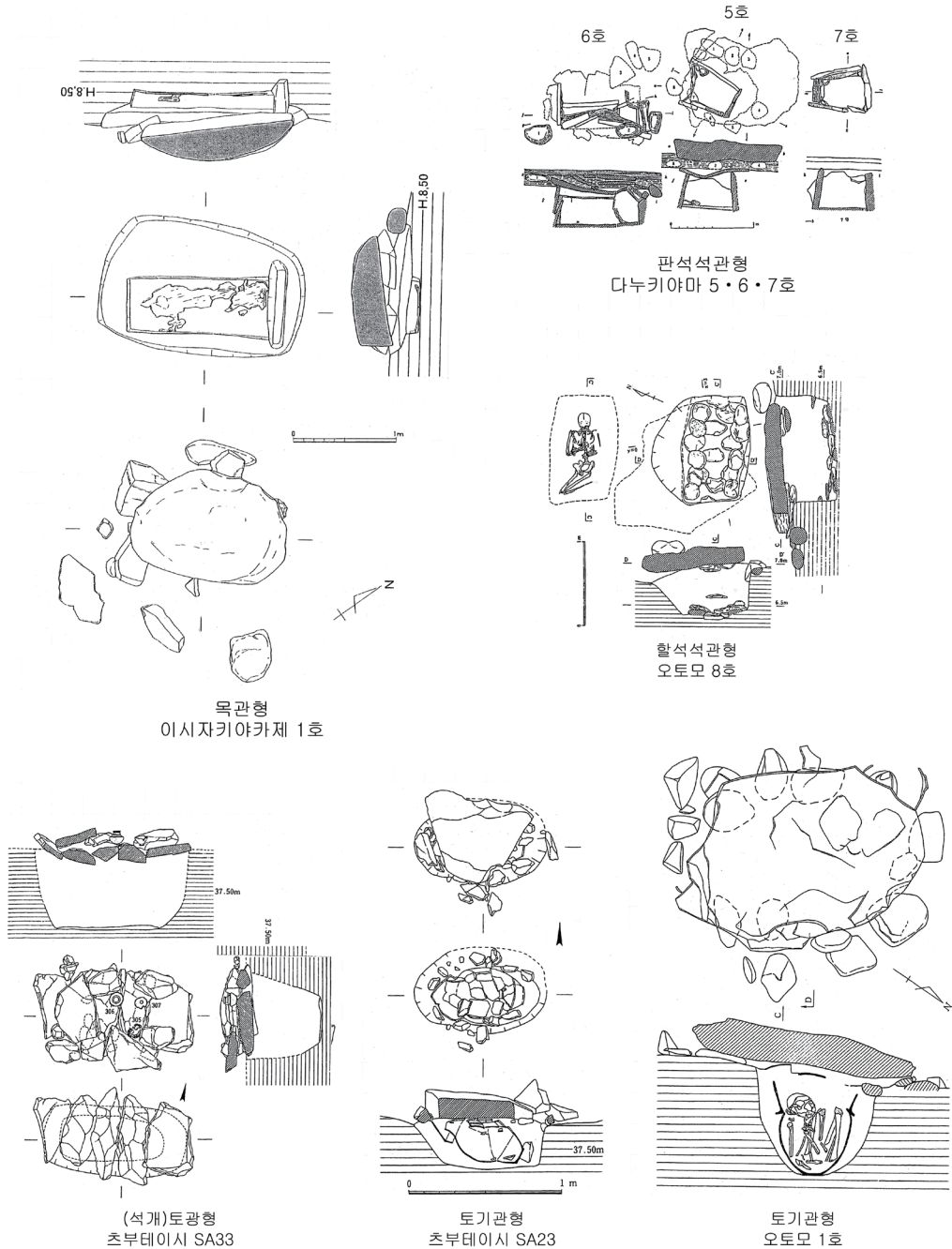


그림 2. 일본 지석묘 하부구조

마. 토기관형 : 야요이 초기에 호를 이용한 소아용 토기관이 보인다. 일상 용기를 전용하여 항아리에 다른 항아리나 독을 덮어 뚜껑으로 하고 널로 한 사례가 많다. 야요이 전기 말부터 중기 초에 성인용 대형 옹관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석묘의 옹관도 대형화되었다.

야요이 초기에 속한 이시자키마가리타의 경우 소형의 원형 토광 내에서 숯과 불탄 사람 뼈 파편 등이 출토되었고, 火葬骨의 가능성이 지적된 바가 있다(橋口達也 1995).

규모에서도 한반도 지석묘에 비해 소형이다. 상석 규모를 보면 한반도 남부지역의 지석묘 상석 체적이 3~7㎡인 것에 비해 일본 지석묘의 상석은 길이 2m 정도이고 체적이 1~2㎡ 정도인 것이 대부분이다(端野晋주 2003).

3) 일본 지석묘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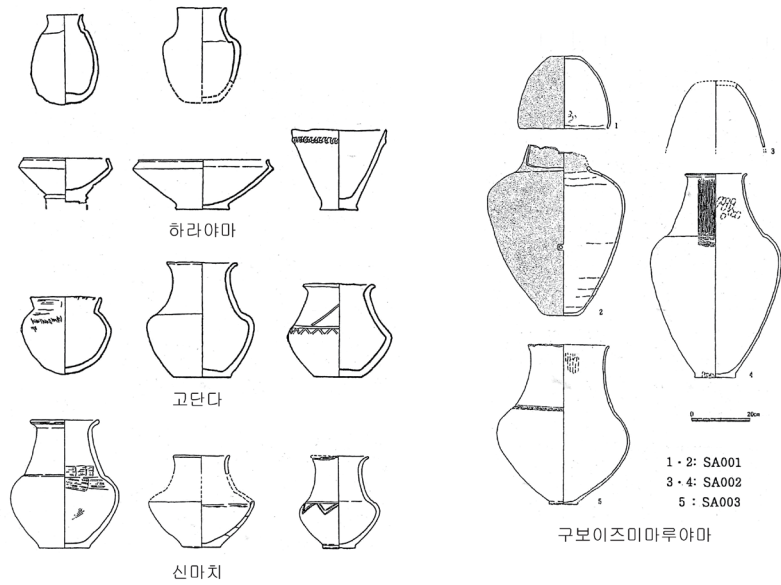
일본 지석묘에서는 토기, 석기, 옥류, 조개 제품(貝製) 장신구 등이 출토되는데, 매장주체부 내부 특히 바닥면에서 출토되는 부장유물과 묘광 상면 즉 상석 밑에 놓여진 공헌(供獻)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발굴조사된 일본 지석묘 40개 유적 중 28개 유적에서 부장유물 혹은 공헌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대부분이 공헌유물이고, 매장주체부 바닥에서 출토된 부장유물은 8개 유적³⁾에서 확인된다(그림 3).

가. 토기류 : 야요이 초기에 해당되는 유우스(夜臼) I식부터 이타즈케(板付) II식이 확인된다. 기종을 보면 소형 호, 옹, 고배, 완(碗)형 토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소형 호이다. 토기의 부장 위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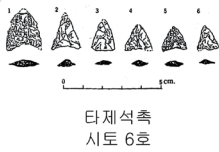
나. 석기류 : 크게 대륙계 마제석기⁴⁾와 죠몽계 석기로 구분된다. 먼저 대륙계 마제석기로서 침근 일단경식 마제석촉이 있다. 그 출토 사례는 많지 않으며 확실하게 지석묘에서 출토된 것은 미쿠모 가가이시(三雲加賀石)(6점), 시토 8호(4점) 출토품뿐이다. 각각 출토상태가 다르고, 미쿠모(三雲)의 경우 매장주체부 안에서 출토되었지만, 시토 8호의 경우 상석 동쪽 바로 밑에서 출토되었고, 관외부장일 가능성이 지적된 바가 있다(橋口達也 1997).

3) 후쿠오카현 고타-신마치-마가리타, 사가현 하야마지라-츠부테이시-구로츠치바루, 나가사키현 고가와치-하라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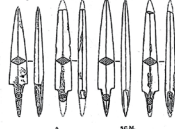
4) 일본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야요이 초기에 한반도에서 도작문화와 함께 북부구주지역에 전해진 석도, 석검, 석부, 석촉 등의 석기군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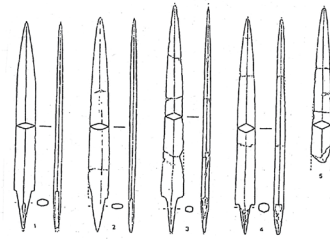
구보이즈미마루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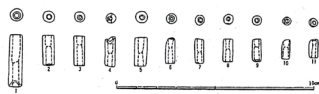
타제석촉
시토 6호



마제석촉
시토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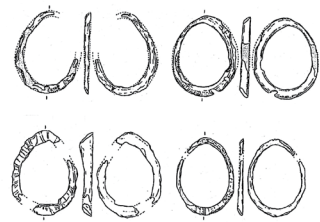
마제석촉
미쿠모카가이시



벽옥제 관옥
아마쿠보 3호



鱗節形大珠
다누키야마 6호



조개 팔찌
오토모 8호

그림 3. 일본 지석묘 출토 유물(平郡達哉 2020을 가감)

다음에 조몽계 석기류가 있다. 대륙계 마제석기와 달리 재지의 조몬문화 계통을 잇는 무경삼각형 석촉이 출토되었다. 석재는 흑요석을 사용하고 시토 6호 지석묘에서 6점, 하야마지리 4호 지석묘에서 1점, 하라야마 제2지석묘군 1호에서 관옥과 공반한다,

다. 옥류 : 벽옥제 관옥과 곡옥이 있다. 벽옥제 관옥이 후쿠오카현 이타요에에서 22점, 미쿠모이시가사키에서 11점, 사가현 츠부테이시B유적에서 1점, 구로츠치바루에서 1점, 나가사키현 아마쿠보 3호 지석묘에서 15점, 하라야마 제2지석묘군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아마쿠보 3호 지석묘의 경우 출토상태로 보아 목걸이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관옥도 역시 한반도 남부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7).

곡옥은 다누키야마와 오노다이 지석묘에서 1점씩 출토되었는데, 구주에서 산출되는 경옥을 사용한 鯉節形大珠라고 불리는 것으로, 조몬문화 전통을 잇는 유물이다.

라. 조개 제품 : 팔찌가 주로 출토되었고 소옥이나 기타 장식품 등이 약간 보인다. 팔찌는 나가사키현 우쿠마츠바라 1호 지석묘에서 2점, 사가현 오토모 2호 지석묘에서 2점, 동 8호 지석묘에서 발견된 인골의 경우 좌우 팔에 장착된 상태로 5점이 출토되었다. 우쿠마츠바라 1호에서 장식품 1점, 동 2호에서 조개로 만들어진 소옥 66점이 발에 장착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석묘에 조개 제품을 부장하는 풍습은 구주 지석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관묘 (그림 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지석묘가 전파되면서 신마치유적, 이시자키야카제유적 등 이토시마반도에서 축조된 지석묘는 매장주체부로서 목관이 확인되었다(端野晋平 2003).

지석묘 매장주체부로서의 목관과 달리, 독립된 묘제로서의 “목관묘”는 후쿠오카평야보다 동쪽지역에서 야요이 초기부터 전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토시마반도에서 후쿠오카평야-무나카타(宗像)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같은 시기의 지석묘가 이토시마반도를 東限으로 하며 지석묘와 목관묘의 분포가 이토시마반도에서 중복된다(宮本一夫 2012). 대표적인 유적으로 나가노미야노마에(長野宮ノ前, 유우스 I~II식), 잣쇼노쿠마 유적(유우스식·유우스식 IIa), 텐진모리(天神森)유적(이타즈케 I식: 전기 전반), 에츠지(江辻)유적(유우스 II식), 다쿠마츠가우라(田久松ヶ浦)유적(유우스 II식~이타즈케 I식), 도조야마(道場山)유적 2지점(이타즈케 I식), 데라후쿠도(寺福童)유적(이타즈케 I~IIa식)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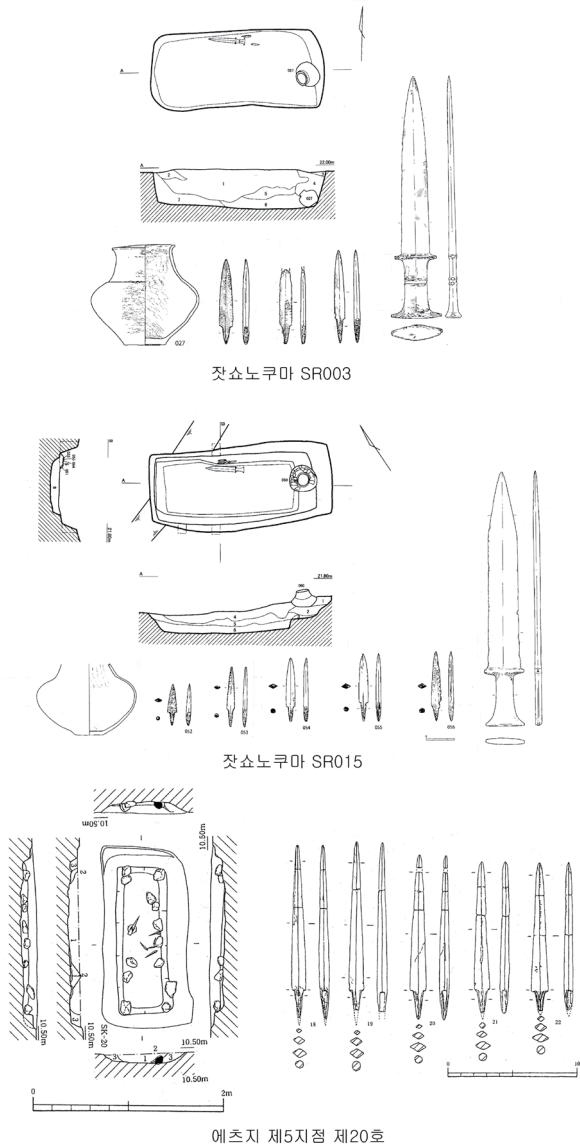


그림 4. 야요이 초기·전기 목관묘(平郡達哉 2020을 가공)

이들 목관묘 출토 유물 중에는 일본열도 지식묘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마제석검이 유우스 IIa식 단계부터 이타즈케 IIa식 단계까지 출토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마제석검과 함께 마제석촉 및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는 사례가 冢野ノコウ마유적 3·15호에서 확인되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부장유물의 세트 관계는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관련성을 상정시킨다.

비교할 수 있는 한반도 자료로서 관재를 세우기 위한 흙을 가진 창원 신촌리 I지구 16호, 함안 오곡리 5·24·25호, 바닥면에서 탄화된 관재 흔적이 확인된 부여 송국리 54-1호묘,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는 진주 대평리 옥방1지구 10·45호 등을 들 수 있다(김현 2003). 또 김해 율하유적(A지구 2-3·4·14호, C지구 6호)에서도 토층 단면에서 목관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이외에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가-17호 석관묘와 같이 관재로서 판석과 목재를 병용하는 사례도 있다(端野晋주 2018).

진주 호탄동유적 나지구 17호 구획묘에서는 방형의 묘역시설을 가진 무덤의 하부구조로서 조립식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관을 밀폐하기 위해 할석 7장으로 덮었다. 단벽을 장벽으로 끼는 조립식 목관인데, 보고서 도면을 보면 바닥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벽, 장벽을 세우기 위한 흙을 마련하고, 목관 길이는 장벽 142cm, 단벽 38cm, 두께 5~7cm, 높이 40cm 정도이다. 묘광과 목관 사이에는 25~50cm 정도 크기의 보강석을 설치하였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이 유적에서는 17호에 인접하는 18호 구획묘에서도 동일한 목관 흔적이 조사되었는데, 길이 150cm, 넓이 38cm, 높이 27cm 이상, 두께 4~7cm이다. 보고서 도면에는 바닥판이 표현되었지만 본문에는 언급이 없고, 도판에서도 확인 할 수 없다.

모두 한반도 남부 특히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위와 같은 목관이 지석묘, 구획묘의 하부구조로서 확인된다.

Ⅲ. 한일 부장유물과 부장행위 비교 -토기 관외부장·마제석검·매장자세 검토-

여기서는 경남지역과 북부구주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장행위에 대해 토기 관외부장, 마제석검, 매장자세를 검토함으로써 양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토기 관외부장 풍습 (그림 5)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2013년 시점에서 정식 보고된 청동기시대의 매장유구 957기 중 유물부장이 확인된 것은 289개 사례가 있고, 비율은 대략 30% 정도이다. 이러한 부

장행위 289개 사례 중, 관외부장은 53개 사례가 확인된다. 이 중 토기의 관외부장은 14개 유적에서 45점이 확인되었고, 춘천 발산리 5호 지석묘 이외에는 모두 경남지역에서 보인다. 관외부장 토기 중 가장 많은 것은 적색마연토기이며 9개 유적 33개 유구에서 33점이 출토되었다(平郡達哉 2013). 그 다음은 무문토기이고, 1개 유적 2개 유구(소토리 7·38호)로 각 1점씩, 총 2점이 출토되었다. 양산 소토리 7호의 경우, 개석을 덮은 후에 개석 위에 토기를 놓았다.

야요이문화 형성기의 토기 부장풍습에 대해 언급한 中村大介는 소호(小壺)가 출토된 유적은 23군데가 있는데, 공헌 14점, 관내부장 5점, 관외부장 4점이 확인되고 특히 소호 부장은 영남지역 남부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中村大介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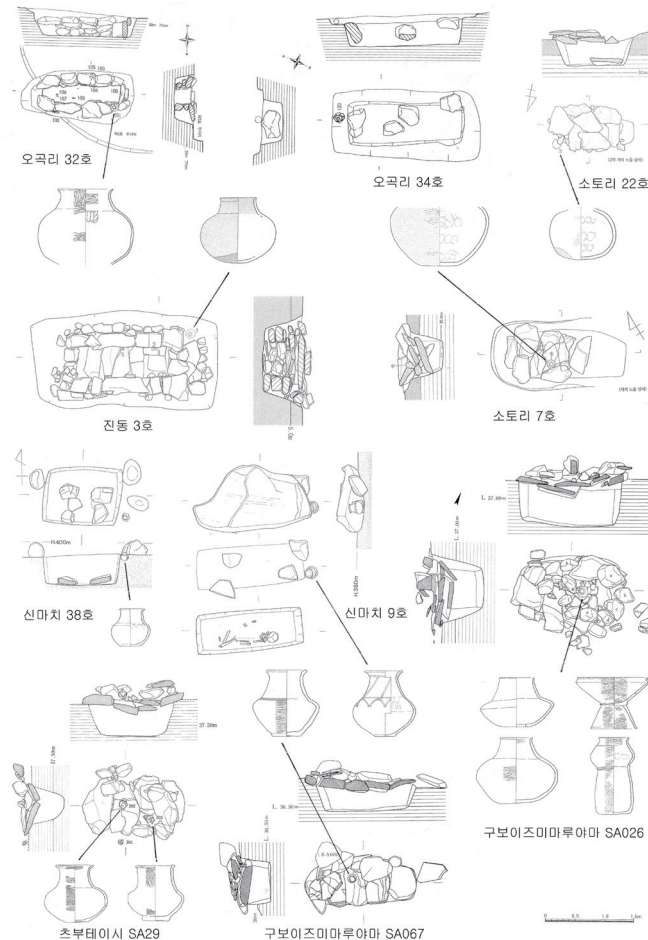


그림 5. 경남과 북부구주지역의 관외부장(武末純一·平郡達哉 2009)

이 자료들 중에서 경남지역과 북부구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토기 부장풍습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경남지역과 북부구주지역 관외부장 토기

부장 위치	경남지역	북부구주
묘광 모서리 바깥쪽	신촌리 1-9호, 오곡리 32호, 농소 1호, 진동 3-30호	신마치 4-9·13·27·34·38·48
개석 위	소토리 7호	구보이즈미마루야마 SA016·017·026·048·067, 츠부테이시 SA26·29·33

함안 오곡리 32호, 마산 진동 3-30호, 창원 신촌리 1-9호, 거제 농소 1호 등 경남 남부 지역에서 보이는 묘광 모서리 바깥쪽에 부장하는 풍습이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신마치유적(4-9호묘 등)에서 7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양산 소토리 7호에서 확인된 개석 위에 공헌하는 것은 사가평야의 두 유적(구보이즈미마루야마 SA016, 츠부테이시 SA26 등)에서 8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양산 소토리 7호묘를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양 지역 모두 석개토광을 매장주체부로 채용한 점은 동일하며, 그 구조·토기 부장풍습에 공통점이 있다(武末純一·平郡達哉 2009).

2. 일본 마제석검의 분포와 형식

한반도 청동기시대 묘제의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마제석검은 야요이시대 초기에 한반도 남부에서 쓰시마를 거쳐 북부구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武末純一 1982; 심봉근 1989; 下條信行 1991). 야요이문화 형성기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확인된 야요이시대 초기·전기의 마제석검은 85점이 있다(平郡達哉 2017). 북부구주를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쓰시마에서 24점, 사가현에서 9점, 후쿠오카현에서 35점이 확인되었고, 주변에서는 히메현 특히 마츠야마평야나 시마네현 이즈모평야, 가가와현에서 확인된다. 출토유구를 알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많은 유구는 매장유구가 된다. 매장유구에서는 총 25점 출토되었는데, 그 중 상자식 석관에서 출토된 것이 15점으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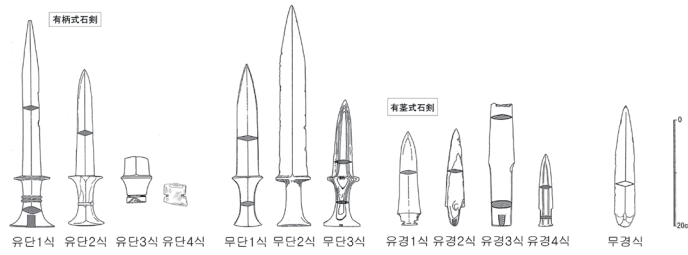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열도 출토 마제석검 형식분류(平郡達哉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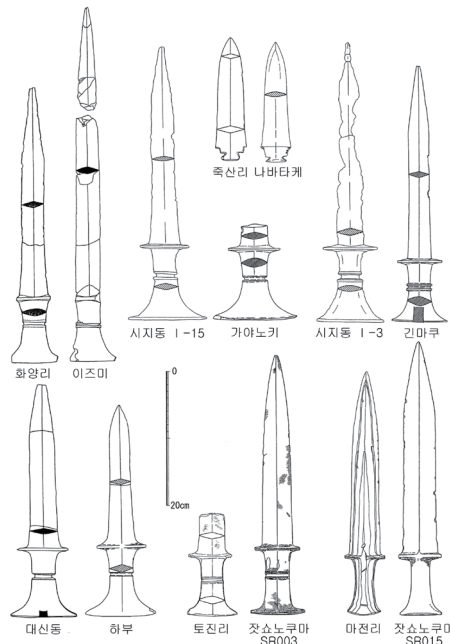


그림 7. 한일간 유사한 마제석검(平郡達哉 2017)

장 많고, 오토모유적 3차 1호 석관묘 출토품 이외는 모두 쓰시마 출토품이다. 이외에 목 관묘에서 7점(잣쇼노쿠마 3·11·15호, 다쿠마츠가우라 SK206, 구바라 SK8, 데라후쿠도 R-8, 요코쿠마카미우치하타 4차 SR21), 토광묘에서 3점(다시로나가요시, 나카테라오 8호, 모치다산쵸메 SK32)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일 양자간의 형식적인 유사성을 보면 쓰시마와 후쿠오카현 나카마(中間)에서 출토된 것은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유절병 Ⅱ·Ⅲ식(=유단1식⁵⁾)과 유사성이 있고, 후쿠

5) 야요이문화 형성기 마제석검의 형식은 병부형태로 유병식과 유경식으로 대별하고, 유병식은 ①검신부와 병부 연결 형태, ②稜 위치에 따라, 유경식은 ③경부 길이, ④경부 홈의 유무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平郡達哉 2017)(그림 6).

오카평양 출토품은 평택 토진리·논산 마전리 KM008 출토품과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 사가현 나바타케유적에서 출토된 유경1식은 보성 죽산리 다군 16호묘 출토품처럼 전남지역 출토품과 유사성을 가진다(그림 7). 일본 마제석검의 기원지도 특정하게 한정된 지역으로 보는 것보다 다원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열도 출토 마제석검의 분포로 보아 下條信行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지역과 산만하게 출토되는 지역이 상호로 존재하고, 전자는 지역은 초기 농경문화의 분포 루트상 요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下條信行 1994). 다시 야요이문화 형성기의 마제석검 분포를 살펴보면 한반도 남부로부터 쓰시마로 유입(1차 파급), 쓰시마에서 북부구주 겐카이나다(玄界灘) 연안지역으로의 유입(2차 파급), 다시 거기에서 마쓰야마평야를 통해 세토나िका이(瀬戸内海) 동부로 가는 루트와 동해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서 시마네현 이즈모평야로의 유입(3차 파급)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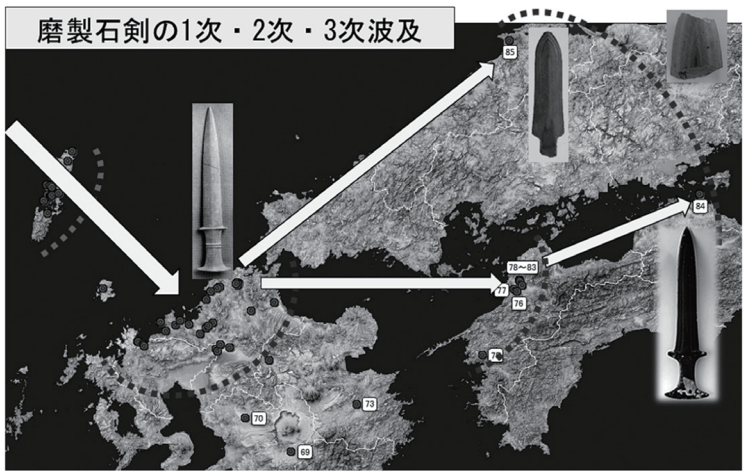


그림 8. 야요이 초기·전기 마제석검의 파급(平郡達哉 2020)

3. 한일 마제석검 부장풍습 비교

여기서는 부장유물로서의 세트 관계와 부장위치에 대해 한일간 비교를 시도하면서 양자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서도 마제석검의 부장은 반드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남지역의 경우 청동기 시대 매장유구의 8.4%에서만 볼 수 있는 상당히 한정적인 풍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平郡達哉 2013). 이러한 마제석검이 일본 지식묘에서 부장품으로서 출토된 확실한 사례는 없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잣쇼노쿠마유적처럼 일본 지식묘 분포권을 벗어난 후쿠오카평야를 중심으로 한 목관묘에서 출토된다(宮本一夫 2012).

먼저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부장유물의 세트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매장유구 550기 중 102기에서 관내·관외를 불문하고 부장행위가 확인된다. 그 중 마제석검과 관련된 부장유물 세트관계를 보면 석검+석촉+토기 15개 사례, 석검+석촉 5개 사례, 석검+토기 4개 사례, 석검만 부장 10개 사례가 확인된다. 가장 많은 것이 석검+석촉+토기 세트이고, 더 자세히 보면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여러 점, 적색마연토기 1점의 세트관계이다(平郡達哉 2006).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석검+석촉+토기 4개 사례(잣쇼노쿠마 SR015·SR003, 다쿠마츠가우라 SK201·SK206), 석검+석촉 2개 사례(테라후쿠도 R-8, 구바라 SK8), 석검+토기 2개 사례(나가요시, 잣쇼노쿠마 SR011), 석검+관옥 2개 사례(요코쿠마카미우치 하타 4차 SR21, 나카미치단 4호 석관묘)가 확인된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부장품습에 있어 잣쇼노쿠마 SR003·SR015나 다쿠마츠가우라 SK201처럼 마제석검 1점+마제석촉 여러점+(적색마연)토기가 세트를 이룬 점은 한반도 남부지역의 부장품습과 높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부장위치를 보면 매장주체부 장벽 중앙에 붙어 출토된 것이 7개 사례(나카미치단 4호 석관묘, 잣쇼노쿠마 SR015·011·003, 테라후쿠도 R-8, 구바라 SK8, 다쿠마츠가우라 SK206)가 확인된다. 그리고 매장주체부 장벽에 붙어있지만 단벽쪽에 치우쳐 출토된 것이 2개 사례(요코쿠마카미우치하타 4차 SR21, 다쿠마츠가우라 SK201)가 있다. 이외에 관외에서 출토된 것은 사가현 오토모유적 3차 1호 석관묘가 유일하다. 매장주체부 장벽 중앙에 붙어 출토된 것이 많은 점도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기본적 부장패턴과 유사하다.

야요이문화 형성기의 마제석검은 한반도 출토 마제석검과 비교했을 때, 그 형태와 사용된 석재, 출토유구와 출토상황, 제작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징의 유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이 나타남을 지적할 수 있다(平郡達哉 2020).

- ① 한반도에서 제작된 석검이 초래된 것(이즈미(泉) 출토품, 잣쇼노쿠마 SR003·015 등)
- ②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마제석검(마가리타 17·33호 주거지 등)
- ③ 한반도에서 제작된 마제석검을 재가공한 것(가시시 석관묘 출토품, 하라야마 채집품 등)

“동북아시아의 마제석검”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일의 마제석검은 같은 맥락의 물질 자료로 묶을 수 있다. 특히 신석기시대·조몬시대에는 볼 수 없는 “무기형 부장품⁶⁾”의 출현과 전개라는 의미에서는 양 지역의 마제석검이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마제석검을 부장하는 의의에 대해 後藤直은 “무기로서 다른 공동체와 교섭하는데 있어 우위(優位)를 획득할 수 있는 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힘, 공동체를 해치는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의 상징물이고, 죽은 후에도 불가결한 것으로 부장할 필요”가 있고, “무위(武威)를 함의하는 의례·언설(言說)”로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았다(後藤直 2000). 이 지적은 한반도 마제석검에 대한 것이지만 일본열도 출토 마제석검의 출토 상황⁷⁾을 고려하면, 검이 가진 상징성 즉 무위(武威)의 개념이 여기서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마제석검이 이 시기에 새로 출현하는 목관묘의 부장품으로서 부장유물 세트 관계나 부장위치가 한반도의 그것과 높은 공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품만의 전파가 아닌 장송의례를 포함한 제도의 전파라고 볼 수 있다.

4. 부장품으로서 가지무늬토기의 부재

가지무늬토기는 서부경남이라는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후엽에 출현한다. 이 시기에 서부경남은 석관을 매장주체부로 한 무덤을 중심으로 부장되었다. 후기가 되면 기존의 분포중심지역이었던 남강유역과 사천 등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대신에 전남 남해안지역과 경북·대구지역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분포범위가 넓어진다. 여

6) 또 하나의 중요한 부장유물인 마제석촉은 미쿠모카가이시 지석묘 등에서 부장품으로서 출토된다. 이들 마제석촉도 유엽형(柳葉形) 신부와 직각을 이룬 관부, 신부 稜이 경부 끝까지 보이는 점, 경부 단면이 육각형을 이루는 점들은 한반도 남부 지석묘 부장품과 같은 형태를 띤다. 이처럼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세트를 이루면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마제석검과 마제석촉은 일본열도에서는 각각 출토유구나 지역을 달리해서 확인된다.

7) 山崎頼人は九州北部에서 석제무기 부장에 대해 석검뿐만 아니라 석촉도 포함시키고 부장사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마제석검이 한 유구에서 1점 출토되었고, 피장자 오른쪽에서 봉부를 다리쪽을 향한 것으로 보아 패용(佩用)과 속인성(屬人性)을 의식하면서 부장되었다고 보았다(山崎頼人 2009).

기서 주목되는 점은 단순히 분포범위만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산지역의 재지 토기 형태(적색마연호나 플라스크모양 호형토기)에 가지무늬가 시문되는 등 절충(折衷)형태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토기만의 전파가 아니라 영남 동남부의 적색마연토기 제작집단이나 전남의 플라스크모양 호형토기 제작집단이 서부경남의 가지무늬토기 제작집단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平郡達哉 2011). 가지무늬토기는 청동기 시대 무덤 부장품으로서 적색마연토기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지만, 일본 지석묘나 목관묘 등에서 출토되지 않았고, 조몬시대 만기의 에히메현 마츠야마시 오부치(大淵)유적에서 출토된 바가 있다(栗田茂敏 2000; 下條信行 2014)(그림 9). 또 야요이 초기의 대표적 유적인 나바타케유적에서도 재지 토기에 가지무늬가 시문된 것이 확인된다. 청동기시대 후기에 한반도 남부에서 가지무늬토기의 분포가 확산되는 시기에 일부는 사가현과 에히메까지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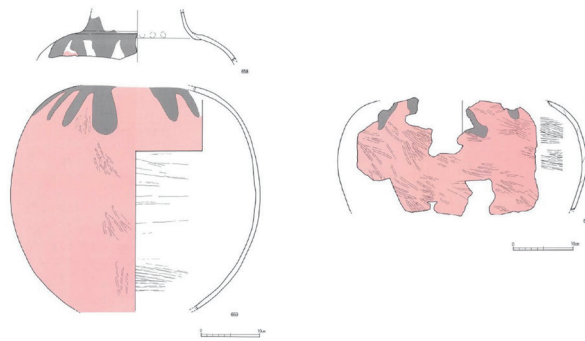


그림 9. 에히메현 오부치유적 출토 가지무늬토기(栗田茂敏 2000)

5. 매장자세 비교

먼저 야요이 개시기와 병행하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매장자세에 대해 정리하겠다.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인골(인골편 포함)은 2019년 시점에서 26개 유적에서 60개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인골자료는 적고, 매장자세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18개체(평창 하리 2호 석관묘, 제원 황석리 13호·총6호·총7호, 김천 송죽리 제4호 지석묘, 달성 진천리 38호 석관, 달성 평촌리 3호·16호·20호·22호·23호 석관묘, 진주 본촌리 2호 석관묘, 진주 어은1지구 4호 석관묘, 진주 옥방4지구 4호·26호 석관묘, 동 5지구 A-1호 석관묘, 동 7지구 가-17호 석관묘, 진주 중촌리 III-1호 석관묘)가 알려져 있다(平郡達哉 2019)(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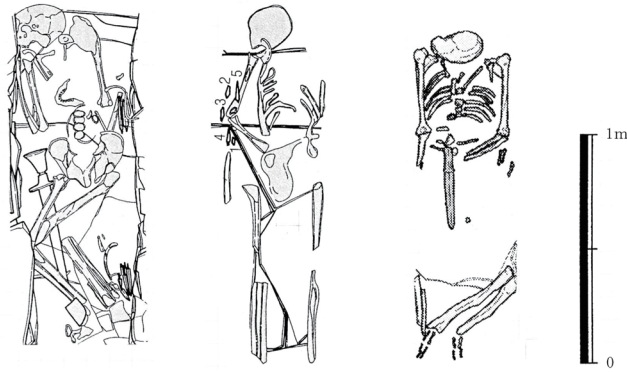


그림 10. 청동기시대 매장자세(좌: 평촌리 20호, 중: 평촌리 16호, 우: 중촌리)

자세한 매장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황석리 13호 지석묘 출토 인골은 팔을 강하게 굴곡시키는 한편, 다리를 똑바로 뻗은 매장자세를 보인다(김재원·윤무병 1967).

사천 본촌리 가-2호 석관묘, 옥방5지구 A-1호 석관묘, 중촌리 III-1호 석관묘에서는 팔뚝을 가슴과 배 위에 오도록 굴곡시키고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굴곡시키는 매장자세를 보인다.

달성 평촌리 유적에서는 20호 석관처럼 팔뚝을 강하게 굴곡시키면서 다리도 같은 방향으로 굴곡시키는 매장자세가 있는 한편, 16호 석관처럼 팔뚝을 굴곡시키고 다리를 늘린 매장자세도 확인되었으며, 다른 매장자세가 동일한 묘구 내에서 확인되며, 그룹핑을 달리하고 있다(그림 10).

지금까지 확인된 매장자세를 보면 굴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모두 신전장이 확인되는데 완전한 신전장이 아니라 상지(上肢)와 하지(下肢)를 구부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피장자 상지를 구부리는 자세에 대해 “원래는 막대 모양의 무언가를 죽은 자에게 갖게 하는 장송행위가 한반도에 존재”할 가능성이 지적된 바가 있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옥방4지구 26호 석관묘 출토 인골을 들었다(田中良之 2001). 그 후 진주 중촌리 III-1호 석관묘에서 왼쪽 팔뚝을 굴곡시킨 인골이 조사되었는데, 마제석검의 봉부가 다리쪽을 향해 피장자 배 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인골 자체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피장자의 배 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마제석검이 출토된 사례가 상주 청리, 안

동 지례리, 대구 월성동 585, 대구 매호동, 함안 오곡리, 사천 이금동, 거제 아주동, 밀양 가인리, 양산 소토리 등 영남지역의 넓은 지역에서 12사례 확인되었다(平郡達哉 2013).

야요이 개시기의 묘제 중 인골이 검출된 유적은 신마치, 오토모, 우쿠마츠바라 등이 있으며, 모두 규슈 북안(北岸)지역의 지석묘이다. 이들 유적 중 인골의 형질인류학적인 특징이 밝혀진 것은 30개체 정도이다. 이 인골들은 굴장(屈葬) 혹은 굴지장(屈肢葬)으로 매장되었는데, 이러한 매장자세는 조몬 후·만기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생각된다(坂本嘉弘 2000). 또 텐진모리유적, 예츠지유적, 다쿠마츠가우라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에서는 양와신전장(仰臥伸展葬)이 가능하다고 보았다(端野晋平 2018).

그리고 매장자세는 일본열도 지석묘에 보이는 상석 소형화(小型化)와도 관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남부지역의 지석묘 상석의 체적과 비교하면, 일본열도 지석묘의 상석은 약 1/3 정도의 소형이 대부분이며(端野晋平 2003), 매장주체부의 규모도 1m 이하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강유역의 지석묘 상석의 형태와 규모는 이들과 유사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端野晋平 2018).

일본열도의 경우 굴장으로 매장하기 위해 매장자세에 대응한 규모를 가진 매장주체부를 구축하고, 상석도 매장주체부의 규모에 대응한 것을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 매장자세에 따라 매장주체부 규모가 규제·규정된다면 상석 소형화도 이해할 수 있다(武末純一·平郡達哉 2009; 宮本一夫 2012).

IV. 맺음말

이상으로 북부구주에서 야요이문화 형성기 즉 야요이 초기·전기 묘제를 개관하고, 거기에 보이는 특징을 추출한 후 같은 시기의 한반도 청동기시대 묘제와 비교를 시도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일본 지석묘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① 한반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故地의 再現性이 높은 요소가 있다(침근일단경식 석축이나 벽옥제 관옥, 토기 부장풍습, 목관, 석개토광)

유경식 마제석촉이나 벽옥제 관옥처럼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토기 특히 적색마연토기 부장풍습에서는 한반도의 부장풍습이 그대로 전해졌다고 봐도 좋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사가평야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석개토광형 매장주체부는 구조와 토기 관외부장으로 보아 한반도 묘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부장풍습이 구주 내에서도 일정지역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 부장유물뿐만 아니라 유구의 구조나 규모에서도 북부구주의 지역성을 가지면서 독자적인 형태를 가진다.

② 일본 지석묘에는 정착하지 않았던 요소가 있다(마제석검, 가지무늬토기 부장)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부장유물인 마제석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지석묘에서 출토되지 않았고, 겐카이나다 연안 서부의 목관묘에서 부장품으로서 출토된다. 또 가지무늬토기도 무덤에 부장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본 지석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러한 요소들은 지석묘의 중심분포지가 아닌 인접하는 지역에서 확인된다.

③ 한반도 지석묘에는 보이지 않고, 일본 지석묘에만 보이는 요소가 있다(토기관형 매장주체부, 굴장)

한반도 지석묘의 매장주체부로서 옹이나 호를 사용한 토기관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오토모유적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몬문화의 전통을 잇는 토기관을 사용하며 무덤의 가장 핵심적인 매장에서 역시 조몬문화적 요소인 굴장(坂本嘉弘 2000)으로 매장되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온” 지석묘는 기원지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고, 북부구주에서 출현했던 시점에 이미 재지적 요소(조몬문화)를 포함해 변용된 모습으로 축조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오토모 지석묘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인골이 검출되었는데, 조사담당자인 마야모토 가즈오의 유적의 입지, 출토인골에 대한 콜라겐 동위체 분석 결과, 그리고 결합식 낚시바늘(石鏃)의 분포와 초기 지석묘의 분포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 남부지역의 집단과 기존부터 교류관계를 맺은 어로민이 지석묘를 수용했다고 보았다(宮本一夫編 2003).

일본 마제석검의 경우 형식적 유사성이나 무덤에서의 부장 위치 등 한반도 마제석검과 높은 공통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유입이 아니라 이러한 마제석검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동·이주의 결과로 생각된다.

일본 지석묘가 외관적으로 한반도와 공통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무덤으로서의 근본적 요소인 죽은 자를 안치시키는 매장주체부의 구조나 규모에서는 “기원지 양상의 재현성(再現性)”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열도에서 출현했을 당초부터 다른 모습 즉 ‘변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구조나 규모,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매장 자세에 재지문화인 조몬적 요소가 진하게 표출된 점은 단순히 ‘조몬의 무덤’, ‘한반도의 무덤’으로 이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지석묘와 마제석검의 기원지에 대해 언급하자면 지석묘 구조 및 부장 풍습에서 볼 수 있는 유사성을 감안했을 때 기존에 지적된 바와 같이 남강유역이나 여수반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端野晉주 2003; 中村大介 2006). 다만 일본 지석묘에 보이는 한반도적 요소는 여러 지역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정한덕·이재현 1998) 하나의 특정지역을 기원지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동기시대 묘제의 토기부장 풍습 및 석개토광 그리고 벽옥제 관옥의 존재 등으로 보아 양산에서 사천에 걸친 경남지역 남해안지역과 여수반도에서 그 기원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야요이 초기·전기 묘제에 보이는 다양성은 조몬시대부터 계속되는 장례·묘제의 요소와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문화가 중층적(重層的)이고 모자이크상으로 침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기존의 풍습을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고 그라데이션을 이루면서 점차 ‘야요이화(彌生化)’해 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요이문화 형성기 전후의 세세한 한일 교류의 모습을 실증해 나가기 위해 한일 양 지역에서의 기초 자료의 집성·비교가 요구될 것이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유적』.

_____, 2007, 『거제 농소 유적』.

경남대학교 박물관, 2013, 『창원 덕천리』, 경남대학교박물관 학술조사 보고 제23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마산 진동 유적I』,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 연구보고서 제66책.

_____, 2009, 『김해 율하리 유적II』,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연구보고서 제75책.

경상대학교 박물관, 2011, 『사천 본촌리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147책.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 토진리 유적』.

김재원·윤무병, 1967, 「五. 황석리 유적」, 『한국 지석묘 연구』, 국립박물관.

김현, 2003, 「4. 사천 이금동 무문시대 목관에 대한 검토」, 『사천 이금동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진주 호탄동 선사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보고서 제60집.

武末純一·平郡達哉, 2009, 「日本 支石墓를 둘러싼 諸問題」, 『거제 대금리유적 고찰편』, 경남고고학연구소.

심봉근, 1979, 「일본 지석묘의 일고찰」, 『부산사학』3.

_____, 1989, 「일본 미생문화 초기의 마제석기에 대한 연구」, 『영남고고학』제6호, 영남고고학회.

이영문, 2004, 『한국 지석묘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이흥종·박성희·이희진, 2004, 『마전리유적-C지구-』,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총서 제18집.

정한덕·이재현, 1998, 「남해안지방과 구주지방의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한국민족문화연구』 12권 12호.

창원대학교 박물관, 1995, 『함안 오곡리 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학술조사보고 제9책.

최종규·안재호, 1983, 「신촌리 분묘군」, 『중도IV 진전보고』, 국립중앙박물관.

平郡達哉, 2006, 「경남지역 무문토기시대 관외부장행위에 대한 일고」, 『석헌정징원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논총간행위원회.

_____, 2011, 「남한지역 출토 가지무늬토기에 대한 기초적 연구」, 『영남고고학』57, 영남고고학회.

_____, 2013, 『무덤 자료로 본 청동기시대 사회』, 서경문화사.

[일본어]

橋口達也, 1995, 「墓制の变化(1)」, 『彌生文化の成立』, 角川書店.

_____, 1997, 「(1)福岡県」,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的研究』,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7a,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的研究』.

_____, 1997b, 「長崎県天久保支石墓の調査」,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綜合的研究』,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 宮本一夫, 2001, 「第4章大友支石墓の変遷」, 『佐賀県大友遺跡一彌生墓地の発掘調査一』, 九州大學大学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 , 2012, 「彌生移行期における墓制から見た北部九州の文化受容と地域間關係」, 『古文化談叢』第67集, 九州古文化研究會.
- 宮本一夫編, 2001, 『佐賀県大友遺跡』考古學資料集16, 九州大學大学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 , 2003, 『佐賀県大友遺跡II』考古學資料集30, 九州大學大学院人文科學研究院考古學研究室.
- 端野晋平, 2001, 「支石墓の系譜と伝播様態」, 田中良之編『彌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九州大學大学院比較社會研究院基層構造講座.
- , 2003, 「支石墓伝播のプロセス-韓半島南端部・九州北部を中心として-」, 『日本考古學』16, 日本考古學協會.
- , 2015, 「近年の彌生時代開始期墓制論の検討」, 『古文化談叢』第74集, 九州古文化研究會.
- , 2018, 『初期稲作文化と渡来人』すいれん舎.
- 大庭孝夫, 2000, 「北部九州における縄文晩期～彌生前期の墓制」, 『彌生の墓制(1)』, 第48回埋藏文化財研究集會 發表資料集.
- , 2002, 「北部九州における木棺墓の展開-裏込・棺台に石を使用するものを中心に-」, 『究班』II, 埋藏文化財研究會.
- 埋藏文化財研究集會編, 2000, 『彌生の墓制(1)』第48回埋藏文化財研究集會發表資料集.
- 武末純一, 1982, 「有柄式石剣」, 『末盧國』, 唐津湾周辺遺跡調査委員會編, 六興出版.
- , 2004, 「彌生時代前半期の暦年代」,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一』,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 福岡市教育委員會・岡三リビック(株)埋藏文化財調査室, 2005, 「雑鮎隈遺跡5」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868集.
- 福永伸哉, 1985, 「彌生時代の木棺墓と社會」『考古學研究』第32卷第1号 考古學研究會.
- 山崎頼人, 2009, 「武器の副葬のはじまり」, 『地域の考古學 佐田茂先生佐賀大學退任記念論文集』, 佐田茂先生論文集刊行會.
- 森貞次郎, 1969, 「彌生文化形成期の支石墓」, 『金載元博士回甲紀年論集』.

- 西谷正, 1997, 「日本列島の支石墓」,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総合的研究』, 九州大學考古學研究室.
- 小田富士雄, 1991, 「5 墓制 [2]西日本 北部九州を中心に」, 『日韓交渉の考古學』, 六興出版.
- 安樂勉, 1997, 「(3)長崎縣」, 『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総合的研究』,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 岩崎二郎, 1980, 「北部九州における支石墓の出現と展開」, 『鏡山猛先生古希記念古文化論叢』, 鏡山猛先生古希記念論文集刊行會.
- 栗田茂敏, 2000, 『大淵遺跡』松山市文化財調査報告書77, 松山市教育委員會・松山市生涯学習振興財団埋藏文化財ビック.
- 田中良之, 2001, 「彌生時代における日韓の埋葬姿勢について」, 『彌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 九州大學.
- 中村大介, 2006, 「彌生時代開始期における副葬習俗の受容」, 『日本考古學』第21号, 日本考古學協會.
- , 2009, 「彌生時代開始期の木棺墓」, 『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會論集, 出土木器研究會.
- 佐原眞, 1975, 「農業の開始と階級社会の形成」, 『岩波講座日本歴史1 原始および古代1』, 岩波書店.
- 坂本嘉弘, 2000, 「九州における縄文時代後・晩期の葬制」, 『彌生の墓制 (1)』, 第48回埋藏文化財研究集會發表資料集.
- 平郡達哉, 2014, 「列島における支石墓の受容と変容」, 『平成26年度瀬戸内海考古學研究會第4回公開講座予稿集』, 瀬戸内海考古學研究會.
- , 2017, 「日本列島出土磨製石剣再考-縄文時代晩期~彌生時代前期の資料を中心に-」, 『島根考古學會誌』第34集, 島根考古學會.
- , 2019, 「韓半島南部地域青銅器時代の埋葬姿勢に関する覚書」, 『花園大學考古學論叢』III, 花園大學考古學研究室.
- , 2020a, 「彌生時代開始期の墓制」, 『新・日韓交渉の考古學-彌生時代-(最終報告書論考編)』.
- , 2020b, 「日本列島における磨製石剣の受容形態について」, 『柳本照男さん古希記念論集-忘年之交の考古學-』.

- 下條信行, 1991, 「石製武器」, 『日韓交渉の考古學 彌生時代編』, 六興出版.
- , 1994, 「瀬戸内海の有柄式磨製石剣の諸問題」, 『社會科學研究』第28号, 社會科學研究會.
- , 2014, 「第五章生産具(磨製石器)からみた初期稲作の担い手」, 『列島初期稲作の担い手は誰か』, すいれん舎.
- 後藤直, 2000, 「朝鮮青銅器時代」, 『季刊考古學』第70號, 雄山閣.

발표 4

中国东北石棚与 晋州地区支石墓比较研究

华玉冰

中國 辽宁大学

中国东北石棚与晋州地区支石墓比较研究

华玉冰 | 中国 辽宁大学

以晋州为中心,存在着一个支石墓分布相对密集的区域,所见都属于“棋盘型”或“盖石型”的。同时,又发现定居村落遗址,与支石墓存在的年代有重合,表明青铜时代这里的人类有稳定的定居生活。

在中国东北,与支石墓类似的石棚分布范围仅限于辽河以东,西流松花江以南,图们江、鸭绿江以西,南至海的范围内,这一区域可称为“辽东”。辽东石棚的类型,粗略可分为石棚墓与盖石墓两种,两者共同特征是都有巨大的顶石。其中石棚墓指墓室高出原来地表的,类似“桌子型”支石墓。盖石墓的墓室建于地表以下,类似“盖石型”支石墓。石棚墓与盖石墓各有各的分布中心,又有交错分布的情况,表明两类墓葬的拥有者各有核心区,又可以混居。

晋州与中国辽东相隔很远,两地的同类墓葬有相似之处,但也有很大的不同。从石筑墓葬的形态及相关遗物的共性特征等方面看,其相似性的形成原因比较复杂,既有文化传播的因素,也有人群往来的背景。

以下就两地区相关遗存的联系与区别简单谈谈看法,希望能对复原“晋州青铜器时代风景”提供借鉴。

一、形态观察

晋州地区发现很多支石墓地。从各墓地的墓葬分布状态看有诸多特点:个别有围绕一座墓葬呈环状分布的,如内村里所见;但成排分布的居多,如贵谷洞大村等。就单体墓葬来说:有的占地面积较小,盖石覆盖了整个墓室,比如贵谷洞大村1号等;有的拥有很大的范围,见有方形或圆形的墓域,盖石不能覆盖整个墓域,如晋州大坪里1号,大坪里玉房5号等,有的还有明显的域界,如耳谷里17号、30号等。从个体墓葬内

部形态看: 有的为规整的石棺, 如内村里1-5号等; 有的以石块围出大致的范围, 如耳谷里30号等; 有些支石墓地周边有石棺墓, 如大坪里10号等¹⁾。

支石墓存在上述不同的原因, 可能与不同时期社会形态与丧葬意识发生了变化有关, 也可能是同时期个人的身份等级不同所造成的。

辽东地区石棚墓集中见于辽东半岛及辽北吉南地区。有的单独存在, 壁石裸露, 如盖州石棚山石棚等; 也有墓地, 多成排分布, 外观上看和盖石型支石墓类似, 只是墓室建于地表之上, 封石堆较高, 如盖州伙家窝堡石棚墓地²⁾等。上述类型的墓葬在晋州地区没有发现。

辽东地区盖石墓的顶石都是扁平的, 不像棋盘型支石墓那样有巨大的块石。目前没有见到顶石下面有小块石作为支石的情况, 大多都是顶石直接盖在墓室之上, 与晋州地区的一些支石墓情况类似。盖石墓地基本都是成排分布的, 较典型的例子是本溪新城子大片地墓地³⁾, 目前没有发现环状分布的。盖石墓年代较早的占地面积较小, 盖石可以覆盖整个墓室, 如凤城东山盖石墓地⁴⁾; 也有的拥有很大的范围, 多为圆形墓域, 如新宾旺清门龙头山盖石墓⁵⁾等, 年代都很晚。个体墓葬内部有的为土坑, 有的为石棺, 也有棺范围不清楚的, 如桓仁冯家堡子盖石墓等。总体看, 墓室为土坑、石棺的年代较早, 墓室范围不清晰用块石堆砌的出现年代晚, 这一点与晋州地区的支石墓发展序列是一致的。

辽东石棚墓地也发现有石棺墓的现象, 如双房墓地⁶⁾, 但个别石棺是因为盖石被破坏的原因造成的, 原本是盖石墓。

1) 国立罗州文化财研究所: 《韩国支石墓》, 2012年。

2) 许玉林: 《辽宁盖县伙家窝堡石棚发掘简报》, 《考古》1993年9期。

3)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等, 《辽宁本溪县新城子大片地青铜时代墓地发掘》, 《考古》, 2010年9期。

4) 许玉林、崔玉宽: 《凤城东山大石盖墓发掘简报》, 《辽海文物学刊》1990年2期。

5) 肖景全、李荣发等: 《新宾旺清门镇龙头山石盖墓》, 《辽宁考古文集》二, 科学出版社, 2010年。

6) 许明纲、许玉林: 《新金双房石棚和石盖石棺墓》, 《辽宁文物》1980年1期

许明纲、许玉林: 《辽宁新金双房石盖石棺墓》, 《考古》1983年4期

许玉林、许明纲: 《新金双房石棚和石盖石棺墓》, 《文物资料丛刊》1983年7期。

二、遗物比较

晋州地区支石墓中有诸多具有自身特点是遗物,如石剑等,在辽东地区是不见的。而有些遗物尽管和辽东地区同类遗物有相似性,但未必完全是相互影响的结果,有些明显源自本地早期文化,有些是通过其他地区间接传入,极少直接源自辽东。

(一) 陶器

晋州地区支石墓出土陶器基本是无纹饰的,这也是韩半岛支石墓出土遗物的特点。

在中国,进入青铜时代以来,各地生活用陶器绝大多数都有纹饰,只有辽东是个例外。辽东的无纹陶器主要见于与石棚有关的遗存,也有非石棚类遗存。两地间这种陶器的共性文化特征何时形成?原因是什么?值得深入探讨。

从无纹陶器形态看,辽东与韩半岛较类似的有以下几种。

1. 筒形陶器

在韩半岛无纹陶器众多器种中,最普遍、最早出现、流行时间最长的是深钵形陶器。在晋州大坪里玉房2地区发现的居住址中也比较多见⁷⁾。多存在底部周围用手指押塌,外形似带有圈足的情况。

中国辽东地区,类似陶器被称为筒形罐,是新石器时代普遍发现的器类。青铜时代主要见于图们江流域的兴城—柳庭洞文化,其他文化极少见。兴城—柳庭洞文化中虽然没有发现石棚,但在邻近地区以石棚墓葬为主的宝山文化中也能见到类似陶器。

兴城文化以吉林和龙兴城遗址⁸⁾命名,清理了21座房址,这也是辽东青铜时代诸考古文化中唯一发现有成批、成排房址分布的聚落址。各房屋面积多在30平方米左右,均为圆角长方形斜坡状深地穴式,居住面规整,内有灶址,多无门道,推测是用梯子出入的。生活陶器以筒形罐为主,还有鼓腹罐、瓮、钵、碗等。测年数据集中在公元前19—前17世纪,个别晚至公元前12世纪。在吉林延吉长白县新龙⁹⁾发现有属于该文化

7) 庆尚大学校博物馆研究丛书第20辑:《晋州大坪里玉房2地区先史遗迹》。

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和龙兴城—新石器及青铜时代遗址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1年。

9) 侯莉闽:《吉林延边新龙青铜墓葬及对该遗存的认识》,《北方文物》1994年3期。

的墓地,清理了8座墓葬,为多人、多次火葬,顶部铺砌数层石块,随葬陶器只有钵、杯两种。

柳庭洞文化是以吉林延吉柳庭洞遗址¹⁰⁾命名的,陶器多直口或敞口,无卷(折)沿,平底。以筒腹罐、钵为大宗,鼓腹罐、豆、假圈足碗等数量较少。早期陶器素面无耳,晚期绝大多数陶器的口沿下置有对称的乳丁状小耳。早期年代与兴城文化接续,晚期遗存延续至公元前3世纪前后。

兴城—柳庭洞文化在辽东一直是独立发展的,很少受到其他文化影响。在朝鲜东北部会宁五洞、雄基松坪洞和西浦项等地也有发现有相关遗存,它们应属同一种文化。

韩半岛北部新石器时代文化中平底深钵形器比较发达,南部则多为圜底器。至青铜时代较早时期,在支石墓及相关遗址中,普遍发现的陶器几乎都是平底深钵形器,但西北朝鲜的平安南道、黄海道除外。由此可以推测,这类器物的出现并非受某特定文化的影响,只是与兴城—柳庭洞文化更具有一致性而已。值得注意的是,兴城文化墓葬顶部遍铺石块,与某些支石墓形态极为接近,只是没有顶石。

2. 高领敞口壶

在晋州大坪里1号居住址中,出土有高领垂腹有彩文的壶,还有一种高领、鼓腹、磨光的素面壶。类似的两种壶在辽东马城子—新城子文化中都有发现。

马城子文化以辽宁本溪的一批洞穴墓¹¹⁾命名,主要分布于辽东北部至鸭绿江中下游地区,有火葬习俗,随葬陶器以罐、壶、碗类为主,相关遗址材料缺乏。墓葬测定数据集中在两个阶段,年代较早的约在公元前19—前17世纪,较晚的在公元前14—前10世纪左右。晚期出现了石棺墓,偶见有盖石墓。

在马城子文化新宾东升洞穴墓¹²⁾中发现一种“茄子纹”陶壶,与“彩文壶”的图案较为相像。中国东北目前仅见这一处地点发现此类遗物,在韩半岛却比较多见,这种技术的传播关系尚不明确。

10) 延边博物馆:《吉林延吉柳庭洞发现的原始文化遗存》,《考古》1983年第10期。

11) 辽宁省考古研究所等:《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遗存》第282页,文物出版社,1994年。

12) 抚顺市博物馆等:《辽宁新宾满族自治县东升洞穴古文化遗存发掘整理报告》,《北方文物》2002年1期。

新城子文化以辽宁本溪东营坊镇新城子村发现的一处盖石墓地¹³⁾得名,分布范围较大,在辽东北部、辽北地区都有发现,墓葬形式为石棺墓、盖石墓,典型随葬陶器为壶与钵的组合,上限年代与马城子文化接续,下限年代不详。

新城子文化标志性陶器为弦纹壶,在西北朝鲜鸭绿江下游至清川江一带也有发现,称为美松里型陶器,清川江下游平安南道价川郡墨房里支石墓随葬品中也有类似的器形。可见两地文化的联系是很密切的。

其实,与弦纹壶共存还有一种素面壶,也是新城子文化的特色陶器,与晋州大坪里出土者极为类似,可能也有文化联系。

3. 赤色高领展沿壶

韩国支石墓或石棺墓中普遍发现赤色研磨陶器,可分为矮领与高领两种。主要见于临津江以南的韩国范围内,在晋州地区也有较多的发现。

从陶器的造型与制作技术看,在辽东石棚分布区内基本不见,却与辽东周边两种青铜文化的同类器物相像。

其一是辽河平原区的高台山文化,流行年代为公元前20—前12世纪前后。发现长方形半地穴式和圆形地面式房屋,墓葬均为长方形土坑竖穴墓。居址和墓葬出土陶器不同,居址所出陶器有少量细砂质红衣陶,墓葬所出陶器以夹细砂红褐陶为主,火候较高,器表常施红色陶衣,其中某类壶具有赤色陶器风格。

其二为松嫩平原区的小拉哈文化、白金宝二期文化、白金宝文化、汉书二期文化。4种文化属同一谱系,先后承接。前三种均发现有居住址,为方形、圆角方形的半地穴式建筑。其中以黑龙江肇源县小拉哈遗址第二期遗存¹⁴⁾为代表的小拉哈文化,年代为公元前20—前15世纪,居址出土陶器多黄褐色,出土有类似韩半岛发现矮领的壶。白金宝文化年代约为公元前12—前8世纪,房址规模较大,内部还有分区,墓葬为长方形土坑竖穴墓,多系年龄不同的异性多人二次合葬,大多不用葬具。陶器以砂质黄褐陶为主,居址出土的展沿束颈高领壶,与韩国支石墓出土者接近。

13)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馆、本溪县文物管理所:《辽宁本溪县新城子青铜时代墓地》,《考古》2010年9期。

14) 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等:《黑龙江肇源县小拉哈遗址发掘简报》,《北方文物》1997年第1期;《黑龙江肇源县小拉哈遗址发掘报告》,《考古学报》1998年第1期。

上述两种文化炊器都是鬲, 陶器种类很多, 与韩国支石墓出土同类器物的相似性只能解释为某种技术或器形的相互借鉴, 也许是各自创造的。

4. 叠沿罐与粘土带陶器

在韩半岛支石墓中, 有把口沿部加厚加固成双重口沿的陶器类, 主要分布在平安南道和黄海道, 这一区域不见深钵形陶器。较晚时期, 在韩半岛发现“粘土带陶器”, 口沿部肥厚、断面呈圆形, 主要分布在中部的汉江流域及以南。

在辽东, 双重口沿类陶器主要见于青铜时代的伙家窝堡—双房文化, 以石棚墓为主。在马城子文化早期遗存中也有发现, 更早的可以追溯至新石器时代晚期的北沟文化。

辽宁盖州九寨镇三道河子村伙家窝堡¹⁵⁾调查发现石棚20多座, 发掘了5座, 为火葬。石棚内发现的随葬品多在铺底石的周边, 出土遗物有石斧、石凿、石镞、石镰、双重口沿筒形陶罐、陶壶等, 年代较早。稍晚时期, 这种双重口沿的陶罐在辽河平原、辽西山地都有发现。

“粘土带陶器”出现较晚, 较早见于“郑家洼子青铜短剑墓”, 年代约公元前8世纪前后。

上述广泛见于辽东、辽西的遗物都与“短茎柱脊组合柄铜剑”遗存有关, 韩半岛出土的相关遗物应与上述文化传播有关。

(二) 铜器

韩半岛与辽东共有的铜器主要有“短茎柱脊组合柄铜剑”、“几何纹铜镜”、“双胡戈”等。但两地完全一样的不多, 韩半岛同类器有自己的发展序列, 并影响到日本。以下重点说明一下短茎柱脊组合柄铜剑。

这类剑分布以中国辽宁为中心, 北至黑龙江省南部, 最远达内蒙古呼伦贝尔盟鄂温克旗; 西至努鲁尔虎山以西, 西南越燕山达河北中部。

在朝鲜的平安南道、平壤、黄海南道、平安北道、黄海北道, 韩国的全罗南道、庆尚北道、庆尚南道、京畿道、忠清道、江原道等地都有发现。

15) 许玉林:《辽宁盖县伙家窝堡石棚发掘简报》,《考古》1993年9期。

对这种铜剑起源时间,中国学者一般笼统地认为是在公元前10—前8世纪。起源地通常有辽西、辽东两种看法,我个人依据沈阳北崴遗址的最新发现认为起源于辽河平原区的可能性更大。这类剑在辽东消失的时间,大约在公元前3世纪前后。

韩半岛发现的东北系铜剑几乎涵盖了辽东所见同类剑除了最早与最晚的各个型式,分布地域也并非很有规律。有学者认为它们可能是由辽东带过去的,有这种可能性。

三、晋州地区青铜时代社会图景

以中国辽东的考古发现看晋州地区支石墓的社会,可以得出如下几点看法,供讨论。

1. 长时期稳定的社会生活

以辽东石棚乃至中国北方的考古发现看,文化传统的长久保持,是社会稳定的重要体现。

几乎整个青铜时代,韩国都主要流行“棋盘型”“盖石型”支石墓。尽管不同时期使用的陶器、铜器组合有所区别,但大体保持了文化转变的同步性。如此大范围文化传统的一致性,表明其具有共同的社会意识,这也是政治统一的基础与标志。

稳定的社会生活还体现在居住聚落的反复使用与农业经济的发展等方面,在晋州区域也是很突出的。

在中国东北,类似晋州地区社会生活状况的是辽西地区的夏家店下层文化。其聚落址的房屋反复重建,有的房屋在一个地方重复兴建近十次,生活用品、生产工具、丧葬习俗似乎都是标准化的,延续时间达5个世纪。研究者认为,那里存在一个独霸一方的国家。尽管这个文化与韩国青铜文化的关联不大,但可作为社会状况研究的借鉴。

2. 多元的文化交流与借鉴

在中国东北,青铜时代至少有7个不同的文化小区,各区域文化有不同的来源与发展序列,或多或少地都有文化交流。文化转变也具有同步性,主要受到了中国中原与北方文化格局改变的影响,其中东北南部的辽西山、辽河平原、辽东半岛、辽东山区受到的冲击较大,导致文化面貌发生了几次改变。

上述4个区域的文化, 不同时期对韩半岛文化产生过不同的影响, 影响的范围也不同。其中西北朝鲜、鸭绿江下游地区与辽东半岛、辽东山地地域相邻, 文化上一直有联系, 文化面貌转变的时间也大体一致。公元前8世纪以后, 辽河平原、辽西山地区的文化因素在韩半岛也有很多发现。考虑到社会背景, 不排除有人员往来。公元前3世纪前后, 这种人员迁徙的程度更大。

值得注意的是, 中国东北上述4个区域的周边, 还存在着松嫩平原、西流松花江、图们江流域3个文化小区, 都存在稳定的定居生活, 在公元3世纪以前都是独立发展的, 并形成了自身的文化传统, 与韩半岛的文化同样有交流。其中图们江流域的文化是跨国界的, 是沟通辽东与韩半岛文化的重要桥梁。

3. 晋州支石墓与辽东石棚的关系

在中国辽东, 不同地域、不同时期、不同族群的石棚形态是有差异的, 葬俗及随葬陶器也有区别, 与晋州地区乃至整个韩国支石墓的差别更大, 属于不同的考古文化。相同点是都以巨石盖顶为标志, 使用无纹陶器。

在中国东北, 自新石器时代以来就有使用石构墓葬的传统, 从距今9000余年的黑龙江小南山到距今5000年前后的红山文化都是如此, 辽东半岛目前也发现有新石器时代晚期的积石墓。进入青铜时代以来, 在东北地区存在石构墓葬与非石构墓葬两种不同的葬俗, 似乎与不同的族群有关联。

从崇尚巨石的角度考察, 青铜时代两地使用支石墓与石棚的人群早期在思想意识方面可能更为接近, 其后走向了各自的发展道路。可惜, 目前有关辽东石棚的居住址一个都没有被发掘过, 调查工作也极少, 无法进行深入比较。

중국 동북지방 석봉(石棚)과 진주지역 지석묘 비교 연구

华玉冰 | 中國 辽宁大学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석묘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모두 ‘기반형(基盤型)’ 또는 ‘개석형(盖石型)’에 해당한다. 또한 정착촌락유적도 함께 확인되는데 지석묘가 있었던 시기와 중복되어 청동기시대에 이곳에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했음을 보여준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지석묘와 유사한 석봉(石棚)의 분포범위는 동쪽으로는 요하지역, 서쪽으로는 송화강 이남지역과 두만강 및 압록강 이서지역, 남쪽으로는 바다에 인접한 요동지역으로 국한된다. 요동지역의 석봉의 유형은 크게 ‘탁자식(石棚墓)’과 ‘개석식(盖石墓)’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유형의 공통점은 거대한 덮개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탁자식(石棚墓)은 무덤방(墓室)이 원래 지표면 위에 있는 것으로 ‘탁자형(桌子型)’ 지석묘와 유사하다. 개석식(盖石墓)은 무덤방이 지표면 아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개석형(盖石型)’ 지석묘와 유사하다. 탁자식과 개석식이 각각 집중 분포되어 있거나 서로 교차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두 유형의 무덤 주인이 따로 모여 살기도 했고, 함께 살기도 했음을 나타낸다.

진주지역은 중국 요동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지역의 무덤은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석축묘(石筑墓)의 형태와 관련 유물의 공통적인 특징 등을 볼 때 유사성이 형성된 원인으로는 문화전파 또는 인적 교류와 같은 요인들이 있다.

다음은 두 지역의 관련 유적의 관계와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였으며, 이 내용들이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형태 관찰

진주지역에서 지석묘가 많이 확인되는데 무덤군의 분포양상에서 여러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내촌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하나의 무덤을 중심으로 환상형으로 분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귀곡동 대촌 등과 같이 열상으로 분포하는 것이 있다. 단독 무덤의 경우 귀곡동 대촌 1호처럼 면적이 작아서 덮개돌로 무덤방 전체를 덮은 것도 있고, 진주 대평리 1호와 대평리 옥방 5호 등과 같이 방형 또는 원형의 묘역을 가지며 면적이 넓어서 덮개돌로 묘역 전체를 덮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곡리 17호와 30호와 같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는 것도 있다. 단독 무덤의 내부 형태를 보면 일부는 내촌리 1~5호와 같이 정연한 형태의 석관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는 이곡리 30호처럼 돌을 둘러싸아 대략적인 범위가 확인되는 것도 있고, 대평리 10호¹⁾처럼 지석묘 주변으로 석관묘가 있는 것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지석묘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시기의 사회형태와 장례의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기 개인의 신분 차이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요동지역의 석봉묘는 요동반도와 요녕 북부의 길림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일부는 가이저우시 스펡산(盖州市 石棚山)의 석봉과 같이 벽석이 노출된 채 단독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대부분 열지어 분포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개석식 지석묘와 유사하지만 가이저우시 휘자위바오(盖州市 伙家窝堡)의 석봉묘²⁾처럼 무덤방이 지표면 위에 만들어져 막음돌이 높이 세워져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무덤은 진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녕지역 개석묘의 덮개돌은 기반형 지석묘처럼 거대한 돌이 아닌 편평한 형태이다. 현재 덮개돌 아래에 지석으로 파악되는 작은 돌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 무덤방 위에 덮개돌이 바로 올려져 있어 진주지역의 지석묘와 유사한 형태이다. 개석묘는 기본적으로 줄지어 분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예로 번시시 신청쯔(本溪市 新城子)의 광활한 지역에 있는 무덤³⁾으로 현재 환상(環狀) 분포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개석묘는 평청시 동산(凤城市 东山)의 개석묘⁴⁾와 같이 규모가 작아서 덮개돌이 무덤방

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 지석묘』

2) 许玉林, 《辽宁盖县伙家窝堡石棚发掘简报》, 《考古》, 1993年9期.

3)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等, 《辽宁本溪县新城子大片地青铜时代墓地发掘》, 《考古》, 2010年9期.

4) 许玉林、崔玉宽, 《凤城东山大石盖墓发掘简报》, 《辽海文物学刊》1990年2期.

전체를 덮을 수 있으며, 신빈 왕칭먼진 룡터우산(新宾 旺清门镇 龙头山)의 개석묘⁵⁾처럼 시기가 늦은 것들은 규모가 크고 대부분 원형의 묘역을 가진다. 단독 무덤의 내부는 일부는 토갱(土坑), 일부는 석관이며, 일부는 환인 평자바오쯔(桓仁 冯家堡子)의 개석묘처럼 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덤방이 토갱과 석관으로 된 것이 이른 시기의 것이고, 무덤방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돌을 쌓아 만든 것은 비교적 늦은 시기의 것이다. 이는 진주지역 지석묘의 발달 순서와도 일치한다.

쌍방무덤(双房墓)⁶⁾ 과 같이 요동의 석봉묘도 석관묘가 있는 형태로 확인되었지만 석관은 덮개돌이 파손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개석묘이다.

II. 유물 비교

진주지역의 지석묘에는 석검과 같이 요동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적인 유물이 많다. 일부 유물은 요동지역의 유물과 유사하지만 이것을 완전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는 볼 수 없으며, 일부는 이른 시기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확실하나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간접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극히 일부만 요동지역에서 전해진 것이다.

1. 토기(陶器)

진주지역의 지석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기본적으로 문양이 없으며, 이것은 한반도 지석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은 청동기시대 이후 각 지역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토기에 문양이 있으나 요동지역은 예외이다. 요동지역에서 문양이 없는 토기는 석봉과 관련된 유물에서 확인되나 석봉과 관련 없는 유물도 있다. 두 지역 간 토기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징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5) 肖景全、李荣发等,《新宾旺清门镇龙头山石盖墓》,《辽宁考古文集》二,科学出版社,2010年。

6) 许明纲、许玉林,《新金双房石棚和石盖石棺墓》,《辽宁文物》1980年1期。

许明纲、许玉林,《辽宁新金双房石盖石棺墓》,《考古》1983年4期。

许玉林、许明纲,《新金双房石棚和石盖石棺墓》,《文物资料丛刊》1983年7期。

무문토기의 형태로 볼 때 요동지역과 한반도의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통형토기(筒形陶器)

한반도의 무문토기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여 널리 사용되어 가장 많고 오랫동안 유행했던 것이 심발형토기이다. 이는 진주 대평리 옥방2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저부 가장자리에 손으로 누른 흔적이 많고⁷⁾, 권족(圈足)과 같은 형태이다.

중국 요녕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토기를 통형관(筒形罐)이라 부르며, 이것은 신석기시대에 주로 확인된다. 청동기시대에는 주로 두만강유역의 싱청(兴城)-류팅동(柳庭洞) 문화에서 발견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싱청(兴城)-류팅동(柳庭洞) 문화는 석봉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에 석봉묘가 주를 이루는 바오산(宝山) 문화에서 유사한 토기가 확인된다.

싱청문화(兴城文化)는 길림(吉林) 허룽 싱청유적(和龙 兴城遗址)⁸⁾에서 명명된 것으로 주거지 21기가 조사되었는데,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고고문화 중 유일하게 주거지가 밀집분포하고 있는 취락유적이다. 각 주거지의 면적은 30㎡ 내외가 많고,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깊이가 깊은 수혈식으로 주거면이 정연하고 노지가 있으며, 출입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토기는 통형관(筒形罐)이 중심이고, 고복관(鼓腹罐), 옹(瓮), 발(钵), 완(碗) 등도 있다. 연대측정값은 기원전 17~19세기가 중심이고, 일부 기원전 12세기의 것도 있다. 길림의 연길(延吉) 장백현(长白县) 신룡(新龙)⁹⁾에서 이 문화에 속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8기의 무덤을 확인해보니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을 화장하였으며, 정부(顶部)에 여러 겹의 돌을 깔고 발(钵)과 배(杯) 토기 2점만 부장하였다.

류팅동 문화(柳庭洞文化)는 길림 연길 류팅동유적(柳庭洞遗址)¹⁰⁾에서 명명된 것으로 토기는 대부분 바닥이 평평하고, 동체에서 구연까지 직립한다. 대부분 통복관(筒腹

7) 庆尚大学校博物馆研究丛书第20辑:《晋州大坪里玉房2地区先史遗迹》。

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和龙兴城—新石器及青铜时代遗址发掘报告》,文物出版社,2001年。

9) 侯莉闽,《吉林延边新龙青铜墓葬及对该遗存的认识》,《北方文物》1994年3期。

10) 延边博物馆,《吉林延吉柳庭洞发现的原始文化遗存》,《考古》1983年10期。

罐)과 발(鉢)이고, 고복관(鼓腹罐), 두(豆), 가권족완(假圈足碗) 등의 수는 적다. 초기의 토기에는 외면에 귀가 없고, 말기의 토기에는 구연부 아래쪽에 대칭으로 젓꼭지 모양의 작은 귀가 있다. 초기에는 싱청 문화(興城文化)가 계속 이어졌고, 말기는 기원전 3세기 전후까지 지속되었다.

싱청(興城)-류팅동(柳庭洞) 문화는 요동지역에서 다른 문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한반도 동북지역의 회령 오동, 웅기 송평동 및 서포항 등지에서도 관련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동일한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북부지역 신석기시대 문화는 바닥이 평평한 심발형토기가 비교적 많으며, 남부에서는 바닥이 둥근 형태의 토기가 대부분이다. 이때부터 청동기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지석묘와 관련된 유적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토기는 대부분이 바닥이 평평한 심발형토기이지만, 한반도 서북지역인 평안남도, 황해도는 예외이다. 이를 통해 토기의 출현은 특정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싱청(興城)-류팅동(柳庭洞) 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흥성 문화(興城文化) 무덤 정부(頂部)에 돌이 여러 겹 깔려 있는데 덮개돌이 없는 것만 빼면 지석묘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고령창구호(高領敞口壺)

진주 대평리 1호 주거지에서 구연부가 넓고 동체부에 채색된 문양이 있는 호와 구연부가 넓고 동체부가 불룩하며 무늬가 없고, 표면에 마연하여 광택을 낸 호가 출토되었다. 두 종류의 호는 요동 마청쯔(馬城子)-신청쯔(新城子) 문화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다.

마청쯔(馬城子) 문화는 요녕(遼寧) 번시(本溪)의 동굴무덤(洞穴墓)¹¹⁾에서 명명한 것으로 요동 북부에서 압록강 중하류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화장(火葬)하는 풍습이 있으며, 관(罐), 호(壺), 완(碗)이 주로 부장되거나 관련된 유적의 자료가 부족하다. 무덤 측정 연대는 기원전 17~19세기와 기원전 10~14세기 경 두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늦은 시기에는 석관묘가 출현하고, 간혹 개석묘가 확인된다.

11) 辽宁省考古研究所等,《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遗存》第282页, 文物出版社, 1994年.

마청쯔(馬城子) 문화 유적지의 신빈(新賓) 동승(东升) 동굴무덤(洞穴墓)¹²⁾에서 일종의 “가지무늬(茄子紋)” 호형토기가 확인되었는데, “채문호”와 양상이 비슷하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이곳에서만 이 유물들이 확인되지만 한반도에서는 많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기술의 전파와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신청쯔(新城子) 문화는 요녕(辽宁) 번시(本溪)의 동영팡진(東營坊鎮) 신청쯔촌(新城子村)에서 확인된 개석묘¹³⁾에서 명명되었고, 요동 북부와 요녕 북부지역에 걸쳐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며, 무덤의 형태는 석관묘, 개석묘이고, 부장되는 토기는 호(壺)와 발(鉢)의 조합이 전형적이다. 상한연대는 마청쯔(馬城子) 문화와 연결되고 하한연대는 알 수 없다.

신청쯔(新城子)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는 현문호(弦紋壺)로 한반도 서북지역인 압록강에서 청천강 일대에서 확인되며, 미송리형(美松里型) 토기라 부른다. 청천강 하류역 평안남도 개천군(价川郡) 묵방리지석묘(墨房里支石墓)에 부장된 토기 중에도 이와 유사한 토기가 있다. 이로 보아 두 지역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현문호(弦紋壺)와 동시기에 존재했던 토기는 문양이 없는 호형토기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쯔(新城子) 문화의 특색을 가진 토기로 진주 대평리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유사하여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3) 적색고령전연호(赤色高嶺展沿壺)

한국의 지석묘나 석관묘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데 목이 짧은 것과 긴 것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임진강 이남의 한국(남한) 내에서 확인되며, 진주지역에서도 많이 확인된다.

토기의 형태와 제작기법으로 볼 때, 요동의 석봉 분포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요동 주변의 두 청동기문화권에 속하는 동일한 형태의 토기와 유사하다.

첫째는 요하(辽河) 평원지역에서 기원전 12~20세기 전후로 유행하기 시작한 고태산(高台山) 문화이다. 장방형의 반지하 동굴식과 원형 지면식 가옥이 확인되었고, 무덤은 장방형의 수혈토갱묘이다. 주거지와 무덤에서는 다른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주거지에서

12) 抚顺市博物馆等,《辽宁新宾满族自治县东升洞穴古文化遗存发掘整理报告》,《北方文物》2002年1期。

13) 辽宁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馆、本溪县文物管理所,《辽宁本溪县新城子青铜时代墓地》,《考古》2010年9期

출토된 토기는 소량의 고운 모래가 섞인 붉은 색의 토기이고,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는 고운 모래가 섞인 적갈색의 토기이다. (구울 때) 불의 온도를 높이고 토기 표면에 붉은색을 칠하며, 그 중에서 특정 호는 적색호형토기의 형태를 띤다.

둘째는 쑹넨평원(松嫩平原)지역의 소랍합 문화(小拉哈文化), 바이진바오 2기 문화(白金宝二期文化), 바이진바오 문화(白金宝文化), 한수2기 문화(汉书二期文化)이다. 이 4개의 문화는 동일한 계보에 속하고, 차례대로 계승되었다. 앞의 3개는 방형과 말각방형(圓角方形)의 반지하수혈식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흑룡강 자오위안현(肇源縣) 소랍합유적 제2기유물¹⁴⁾은 소랍합 문화를 대표하며, 연대는 기원전 15~20세기로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황갈색이고, 한반도에서 출토된 단경호와 유사하다. 바이진바오 문화(白金宝文化)의 연대는 기원전 8~12세기로 주거지의 규모가 크고 내부는 구획되어 있으며, 무덤은 장방형 토갱수혈묘로 연령과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2차로 합장되어 있고, 장구(葬具)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토기는 모래가 섞인 황갈색 토기가 주를 이루며, 주거지에서 출토된 전연속경고령호(展沿束颈高领壶)는 한국의 지석묘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상기 두 문화권의 조리도구(炊器)는 렉(鬲)으로 토기류가 많고, 한국 지석묘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유사하나 기술이나 기형을 서로 참조했거나 각자 발전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4) 첩연관(疊沿罐) 및 점토대토기

한반도의 지석묘 중에서 구연부에 (점토피)를 두텁게 덧붙여 구연부를 이중으로 만든 토기는 주로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분포하며, 이 일대에서는 심발형토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말기에 이르러 한반도에서 “점토대토기”가 확인되었는데 구연부는 두텁고 단면은 원형으로 주로 한반도 중부지역인 한강유역과 이남에 분포한다.

요동에서 이중구연토기는 청동기시대 휘자위바오(伙家窩堡)-쌍팡(双房) 문화의 석봉묘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마칭쯔(馬城子) 문화 초기유물 중에서도 확인되며, 그 이전으로는 신석기시대 말기의 베이저우 문화(北沟文化)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4) 黑龙江省文物考古研究所等:《黑龙江肇源县小拉哈遗址发掘简报》,《北方文物》1997年第1期;《黑龙江肇源县小拉哈遗址发掘报告》,《考古学报》1998年第1期。

요녕 개주(盖州) 주자이진(九寨镇) 싘다오허촌(三道河村) 휘자위바오(伙家窩堡)¹⁵⁾를 조사한 결과 석봉 20여기가 확인되었고, 그 중 5기는 화장묘이다. 석봉 내에서 출토된 부장품은 대부분 바닥석 주변에서 확인되었고, 돌도끼(石斧), 돌끌(石凿), 돌자귀(石镰), 돌화살촉(石镞), 이중구연통형토기, 호형토기 등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보다 늦은 시기에는 이러한 이중구연토기는 요하평원과 요서산지에서도 확인된다.

“점토대토기”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했는데, 가장 이른 시기는 “정자와쓰청동단검묘(郑家洼子青铜短剑墓)”이고, 연대는 기원전 8세기 전후이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은 요동, 요서지역의 유물에서 확인되며, “단경주척조합병동검(短茎柱脊组合柄铜剑)”유적과 관련이 있고, 한반도에서 출토된 관련 유물은 이 문화의 전파와 연관성이 있다.

2. 청동기

한반도와 요동지역에서 공유되었던 청동기는 주로 “단경주척조합병동검(短茎柱脊组合柄铜剑)”, “기하문동경(几何纹铜镜)”, “쌍호과(双胡戈)”등이다. 하지만 두 지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많지 않고, 한반도와 유사한 것은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단경주척조합병동검(短茎柱脊组合柄铜剑)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형태의 검(剑)은 중국 요녕지역을 중심으로 북으로 흑룡강성 남부와 가장 멀리는 네이멍구 후룬베이얼맹 어원커(内蒙古呼伦贝尔盟鄂温克) 자치구까지 이르며, 서쪽으로는 누루얼후산(努鲁尔虎山) 서쪽, 남서쪽으로 옌산(燕山)을 지나 하북지역 중부까지 이른다.

북한의 평안남도, 평양, 황해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남한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청동검의 기원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8~10세기로 보고 있다. 기원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요서와 요동으로 보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개인적으

15) 许玉林: 《辽宁盖县伙家窝堡石棚发掘简报》, 《考古》1993年9期。

로 심양(沈阳) 북외(北威)유적의 최근 발견을 토대로 요하평원지역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유사한 검은 요동에서 기원전 3세기 즈음 사라진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동북계 청동검은 요동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이른 형식과 가장 늦은 형식을 제외하면 일정한 분포지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요동지역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III. 진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사회상

중국 요동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진주지역의 지식묘 사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

요동지역의 석봉과 중국 북부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볼 때, 문화적 전통의 장기적인 유지는 사회적 안정을 말해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한국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전 시기에 “기반형”과 “개석형” 지식묘가 유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기에 사용된 토기와 청동기의 조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문화적 변화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큰 범위에서 문화적 전통의 일관성은 그 당시의 공동사회 의식이 있었음을 나타내주며, 이는 정치적 통합의 기반이나 상징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은 주거지의 반복 사용과 농업 경제의 발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진주지역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대체로 문화적 변화와 동시대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큰 범위에서 문화적 전통의 일관성은 그 당시 공동사회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정치적인 통합의 기반이자 상징이기도 했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은 거주취락의 반복사용과 농업경제의 발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진주지역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중국 동북부지역에서 진주지역과 유사한 사회생활상은 요서지역의 샤자덴 상층 문화(夏家店下层文化)이다. 이 취락유적의 주거지는 반복해서 만들어졌으며, 일부 주거지는

한 곳에서 10여 차례 정도 반복해서 만들어졌다. 생활용품, 생산도구, 장례풍습이 거의 표준화되어 약 5세기동안 지속되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단일 지배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화와 한국 청동기시대 문화는 연관성이 거의 없지만,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다양한 문화 교류 및 학습

중국 동북부지역은 청동기시대에 적어도 7개의 상이한 문화공동체가 있었고, 각 지역의 문화는 상이한 기원과 발전경로를 가졌거나 어느 정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 문화접변도 동시기성을 가진다. 이는 주로 중국 중원지역과 북방지역 문화의 변화에서 주로 영향을 받았고, 이 중에서 동북부와 남부지역의 요서산맥, 요하평원, 요동반도, 요동산맥 일대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아 문화면에서 몇 차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위에서 언급한 4개 지역의 문화는 동시기는 아니지만 한반도 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을 미쳤던 범위도 다르다. 그 중에서 한반도 서북부와 압록강 하류지역은 요동반도, 요동산맥과 인접하여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문화접변이 있었던 시기도 대체로 동일하다. 기원전 8세기 이후, 요하평원과 요서산맥지역의 문화적 요소가 한반도에서도 많이 확인된다.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 인적 왕래를 배제할 수 없다. 기원전 3세기 전후 사람들의 이주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 동북부의 상기 4개 지역 주변에 송년평원(松嫩平原), 서쪽에 흐르는 송화강, 두만강유역과 같은 3개의 문화구역이 있는데 모두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했고, 서기 3세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고유의 문화전통을 형성했으며, 한반도 문화와 모두 교류가 있었다. 그 중에서 두만강유역의 문화는 국경 너머 요동지역과 한반도 문화를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

3. 진주지역 지식묘와 요동지역 석봉의 관계

중국 요동지역은 지역, 시대, 민족에 따라 석봉의 형태와 매장 풍습 및 부장된 토기가 다르다. 이는 진주지역 및 한반도 전체에 이르는 지식묘와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고고학적 문화권에 속한다. 동일한 점은 모두 거대한 덮개돌로 표시되고, 무늬가 없

는 토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신석기시대부터 돌로 무덤을 만들어 매장하는 전통이 있는데 9,000여년 전 흑룡강 소남산(小南山)부터 5,000년 전후 홍산 문화(紅山文化)까지 모두 동일하며, 요동반도는 지금까지도 신석기시대 말기의 적석묘가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동북지역에 돌로 만든 무덤(石构墓葬)과 돌을 사용하지 않은 무덤(非石构墓葬)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장례풍습이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민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석 숭배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청동기시대에 두 지역에서 지석묘와 석봉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초기에 의식면에서 더욱 가까웠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각자 발전했을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 요동지역에서 석봉과 관련된 주거지는 발굴된 적이 없고, 조사된 바가 거의 없어 심층 비교는 불가능하다.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발표 5

Jinju Bronze Age Culture in a World Archaeology Context

Jack Dave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inju Bronze Age Culture in a World Archaeology Context

Jack Davey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troduction

As the archaeology of the Korean peninsula has grown in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the Bronze Age has proved to be a fruitful period for exploring concepts of social development on the peninsula. Within this, Jinju and the broader Nam River region of which it is a part, has yielded a remarkable amount of data and has been integral in enriching our knowledge not just of the Korean Bronze Age but also for examining the idea of social complexity in world archaeology.

Looking broadly, there are to my mind two main ways that researchers have connected Jinju and the Nam River Bronze Age to larger discourses within world archaeology and usefully compared the region to geographically and temporally distant case studies. First, methods, models, and theoretical frameworks generalized from anthropological archaeology elsewhere have been applied to the Korean case and assessed for their suitability to the unique dataset of the peninsula. In these cases, extrinsic methodologies are applied to enrich our understanding and explain the Korean Bronze Age more fully.

Perhaps the most persistent example of this is the use of anthropological concepts of social evolution to describe Bronze Age society in terms of tribes and chiefdoms. Our understanding of the Bronze Age has also been enriched by the injection of sophisticated methodologies ranging from structuralism (Kim Jongil 2011) to game theory (B. Kim 2015). While we can disagree on the utility of any single study or the goodness of fit of a particular model to the

Korean data, there is no doubt that this approach has been absolutely vital for the continued dynamism of the field.

Second, Jinju and peninsular Bronze Age data and secondary scholarship can be introduced into ongoing discourses in world archaeology to contribute to broader questions of social development, subsistence, craft production, technology, and culture contact (Kim Pŏmchŏl 2011). Again, this is an approach that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by many studies since Korean archaeology was introduced to western archaeological audiences in the 60s, 70s, and 80s by pioneering scholars like Kim Weollyong, Choe Mongryong, and Kim Jeongbae.

Interestingly, within the past two decades, it has been Jinju Bronze Age material that is most frequently used in studies of this kind and in fact it is Jinju and Nam River archaeology that informs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Bronze Age in English-language scholarship to a large extent. Jinju material from sites like Daepyeong have been used to understand the social context of craft production (Bale and Ko 2006), storage practices (Bale 2011), households and the gendered use of space (Lee 2019), and human environmental exploitation and resource use (Kim and Yun 2011). Nam River material is also integral to larger studies of the Bronze Age and Songguk-ri culture that pioneer new and innovative methodological techniques (H.B. Kim 2019). In other words, Jinju Bronze Age archaeology is already significantly outward looking in its approach and has a comparatively large influence western anthropological archaeological discourse.

As an international scholar of Korean archaeology, I often feel torn between these two approaches; with my less granular knowledge of Korean data is my time better spent trying to contribute something new to our understanding of ancient society on the peninsula or should I focus my efforts more on introducing Korean data to my disciplinary peers working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In other words, there is frequently a tension between trying to

contribute to Korean archaeology discourse or demonstrating the value and utility of Korea as a case study in western academia. Ideally, these approaches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in practice research is not carried out in a vacuum and the logistical constraints of writing for a particular audience are a major consideration when embarking on a new research project.

Here, since I am not a Bronze Age specialist, I do not feel qualified to discuss the utility of applying western models to the Jinju and Nam River Bronze Age context. Thus, the central question of this paper is: how can internationally-minded scholars of Korean archaeology successfully demonstrate how Korea can become not just an interesting case study but a site of theory generation for world archaeology? More specifically, how can the Jinju Bronze Age contribute to, or even generate, discourses in western anthropological archaeology?

I begin by discussing the pitfalls and structural reasons Korean archaeology often fails to make an impact internationally before making the case for why the English-language archaeological establishment urgently needs the Korean perspective. I then outline several interrelated theoretical topics within English-language scholarship for which I think the Jinju Bronze Age is uniquely suited to contribute to: technology, agency, materiality, and identity. While this paper i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a relative amateur when it comes to the Korean Bronze Age and Nam River region archaeology, it is hoped that it can serve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scholars working in this region and period wishing to further broaden Jinju's reach in the global archaeological discourse.

Why the western archaeological establishment needs Korea

Studies that attempt to introduce Korean archaeology beyond the peninsula and East Asia often fail to make an impact in the larger context of western archaeology dominated by English-speaking scholars and Korea remains an understudied region. This is partially the result of many projects falling into the same pitfalls. For instance, in-depth secondary studies are often presented without localization and it is not always clear what a non-Korean specialist should take away.

International scholars of Korean archaeology also run into the limitations of using Korea as a case study or comparative example. Korean material is presented and explained as an example of a heuristic concept like a chiefdom, plugged into a model like peer polity interaction, or shown to be similar or dissimilar to other regions. While this makes Korea broadly relevant as a comparative data point, researchers do not always take the next step of demonstrating how Korea enriches, challenges, or forces a reassessment of broader concepts. As a result, non-specialists of Korea fail to take notice. Fitting or simply comparing Korean development to existing models is unlikely to generate discourse in world archaeology.

A much larger reason, however, is the structural problems within archaeology as a discipline, particularly the segment of world archaeology represented by English-language scholarship and focused around major research institutions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As discussed by many scholars both within and at the margins of this academic community, western archaeology (particularly the anthropologically-inflected archaeology practiced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Canada) rests on colonialist and imperialist foundations that still exert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practice today (Daniel 1964; Ucko 1987; Lyons and Papadopoulos 2002; Trigger 2009; Kehoe 2013; Griffiths et al 2023).

This has resulted in a Euro-centric frame of reference that both creates a myopic focus on the west in scholarship, but also strongly affects interpretation of non-western regions by western archaeologists. While there are ongoing attempts to understand and redress this within western academic archaeology¹⁾, there remains a persistent ignorance of regions like Korea and a chauvinistic discounting of the intellectual communities and scholarly production of these regions.

This has been a problem for East Asian archaeology as a whole in its quest to be recognized as a valid field comparable in sophistication and potential to European, North American, and Meso and South American subfields of archaeology. It is only within the past few decades that East Asian archaeology has gained some measure of co-equality within western archaeology (Falkenhausen 2023), and this has been largely through the building of a transnational community of Chinese, Taiwanese, Korean, Japanese, Mongolian, and western scholars working in the region that is simply too large to ignore.

Given these systemic limitations, it is even more imperative that Korean archaeological communities like the one represented by Jinju Bronze Age researchers be introduced to English-language academia. The intellectual trajectory and perspective of Korean archaeology is unique. It integrates a wide variety of external intellectual tradi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hinese historical tradition, Japanese positivistic and social archaeologies, and decades of western anthropological archaeological theory. At the same time, it generates its own models, terminology, and style of doing archaeology while also pioneering new archaeometric techniques.

Within this, Jinju and the Nam River Bronze Age occupies a significant place. As other scholars have pointed out, Jinju has produced a uniquely robust corpus

1) Including movements and approaches that seek to integrate feminist and indigenous perspectives into archaeological research.

of Bronze Age sites with large datasets (B. Kim 2015). There is an abundance and granularity of data as well as secondary studies, especially related to craft production. The Bronze Age of the Nam River region also occupies a unique place within Bronze Age Korea that has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Middle Bronze Age Songguk-ri cultural phenomenon. Finally, as evidenced by this conference, Jinju represents 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search community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a wider conversation.

Potential contributions of Jinju to the archaeology of technology

Given these advantages, there are any number of ways Jinju archaeology can be more prominently integrated into western anthropological archaeology. Here I outline an area where the potential of Jinju Bronze Age material is particularly strong: within ongoing discussions regarding technology, agency, and identity.

Early formulations of technology in processual archaeology isolated the technological sphere as one associated with natural processes and rationality in decision-making and in contrast to the social and ideological realms of human experience (Binford 1962). In early processual studies and even in prior work by V. Gordon Childe, research hewed closely to the so-called standard view of technology (SVT) that reifies technology in purely utilitarian and functional terms and that it developed to respond to specific needs. As a rational endeavor, technology also inevitably evolves over time to become more efficient.²⁾

Jinju and Nam River archaeology can certainly be approached from this framework. Studied in this way, technological advances in ceramic and stone

2) See discussion in Brezine (2011) and Pfaffenberger (1992).

object production for instance facilitated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an early agricultural society. Nevertheless, patterns within Jinju Middle Bronze Age production of so-called prestige goods like polished groundstone daggers and greenstone ornaments also begin to show us the limits of this approach in terms of what it can actually tell us about the society surrounding the technology and production systems. And so, it would seem that new and more encompassing definitions of technology are necessary to explain this.

Similarly, English-language discussions of technology have moved away from the SVT. In its place, new definitions of technology have emerged that are influenced by French sociological thinkers and are focused around the idea of techniques or technical gestures (Mauss 2006; Kittler 2013; Leroi-Gourhan 1993) and practice theory (Bourdieu 1977). In these formulations,³ technology is conceived of as a social practice; a socially embedded and embodied phenomenon that should be a consideration for any realm of human social experience. As characterized by Jannis Kozatsas, the study of technology in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went “from *objects to processes*; from *reification and fetishisation to material social practice* (Kozatsas 2020:26, emphasis original).” While this can lead to an expansive, and perhaps unhelpfully vague, definition of what technology is, researchers working in this vein often point to the necessity of technology to mediate humans and their natural world, thus limiting what we can usefully define as a technology or technological system (Pfaffenberger 1992; Flad 2023).

This reorientation has gone hand-in-hand with the anti-anthropocentric turn in archaeology and its emphasis on materiality or the agency of things in human-object or human-environment interactions (Meskell 2001; Ingold 2007; Bauer and Kosiba 2016). Methodologically, the reorientation towards technology as social practice has led to fruitful considerations of the role of

3) Most prominently articulated in the work of Pierre Lemonnier (1992), Brian Pfaffenberger (1992), and Marcia Ann Dobres (2000).

gesture, practice, and the *chaîne opératoire* in our understanding of particular technologies.

Despite this theoretical shift, however, Euro-centric conceptions of technology remain in this framework and East Asian case studies are underrepresented among socially-embedded approaches to technology.⁴⁾ Additionally, there are many areas where the implications of technology have not been fully thought through. For example, studies of the role of technology and the social context of prestige good production rarely go beyond the idea of a prestige economy and the idea of technological change and innovation (and particularly how this can happen in the context of culture contact) are not fully developed (Flad 2023).

The Jinju Bronze Age is well-placed to interrogate these issues. As has been discussed, the Nam River/Jinju assemblage of beads suggests that craft specialization was related to production of prestige goods rather than ordinary commodities (Bale and Ko 2006; B. Kim 2015). As a central place and focus of craft production in the Middle Bronze Age then, the region can intervene directly on the issue of prestige goods and their role beyond an economic and prestige good context.

Following the model established by Bale and Ko (2006), emerging elites did not have control over the production of so-called prestige goods at sites like Daepyeong-ri. Production was accomplished instead by part-time specialists and these goods were consumed in central and communal spaces for ceremonial activities. Part-time specialists and elites employed a variety of different corporate and network strategies within this model to legitimize themselves while also emphasizing group-oriented ceremonies that minimized the appearance of social differentiation.

4) But see prominent counterexamples by Bale and Ko (2006), Flad (2017, 2023) and Lee Hsiu-ping (2018).

This contradicts many expectations of technology and prestige good production and, as explored by Bale and Ko and others, is in and of itself significant in the context of world archaeology. This insight can be taken further, however, by looking beyond the economic context or elite strategies implied by the distribution of craft production to see craft production, finished objects, and the consumption of these objects in ceremonial arenas as part of a larger socially-embedded technological system. Following Arthur's (2009) conception of technological domains, craft production and finished objects are predicated on existing technologies and exist within a nested hierarchy of technologies from various domains. But unlike the technological objects and domains isolated by Arthur and other studies, Jinju craft production at Daepyeong and other sites also extends to the ritual, political, and symbolic realms. Groundstone daggers, greenstone ornamentation, and other objects like red-burnished pottery can be seen as part of multiple socio-technological domains (craft production, ritual, political aggrandizement, trade and interaction) and enrich our understanding of what a technology even is. Additionally, the objects themselves are a nested hierarchy of other technological processes.

Jinju Bronze Age craft production is also a fertile ground for testing and considering ideas of technology from wholly different disciplines like the literary materialism of media studies. Working from the idea of cultural techniques, German media theorists like Frederick Kittler (2013) and later scholars of literary materiality (Peters 2015, Siegert 2015) emphasize that the technological medium of literary production itself grounds and constrains what one is able to produce with writing as well as the evolution of a writing system itself. The practice (operations or operative sequences) come first and higher order concepts come second. Spun out more broadly, this is the idea that humans and technology co-evolve. Given the fact that craft production was intricately connected to ceremony and political legitimization in the

Nam River region, it is potentially a vital case study for investigating the implications of this idea. How were rituals constrained by the production of ritual objects themselves? How were ideas of political aggrandizement shaped by the systems and structures of the production of prestige goods?

Finally, Jinju can serve as a way to explore technology and culture contact. One of the most compelling concepts generated by Korean Bronze Age archaeology has been the identification of Songguk-ri culture and the many studies that have tried to trace its origin and spread outwards from western Korea. As a non-core region that nonetheless adopted many aspects of Songguk-ri culture by the Middle Bronze Age, the Nam River region is poised to upend our understanding of how technology spreads and evolves along with other aspects of society in culture-contact scenarios. Aspects of Songguk-ri culture such as craft production, subsistence strategies, and social organization can be usefully conceptualized as a technology. While the exact nature of this cultural transition is much debated, the connection between this uneven adoption of Songguk-ri material culture and craft production in Jinju pointed out by H.B. Kim (2019:159) further solidifi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and the potential of the Nam River region to upend ou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Ultimately, socially-embedded technology as well as insights from media studies advocate for a reorientation; an analysis of how craft technologies and the distribution of finished productions does not simply reflect social organization or elite strategies, but how this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system impacted the structure of Bronze Age society in Jinju and the Nam River region. Jinju is one of the few regions where the granularity and breadth of data exists to undertake an analysis of this kind.

Conclusion

As a vibrant research area within Korean Bronze Age archaeology, the Jinju region is poised to further and deepen Korean archaeology's engagement with western and world archaeological theory. Beyond serving as an interesting case study or a testbed for existing models, Korean data can proactively generate new theory that enriches our understanding of Bronze Age societies throughout the world. It is hoped that this paper has demonstrated one potential vector for this engagement in the form of archaeological discourses surrounding technology. Ultimately, however, it is not any single study that will force English-language researchers to see the value of Korean data. Rather, it will take the sustained efforts of the broader archaeological community in Korea as well as initiatives to make these efforts available and digestible to a wider audience.

Bibliography

- Bale, M. T. (2011). *Storage Practices, Intensive Agriculture,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2903-2450 Calibrated Years B.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Bale, M. T., & Ko, M.-J.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45(2), pp.159–187.
- Binford, L. R. (1962). Archaeology as Anthropology. *American Antiquity*, 28, pp.217–225.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zine, J. C. (2011). *Dress, Technology, and Identity in Colonial Peru*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Daniel, G. (1964). *The Idea of Prehistory*. Penguin.
- Dobres, M.-A. (2000). *Technology and Social Agency: Outlining a Practice Framework for Archaeology*. Blackwell Publishers.

- Falkenhausen, L. von. (2023). Afterword. In A. Hein, R. Flad, & B. K. Miller (Eds.), *Ritual and Economy in East Asia: Archaeological Perspectives* (pp. 365–371).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Press.
- Flad, R. K. (2023). Long-Distance Influences and Local Adop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ate Prehistoric Northwest China. In *Ritual and Economy in East Asia: Archaeological Perspectives* (pp. 199–224).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Press.
- Griffiths, S., Carlin, N., Edwards, B., Overton, N., Johnston, P., & Thomas, J. (2023). Events, narrative and data: Why new chronologies or ethically Bayesian approaches should change how we write archaeology.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23(2), pp.173–192.
- Kehoe, A. (2013). ‘Prehistory’s’ history. In P. Schmidt & S. Mrozowski (Eds.), *Death of Prehistory* (pp. 31–46).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B. (2015).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Bronze Age: Archa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Transition from the Early to Middle Bronze Age,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s*, 54(1), pp.144–184.
- Kim, H. B. (2019). *An Emic Investigation on the Trajectory of the Songgukri Culture During the Middle Mumun Period (2900-2400 Cal. BP) in Korea: A GIS and Landscape Approach*. University of Oregon.
- Kim Chongil. (2011). Han'guk sŏnsa sidae yŏsŏng kwa yŏsŏngsŏng 韓國 先史時代 女性과 女性性. *Han'guk kogo hakpo* 韓國考古學報78, pp.5–28.
- Kim, M., & Yun, H. (2011). The availability and use of wood resources at the multi-period settlement site of Pyeonggeo-dong, Jinju, South Korea. *Vegetation History and Archaeobotany*, 20(1), pp.67–77.
- Kim Pŏmch'ŏl. (2011) Tongbuk Asia che chiyŏk ch'ogi pokhap sahoe pigyo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Tongbukayoksa nonch'ong* 동북아역사논총, 33, pp.251-300.
- Kittler, F. A. (2013). There is No Software. In E. Bulter (Trans.), *The Truth of the Technological World: Essays on the Genealogy of Presence* (pp. 219–229).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zatsas, J. (2020). *The Dialectic of Practice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Tool: Philosophy, Archaeology and the Anthropology of Technology*. Archaeopress Publishing Ltd.

- Lee, R. (2019). Gendered Spaces and Prehistoric Households: A Geospatial Analysis of Mumun Period Pithouses from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s*, 58(1), pp.74–94.
- Lemonnier, P. (1992). *Elements for an Anthropology of Technology*.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 Leroi-Gourhan, A. (1993). *Gesture and Speech* (A. B. Berger, Trans.). MIT Press.
- Lyons, C. L., & Papadopoulos, J. K. (Eds.). (2002). *The Archaeology of Colonialism*. Getty Publications.
- Mauss, M. (2006). *Techniques, Technologie et Civilisation* (N. Schlanger, Ed.) Berghahn.
- Peters, J. D. (2015). *The Marvelous Clouds: Toward a Philosophy of Elemental Med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faffenberger, B. (1992). Social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pp.491–516.
- Siebert, B. (2015). *Cultural techniques: Grids, filters, doors, and other articulations of the real* (G. Winthrop-Young, Trans.). Fordham University Press.
- Trigger, B. G. (2009).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cko, P. J. (1987). *Academic Freedom and Apartheid: The Story of the World Archaeological Congress*. Duckworth.

세계 고고학적 맥락에서 검토한 진주 청동기문화

Jack Davey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서론

한반도의 고고학 연구가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청동기시대는 한반도의 사회적 발전 개념을 연구하기에 좋은 시대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주지역과 남강유역은 상당한 양의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전세계 고고학계가 사회적 복잡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검증해볼 수 있는 지식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넓게 보면 진주지역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를 전세계 고고학의 더 폭넓은 담론과 연결시키고 지리적,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례들과 이 지역을 유용하게 비교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떠오른다. 첫째, 다른 지역의 인류고고학에서 일반화한 방법, 모델, 이론 프레임워크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고 한반도가 가진 독특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외재적 방법론들이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우리 이해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활용된 사례이다.

이에 대한 가장 지속적인 예는 인류학적인 사회적 발전의 개념을 사용하여 청동기시대 사회를 부족과 족장사회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일이다. 청동기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구조주의(structuralism)(김종일 2011)에서 게임이론(game theory)(B. Kim 2015)에 이르는 정교한 방법론들로 더욱 활발해지기도 했다. 한 연구의 유용성 또는 특정 모델의 한국 자료에 대한 적합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이 분야의 지속적인 활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진주지역과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자료와 2차 연구를 전세계 고고학계에 소개하여 사회발전, 생계, 수공업품 생산, 기술, 문화접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담론에 기여할 수 있다(김범철 2011). 마찬가지로, 이 접근법은 한국 고고학이 서구 고고학계에 소개된 이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김원룡, 최몽룡, 김정배 등의

선구적 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흥미롭게도 지난 20년 간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가장 흔하게 사용된 것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자료로, 영어권 학자들에게 한국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것은 대체로 진주와 남강유역에 대한 고고학 연구였다. 진주 대평리유적 등에서 출토된 자료는 수공업품 생산(Bale and Ko 2006), 저장 관습(Bale 2011), 가정 및 공간의 성 구분(Lee 2019), 인간의 환경 및 자원 이용(Kim and Yun 2011)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남강유역의 자료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론적 기법을 사용한 청동기시대 및 송국리 문화에 대한 연구에도 필수적이었다(H.B. Kim 2019). 다시 말하면,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연구는 이미 상당히 외부를 향해 열려 있으며, 서구의 인류고고학 담론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 고고학에 대한 국제적 학자로서 발표자는 종종 이 두 접근법 간에 갈등을 느낀다. 한국 자료에 대한 발표자의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한반도의 고대 사회의 이해에 새로운 무언가를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한국 자료를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료 학자들에게 소개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한국 고고학 담론에 기여하려는 노력과 서구 학계에서 사례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의 가치와 유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간의 긴장이 자주 발생한다. 이상적으로는 이 두 접근법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겠지만, 실제 연구는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는 특정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제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발표자는 청동기시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 모델을 진주지역과 남강유역 청동기시대의 맥락에 적용하는 것의 효용에 대해 논의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국제적 관점을 가진 한국 고고학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이 그저 흥미로운 사례연구가 아니라 세계 고고학을 위한 이론 생성의 터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주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가 서구 인류고고학의 담론에 기여하거나 심지어 새로운 담론을 생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먼저 한국 고고학이 국제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실수와 구조적 이유들에 대해 논의하고, 영어권 고고학계가 한국의 관점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이유

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 다음으로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어권 학계의 상호 연관이 있는 이론적 주제 몇 가지를 제시한다. 기술, 행위(agency), 물질성, 정체성이다. 이 글은 한국의 청동기시대와 남강유역의 고고학에 대해 상대적인 아마추어의 관점에서 쓴 것이지만 이 지역과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며, 진주지역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 고고학적 담론의 영역에서 더 뻗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왜 서구 고고학계에서 한국(고고학) 연구가 필요한가?

한국 고고학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선 곳으로 소개하려는 시도는 종종 영어권 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서구 고고학의 더 큰 맥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은 아직 연구가 덜 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는 일정부분 많은 프로젝트들이 공통된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도 있는 2차 연구들이 세분화없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 고고학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고고학에 대한 국제적 연구자들도 한국을 하나의 사례 연구 또는 비교 예시로 사용하는 한계를 부딪치게 된다. 한국 자료는 족장사회와 같은 휴리스틱 개념(heuristic concept)의 한 예시로 제시되고 설명되며, 대등한 정치체 상호작용(polity interaction)과 같은 모델에 끼워지거나,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다른 예시로 제시된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을 비교 자료로서 상대적 가치를 갖게 해주지만 연구자들은 한국이 어떻게 더 폭넓은 개념들을 풍성하게 하고, 도전하고, 재평가를 강요하는지 입증하는 그 다음 단계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한국 비전문가들은 한국을 눈여겨보지 못한다. 한국의 발전을 기존의 모델에 맞추거나 단순 비교하는 일로는 세계 고고학 담론을 생성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훨씬 더 큰 이유는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로, 특히 영어권 학자들과 북아메리카 및 서유럽의 주요 연구소들로 대표되는 전세계 고고학 부문의 구조적 문제다. 이들 커뮤니티 내부와 그 주변부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논의했듯이

서구 고고학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의 인류학적 경향이 있는 고고학) 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기반 위에서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반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Daniel 1964; Ucko 1987; Lyons and Papadopoulos 2002; Trigger 2009; Kehoe 2013; Griffiths et al 2023).

이는 학계에서 서구에만 근시안적 초점을 맞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구 고고학자들의 비서구 지역에 대한 해석에 큰 영향을 주는 유럽 중심의 준거기준으로 이어졌다. 서구 고고학계 내에서 이를 이해하고 시정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¹⁾, 한국과 같은 지역에 대한 지속된 무지와 이러한 지역들의 지적 공동체와 학문적 결과물에 대한 우월주의적 평가절하가 남아있다.

이는 동아시아 고고학 분야 전체가 유럽, 북아메리카,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고고학의 하위분야인 고고학에 견줄 만큼 정교함과 잠재력을 가진 가치 있는 분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왔다. 동아시아 고고학이 서구 고고학 내에서 일정 수준의 동등성을 가지게 된 것은 겨우 지난 몇 십 년 내의 일이며(Falkenhausen 2023), 이는 주로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몽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연구하는 서구 학자들로 구성된 초국가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시스템적 한계를 고려할 때 진주 청동기시대 연구자들로 대표되는 한국 고고학 커뮤니티를 영어권 학계에 소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한국 고고학의 지적 궤도와 관점은 독특하다. 한국 고고학계는 중국의 역사적 전통, 일본의 실증주의적 사회 고고학, 수십 년 전통의 서구 인류고고학 이론 등 다양한 외부의 지적 전통을 통합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고고학계는 자체적 모델, 용어, 연구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고고학적 기법을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진주지역과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진주지역은 독특하게 청동기시대 유적의 대규모 자료를 생산해냈다(B. Kim 2015). 수공업품 생산과 같이 풍성하고 세부적인 자료와 2차 연구들이 있다.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는 한국 고고학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중기 송국리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1) 고고학 연구에 페미니스트 및 토착민의 관점을 통합하려는 운동과 접근법들 포함.

이 학술대회를 통해 입증하듯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은 더 광범위하고 역동적이며 외부를 향해 열려 있는 연구 커뮤니티이다.

기술 고고학에 대한 진주지역의 잠재적 기여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했을 때 진주지역의 고고학이 서구 인류고고학에 더욱 눈에 띄게 통합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여기에 나는 기술, 행위(agency), 정체성과 관련된 지속된 담론 내에서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자료의 잠재력이 특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제시한다.

과정 고고학(processual archaeology)의 기술에 대한 초기 이론은 기술 영역을 인간 경험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영역과 대비되는 자연적 과정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리시켰다(Binford 1962). 초기 과정 고고학과 심지어 V. Gordon Childe의 이전 연구는 기술을 순전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구체적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었다는 소위 기술에 대한 표준적 관점(SVT, standard view of technology)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합리적 노력으로써의 기술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하게 된다.²⁾

물론 진주지역과 남강유역 고고학 연구를 이러한 체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하면 도자기와 석기 생산의 기술적 진보는 예를 들어 초기 농업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제석검과 옥 장신구 같이 소위 청동기시대 중기 위세품의 생산 패턴은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둘러싼 사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의 관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기술에 대한 새롭고 더 광범위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기술에 대한 영어권의 논의도 SVT로 부터 멀어져 왔다. 대신 프랑스 사회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술 또는 기술적 제스처라는 아이디어(Mauss 2006; Kittler 2013; Leroi-Gourhan 1993)와 실천이론(Bourdieu 1977)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다. 이러한 이론³⁾에서 기술은 사회적 실천으로, 인간

2) Brezine(2011)과 Pfaffenberger(1992)의 논의 참고

3) Pierre Lemonnier(1992), Brian Pfaffenberger(1992), Marcia Ann Dobres(2000)의 작업에서 가장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의 사회적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Jannis Kozatsas의 표현대로 인류학과 고고학에서 기술에 대한 연구는 “물체에서 과정으로, 사물화와 물질사회승배에서 물질적 사회적 실천으로(Kozatsas 2020: 26, 강조 표시 원문 그대로)” 옮겨갔다. 이는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어찌면 쓸데없이 모호한 정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사조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인간과 자연 세계를 매개할 기술의 필요성을 종종 지적하며, 따라서 우리가 기술 또는 기술 시스템이라고 유용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Pfaffenberger 1992; Flad 2023).

이러한 방향 설정은 고고학 내에서 인간중심적 기조에 반대하는 사조와 인간-물체 또는 인간-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물들의 물질성 또는 행위(agency)에 대한 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Meskell 2001; Ingold 2007; Bauer and Kosiba 2016). 방법론적으로 사회적 실천으로써의 기술에 대한 재정의는 특정 기술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련하여 제스처, 실천, 작업연쇄(Chaîne opératoire)의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고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 워크에는 기술에 대한 유럽 중심의 개념화가 남아있고, 동아시아의 사례 연구들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내포 접근법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다.⁴⁾ 게다가 기술이 가지는 함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많은 분야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역할과 위세품 생산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들은 고급 경제(prestige economy)라는 아이디어를 넘어서는 일이 거의 없고, 기술적 변화와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리고 특히 문화접변의 맥락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다(Flad 2023).

Bale과 Ko (2006)가 만든 모델대로, 신진 엘리트층은 대평리와 같은 유적에서 소위 위세품의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았다. 생산은 파트타임 전문가들이 했고, 그러한 유물들은 의례 활동을 위해 중심 공동 공간에서 소비되었다. 이 모델에서 파트타임 전문가들과 엘리트들은 다양한 기업 및 네트워크 전략들을 취하여 스스로에 정당성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차별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집단 중심 의례를 강조했다.

4) 하지만 Bale and Ko(2006), Flad(2017, 2023), and Lee Hsiu-ping(2018)의 반대 사례들도 있다.

이는 기술과 위세품 생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가지는 기대와 상충되며, Bale과 Ko 및 기타 학자들이 연구했듯이 전세계 고고학의 맥락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통찰은 수공업품 생산의 유통이 암시하는 엘리트 전략 또는 경제적 맥락 그 이상을 넘어다봄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수공업품 생산, 최종 생산물, 의례 장소에서의 이러한 생산물들의 소비를 더 큰 사회적으로 내포된 기술 시스템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기술 영역에 대한 Arthur(2009)의 개념에 따라, 수공업품 생산과 최종 생산물은 기존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온 기술들의 위계구조 내에 존재한다. 하지만 Arthur의 연구와 기타 연구들이 분리한 기술적 물건 및 영역들과 달리, 대평리와 그 외 유적에 있는 진주지역의 수공업품 생산은 의식, 정치, 상징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다. 마제석검, 옥 장신구, 그리고 적색마연토기 같은 기타 물건들은 여러 개의 사회-기술적 영역의 (수공업품 생산, 의식, 정치권력 강화, 무역과 상호작용) 일부로 볼 수 있고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물건들은 그 자체로 기타 기술적 과정들의 위계구조이기도 하다.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수공업품 생산은 매체 연구의 문학 물질주의(literary materialism) 같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온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검증하고 고려해보기 좋은 터전이기도 하다. 문화적 기술이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독일 매체 이론가 Frederick Kittler(2013) 같은 사람들과 문학적 물질성에 대한 학자들(Peters 2015; Siegert 2015)은 문학 생산의 기술적 매체 자체가 글쓰기의 생산물과 글쓰기 시스템 자체의 발전의 기반인 동시에 제약이라고 강조한다. 실행(운영 및 운영 순서)이 먼저 오고 상위 개념이 나중에 온다. 더 넓게 말하면 이 아이디어는 인간과 기술이 함께 발전한다는 아이디어다. 수공업품 생산이 의식 및 남강유역의 정치적 타당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면, 이 아이디어의 함의에 대해 조사해 보기 위해 필수적인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의례 활동이 의례 물품 생산에 의해 어떻게 제약 받았는가? 정치권력 강화라는 아이디어가 위세품 생산 시스템 및 구조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마지막으로, 진주지역은 기술과 문화접변을 연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송국리 문화의 발견과 송국리 문화의 기원과 한국 서부에서 시작된 전파 과정을 추적하려 노력한 많은 연구들이다. 비핵심 지역이면서 청동기시대 중기에 송국리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받아들인 남강유역은

문화접변 시나리오에서 기술이 문화의 다른 측면들과 함께 전파되고 발전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집을 수 있다. 수공업품 생산, 생존 전략, 사회 조직 같은 송국리 문화가 가진 측면들은 기술이라고 유용하게 개념화될 수 있다. 이 문화적 전환의 정확한 특성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지만, H.B. Kim(2019: 159)이 지적한 진주지역의 송국리 물질문화와 공예 생산에 대한 불균등한 도입은 기술의 중요성과 이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집을 수 있는 남강유역의 잠재력을 더욱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내포 기술은 물론 매체 연구에서 얻은 통찰들은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수공업품 생산 기술과 완성품 유통이 사회적 구조나 엘리트 전략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생산 및 기술 시스템이 진주지역 및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사회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주지역은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세밀함과 범위를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들 중 하나다.

결론

한국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활발한 연구 지역으로서 진주지역은 한국 고고학계가 서구 및 전세계 고고학 이론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흥미로운 사례 연구나 기존 모델의 시험 장소의 역할을 넘어 한국의 고고학 자료는 전세계 청동기시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 글이 기술을 둘러싼 고고학적 담론의 형태로 이러한 참여를 위해 나아갈 길을 하나 제시했기를 바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의 연구가 영어권 학자로 하여금 한국 고고학 자료의 가치를 알아보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범철, 2011, 「동북아시아 제 지역 초기복합사회 비교」, 『韓國考古學報』33, pp.251-300.
- 김종일, 2011, 「韓國 先史時代 女性 과 女性性」, 『韓國考古學報』78, pp.5-28.
- Bale, M. T. (2011). *Storage Practices, Intensive Agriculture,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2903-2450 Calibrated Years B.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Bale, M. T., & Ko, M.-J.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45(2), pp.159-187.
- Binford, L. R. (1962). Archaeology as Anthropology. *American Antiquity*, 28, pp.217-225.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zine, J. C. (2011). *Dress, Technology, and Identity in Colonial Peru*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Daniel, G. (1964). *The Idea of Prehistory*. Penguin.
- Dobres, M.-A. (2000). *Technology and Social Agency: Outlining a Practice Framework for Archaeology*. Blackwell Publishers.
- Falkenhausen, L. von. (2023). Afterword. In A. Hein, R. Flad, & B. K. Miller(Eds.), *Ritual and Economy in East Asia: Archaeological Perspectives* (pp.365-371).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Press.
- Flad, R. K. (2023). Long-Distance Influences and Local Adop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Late Prehistorical Northwest China. In *Ritual and Economy in East Asia: Archaeological Perspectives* (pp.199-224).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Press.
- Griffiths, S., Carlin, N., Edwards, B., Overton, N., Johnston, P., & Thomas, J. (2023). Events, narrative and data: Why new chronologies or ethically Bayesian approaches should change how we write archaeology.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23(2), pp.173-192.
- Kehoe, A. (2013). 'Prehistory's' history. In P. Schmidt & S. Mrozowski (Eds.), *Death of Prehistory* (pp.31-46).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B. (2015).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the Bronze Age: Archa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Transition from the Early to Middle Bronze Age,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s*, 54(1), pp.144–184.
- Kim, H. B. (2019). *An Emic Investigation on the Trajectory of the Songgukri Culture During the Middle Mumun Period (2900-2400 Cal. BP) in Korea: A GIS and Landscape Approach*. University of Oregon.
- Kim, M., & Yun, H. (2011). The availability and use of wood resources at the multi-period settlement site of Pyeonggeo-dong, Jinju, South Korea. *Vegetation History and Archaeobotany*, 20(1), pp.67–77.
- Kittler, F. A. (2013). There is No Software. In E. Bulter (Trans.), *The Truth of the Technological World: Essays on the Genealogy of Presence* (pp.219–229).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zatsas, J. (2020). *The Dialectic of Practice and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Tool: Philosophy, Archaeology and the Anthropology of Technology*. Archaeopress Publishing Ltd.
- Lee, R. (2019). Gendered Spaces and Prehistoric Households: A Geospatial Analysis of Mumun Period Pithouses from South Korea. *Asian Perspectives*, 58(1), pp.74–94.
- Lemonnier, P. (1992). *Elements for an Anthropology of Technology*. Museum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Michigan.
- Leroi-Gourhan, A. (1993). *Gesture and Speech* (A. B. Berger, Trans.). MIT Press.
- Lyons, C. L., & Papadopoulos, J. K. (Eds.). (2002). *The Archaeology of Colonialism*. Getty Publications.
- Mauss, M. (2006). *Techniques, Technologie et Civilisation* (N. Schlanger, Ed.). Berghahn.
- Peters, J. D. (2015). *The Marvelous Clouds: Toward a Philosophy of Elemental Med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faffenberger, B. (1992). Social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pp.491–516.
- Siebert, B. (2015). *Cultural techniques: Grids, filters, doors, and other articulations of the real* (G. Winthrop-Young, Trans.). Fordham University Press.
- Trigger, B. G. (2009). *A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cko, P. J. (1987). *Academic Freedom and Apartheid: The Story of the World Archaeological Congress*. Duckworth.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토론문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국제학술대회」 토론요지1

이 성 주 | 경북대학교

청동기시대 진주지역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인상적이며 아주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강과 그 지류의 충적 대지와 그에 연결된 곡저면에 형성된 엄청난 규모의 혹은 소규모의 취락과 기념물적인 분묘군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광범위하게 노출되었다. 대평리유적은 발굴된 면적도 대단하거나와 청동기시대 초기부터 축조되어 온 취락의 규모는 국내 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대평리와 평거동 유적의 대규모 경작지, 옥, 석기, 그리고 토기의 생산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 구릉성 취락이라면 수습-불가능했을 부피의 토기군, 특히 토기유물군은 표면 박락이 거의 없어 성형의 작업연쇄를 살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진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발굴과정에서 식물유체의 체계적 수습과 분석을 통한 동아시아 선사 농경 연구, 생산과 저장의 정치경제 고고학, 취락의 가구 고고학적 접근 등 세계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도 진주의 청동기시대 고고학 자료를 기반으로 더 많은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을 비롯한 연구성과들이 생산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배덕환 선생님께서는 진주지역의 청동기시대의 취락을 검토해 주셨다. 취락의 입지와 분포상의 특성에 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고 주요 농경취락에 축조된 시설을 검토하면서 크고 작은 취락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특히 환호를 왜 구축하였는가의 문제를 집단-간의 갈등이 주원인인 것으로 풀어내고 가시권 및 중심지성을 논하면서 경쟁취락 간의 거리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이 흥미로운 논설에 관해서 토론자는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토론을 위해 선생님의 논지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문을 제기하면서 보충 설명을 듣고자 질문드린다. 선생님께서 고상창고라고 이름 붙이셨던 2X2칸 9주식, 그리고 2X?칸, 혹은 1X?칸의 多柱式 지상건물지를 곡식창고로 해석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굴립주건물은 건축의 규모, 기둥의 크기와 배치 등에서 다양한

편이다.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 지상건물지의 존재를 통해 거점취락임을 판정하는 견해도 있고 신진, 혹은 집 모양은 아니더라도 의례적 건조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선생님께서는 남강유역의 충적대지에서 발견되는 굴립주건물들을 모두 곡물창고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위성취락들을 거느린 거점취락과 이웃한 취락군의 거점취락을 경쟁적인 관계로 묘사하셨다. 폭력으로 희생된 주검들과 방어용 환호의 구축을 강조하시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셨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거점취락을 중심으로 뭉친 취락군과 취락군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경쟁만 했던 관계였을까, 또한 그렇게 각 취락군은 이웃의 도움 없이 자급자족했던 집단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취락군과 취락군은 경쟁하고 격리된 집단이 아니라 의례, 생산과 교환, 혼인 등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을까? 혹은 그러한 관계망을 통해 경계를 지운 지역 집단의 규모는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사회집단의 규모와 관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세 번째 발표를 맡아 주신 卞郡達哉 先生님께서서는 한반도 남부와 서일본지역의 매장례를 폭넓게 비교해주셨다. 지식묘는 한반도 남부에서 청동기시대 가장 높은 위계로 발전한 무덤이고 특히 남해안 일원에서 묘역식 지식묘의 축조는 대단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구주지역에 유입된 지식묘는 오히려 축소되고 지식묘의 하부 매장시설의 하나로 사용된 목관묘에 수입된 마제석검이 부장되거나 봉헌되었던 더 상위의 묘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선생님의 발표에 관해서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지식묘와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마연토기는 일견 기형도 한반도 남부의 단도마연토기와 유사하고 마연 수법도 공통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자가 구주 출토 마연호를 직접 관찰한 적은 없지만, 실측도만으로도 그 성형의 작업연쇄는 남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 단도마연토기의 기형과 부장의 아이디어는 확산되었지만, 구주의 마연토기 사용집단은 제작기술을 남한과 공유한 기술적 실천 공동체는 아니다. 이에 비해 무기형 석기, 즉 마세석검과 마제석촉은 동일한 기술체계를 공유했다. 마제석검이 한반도에서 수입된 물품이라면 마제석촉도 그러한 수입품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선생님께서는 북구주지역에서 한반도로부터 입수한 마제석검을 두 방향으로 재분배한 것으로 설명하신 듯하다. 이러한 석검의 교환망이 존재했고 입수된 마제석검을 유사한 방식

으로 사용했다면 석검에 대한 관념을 공유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이다. 부장 혹은 봉헌에 사용된 어떤 물품은 동일한 기술로 제작되거나 수입되었고 어떤 물품(마연토기)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토착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증거는 구주지역으로 지식묘-마제석검 문화의 확산유입에 관해 어떤 경로, 즉 이주인가 아니면 아이디어의 전파인가를 지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로는 마제석검과 매장의례를 한반도 남부와 공유하거나 마제석검의 분배망에 포함되는 문화영역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과연 이 문화영역은 다른 문화적 특징들도 공유하는가? 그리고 그 바깥쪽의 문화영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다.

네 번째 발표를 해주신 華玉氷 先生님께서서는 중국 동북지방의 청동기시대 지역문화들과 한반도 남부 특히 嶺南區域의 동시대 문화와 폭넓게 비교해 주셨다. 청동기시대 농경 사회의 생업과 분묘 형태, 그리고 토기유물군 등을 매우 폭넓은 시야에서 비교해 주셨다. 그리고 먼저 한반도 남부 특히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사회가 매우 안정된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물질문화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 지역과 지역, 특정 물질문화와 물질문화요소가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는 다원적 문화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진단하셨다. 토론자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문화를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華玉氷 선생님은 중국 동북지역의 문화권역을 크게 지리적으로 4구역으로 나누고 그 안에 생성·소멸되어간 문화를 세분하시는 듯하다. 그러나 물질문화 그 내용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 분포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문화가 인식된다. 가령 가장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물질문화요소 지식묘나 비파형동검(동북계동검)의 분포권이 있다면 특정 가옥구조, 혹은 제작기술을 공유하는 토기유물군의 분포영역이 있다. 특히 광범하게 분포하는 물질문화요소 가운데는 아이디어가 이동한 결과일 수도 있고 물품 자체가 교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처럼 중국 동북지방으로부터 한반도 남부까지 광역에 걸친 중요 물질문화의 분포에서 문화권 구분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랬을 때 그 구분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선생님의 高見을 여쭙고 싶다.

Jack Davey 선생님의 발표는 진주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고고학 연구가 세계 고고학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셨지만, 실은 한국고고학과 세계 고고학의 관계 맺기에 관한 이론과 현실의 문제를 깊이 있게, 그리고 한국 자료를 연구

하는 영어권 고고학자로서 체험과 고뇌가 담아 토로해 주셨다. 토론자는 심저로부터의 공감을 표시하고 싶다. 사실 한국고고학은 Davey 선생의 지적처럼 세계고고학계에 여전히 잘 알려있지 못하다(Korea remains an understudied region). 그런 가운데 세계고고학계가 알아주는 한국고고학 자료가 진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이고 또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고고학적 성과가 바로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사회와 문화의 연구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특히 Davey 선생은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아이디어를 버리고 기술이 사회적으로 체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옥, 마제석기, 단도마연토기의 제작기술에 접근한다면 세계고고학의 이론적 논의에 커다란 임팩트를 던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신다. 그리고 송국리 물질문화의 접촉과 전이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물질과 기술이 사회의 다른 측면들과 어떻게 엮여서 변해가는지를 설명할 새로운 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간 인류학적 고고학이 이해해온 방식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덧붙이셨다.

Martin T. Bale과 고민정 선생의 공동연구에서는 이른바 위세품으로 알려진 옥이나 단도마연토기가 일상의 맥락, 대중-참여적 공공의 맥락에서 발견된다는 사실, 그리고 반전업적 전문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위세적 기술을 조정하는 정치권력이 네트워크적 전략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집단-지향적 방식을 더 고려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제안에 Davey 선생께서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적 실천이 사회적 맥락에서 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의례용 물품의 생산방식 그 자체가 의례를 변화시켜 가는가? 혹은 위세품 생산의 조직이나 체계가 어떻게 정치권력의 확대를 조정해 가는가? 하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있다. Davey 선생께서 생각을 되돌려 물질-기술 결정론의 입장을 단순히 표명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무언가 진주지역 청동기시대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그리고 옥, 마제석기, 그리고 단도마연토기 제작기술과 생산조직의 특성에 관하여 Davey 선생께서는 전제로 깔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 듯하다. 혹시 진주지역 위세품 제작의 기술과 생산조직을 통해 봤을 때 이 지역 청동기시대 사회는 非엘리트 에이전트 시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움직여가는 모델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신지 묻고 싶다.

또 다른 질문은 과거 Bale선생도 항상 지니고 계셨던 의문이지만 진주지역 송국리사

회의 형성보다는 해체의 미스터리에 관해서이다. 사실 Bale 박사도 이 문제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후 이에 대한 매끄러운 설명이 나온 바도 없다. 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이기에 매우 돌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Davey 선생님께서는 진주 지역 송국리 사회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점유의 공백이 그토록 오랜 시간 계속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어보고 싶다. 인구가 이전에 볼 수 없이 증가하고 나름대로 잘 유지되었던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하고 오래 버려진 여러 세계고고학 자료와 비교하면 이 또한 중요한 인류학적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 공헌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국제학술대회」 토론요지2

이 경 아 | University of Oregon

The Nam River basin is a unique place in Korean archaeology not just in terms of its contribution to Korean archaeology but also its role to disseminate intriguing prehistoric cultures to the world archaeology. Since the 1990s the Nam River basin evoked keen attentions among archaeological communities in Korea and in Japan with its unseen discovery of large-scale farming features and long-term development of farming communities as early as the Middle Neolithic period. As a rare cas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were applied to sites, generating GIS-based landscape analysis (e.g., Bae 2011; Kim, 2019; Kim, Bone and Lee 2020), geological, environmental analysis (e.g., 황상일 2002), and archaeobotanical analysis (e.g., Crawford and Lee 2003; Lee 2011).

Intriguing archaeological data from the Nam River basin become the foundation for generating various interpretations and theoretical approaches on the social development and human-environmental interactions. A presentation by Bae DH (배덕환) in this conference (2023) is a comprehensive, excellent example of such cases. Bae in this presentation paper aptly summarized the formation of farming commun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ownships, in terms of central places and their satellites. By applying the vista analysis, Bae proposed a pair of settlements were growing together as some sort of clan communities along the Nam River (배덕환 2019, 2022). His analysis is consistent with Kim, Bone and Lee's (2020) GIS visibility analysis on the Songgukri site and the Songgukri cultural establishment in the Nam River region (Kim 2019).

From the early part of the Middle Bronze period, ditches, palisades and earthen watch towers were built along the Nam River. Based on this data,

Bae (2019, 2000, 2023) proposed a development of paired enclosed settlements and their symbiotic and competitive relationships at the same time through craft productions and exchanges. His interpretations were supported by other researchers (Ko and Bale 2006, 고민정·Bale 2009). The paired settlements are an interesting concept as it implicates the interrelations of paired communities as complimentary collaborators. Bae also suggests that segmentation of ditches could have solved technological and labor burden of building massive structures that enclose both settlements. This concept, paired enclosed precincts (쌍채취락), if it is well defined based on archaeological data, then can further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world archaeology. How did these paired precincts operate? Did they have common events that cement their bonding? What were the labor division, if any, as suggested by some (Ko and Bale 2006)? Did they were stand on equal footing or did one have more control the other?

Bae integrated the sizes and patterns of dwelling houses, storage pits, and farming fields to trace the growth during the Early and early part of Middle Bronze period, and decline of the settlements after the Middle Bronze period. Particularly, he emphasized both the external impacts (flooding) and internal factors (group conflicts) as contributing factors of the disappearance of settlements. With simulations Bae shows that the ditches fortified with palisades and earthen piles (토루?) could have worked well as a defensive structure against frequent raids and violence. He concludes that center settlements competed over resources and lands with neighboring communities.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or useless, to estimate population sizes only based on a number of houses. It does not seem to have a sign of impoverishment along the Nam River, at least in archaeobotanical records (Yun, Ko, and Lee). So, population-resource imbalance may not gain a plausible explanation over the competition and violence over lacking resources in this case. Then it may need to show the internal/social causes of conflicts: were the conflicts and raids the consequences of power hegemony? Did the social

differentiation and hierarchy develop to the degree to operate armed sources under the tight control by leading individuals? In contrast others suggest the leadership in the Nam River were more like managerial, and the bottom-up view of social development have been suggested (Bale 2011). Bae suggests that the intensification of farming and imbalance of surplus between groups (villages, settlements) resulted in group conflicts and the distance between enclosed precincts which became top settlement hierarchy as leader's quarters. This hypothesis needs to clarify what caused the resource shortage and what resources generated such conflicts, and also whether the social differentiation developed to the degree to have strong leadership who could oversee almost institutionalized conflicts (war, raid). Human resources, more than materials themselves, were probably the most critical resources in past farming societies, and in a way frequent violence would damage such key resources. The hypothesis on frequent conflicts needs further clarification of its cause and mechanisms.

Often farming communities' trouble with water sources and irrigations as seen in ethnographic data even in present day. With the archaeological, ethnographic example in Bali and simulations based on geographical information, Lansing and Fox (2011) heuristically explained how the religious rituals/ideology/cosmology and kinship relations smoothed over the conflicts over water sources between villages in upstream and downstream, and made an intricate collective regulation over irrigation for rice fields. And this system was more likely has built up as a bottom-up process rather than a control by leading individuals and has prevented any catastrophic conflicts over thousand years.

Davey eloquently put the accomplishment of archaeological research in the Nam River Bronze culture within and beyond Korean archaeology establishments, and how the Korean archaeology can stand as its own right, and further contribute to the world archaeology. He rightly states that Jinu and Nam River archaeology occupies a significant place as of its uniquely

robust corpus of sites and large data set. He succinctly summarized key research on the Nam River and how they enriched the current discourse on materiality, social complexity, and decolonization of archaeology.

This paper's merit lies in his indemnification of areas for improvement to globalize Korean archaeology with solid, massive data set like the Nam River records. In his assessment, Nam River and Jinju archaeology is already significantly outward looking in its approach and has generated relatively large influence anthropological archaeology outside Korea.

Including the publications of Nam River data, Korean archaeology has been published often as case studies for certain theoretical positioning. Such publications are useful as to test the plausibility of certain models and the validity of certain theories. Davey further encouraged that robust data of Korean archaeology can lead the world archaeology by generating theories and new perspectives, which can be applied to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at is, Korean archaeology communities need to take a next step of “demonstrating how Korea enriches, challenges or forces a reassessment of broader concepts.” At the same time as a non-native Korean scholar who works mostly outside Korea, Davey expresses a common dilemma among international scholars who work mostly outside Korea. Whether to spend his time to deliver Korean dataset to non-Korean audience (in other words, making rich Korean data visible outside Korea) or whether to focus on creating new interpretation by using the data? As he also identified, it is in a way two sides of the same token, but the reality is our limited time and resource to do both consistently. One way I can think of, as a Korean-born but one who is based in US, is to publish a short data paper as reports or as a handbook chapter that can summarize data beyond my own analysis; and to use data depository when I publish a main research paper. I suggest Korean scholars and new generation of archaeology students try to publish their work, even as a short report paper or news, in journals outside Korea. Fortunately, several journals started to pay attention to local voices in

publications beyond the English-speaking institutions' hegemony, as part of effort to decolonize archaeology. It will shape the world archaeology if archaeologists continue to share rich data and robust research on the Bronze culture (and Neolithic and early historical periods) in the Nam River basin beyond language barriers.

References Cited

- Bale, M. T. (2011). *Storage Practices, Intensive Agriculture,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2903-2450 Calibrated Years B.P.*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Bale, M. T., and Ko, M.-J. (200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Change in Mumun Pottery Period Korea. *Asian Perspectives*, 45(2), 159-187.
- Lansing, J. S. and Fox, K. M. (2011). Niche construction on Bali: the gods of the countryside.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6: 927-934.
- Kim, H. (2019). *An Emic Investigation on the Trajectory of the Songjukri Culture During the Middle Mumun Period (2900-2400 Cal. BP) in Korea: A GIS and Landscape Approach*. University of Oregon.
- Kim, H., C. Bone, and G.-A. Lee (2020). Landscapes shared by visibility: a Case Study on the Settlement Relationship of the Songjukri Culture, Korea.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365: 897-902.
- 고민정·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분화-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제2호,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09, 「청동기시대 후기 농경집약화와 사회조직」, 『경남연구』창간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배덕환, 2019, 「방어취락으로 본 수장층의 출현」, 『영남지역 수장층의 출현과 전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영남고고학회.
- _____, 2022, 「대평리 방어취락의 성립과 해체」, 『한국고고학보』2022권 2호, 한국고고학회.
- 황상일, 2002, 「남강 중류 대평 층적평야의 지형발달」,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 국제학술대회」 토론요지3

고 민 정 | 경남연구원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1990년대 남강댐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된 이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진주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을 시작으로 진주 평거동유적, 가호동유적, 초장동유적 등 대규모의 유적이 연이어 조사되면서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중기의 문화 양상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에 있어 남강유역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고고학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2021년부터 진주청동기박물관과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마을, 무덤, 기술’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추진한 “청동기시대 진주의 풍경” 전문가 학술회의를 통해 진주의 청동기문화에 대한 새롭고 심도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오늘 국제학술회의는 그동안의 조사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진주의 청동기시대 풍경을 복원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평소에 궁금했던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에 대해 몇가지를 질문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출현과 전개’에 대해 발표해주신 배덕환 선생님께서는 남강유역의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의 취락 분포 및 주거지의 변화상, 청동기시대 중기전반의 대평리 취락 구성요소의 전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대평리 방어취락의 성립과 해체에 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발표자의 보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편년문제입니다. 초기-전기-전기말-중기전반-중기후반으로 청동기시대 전기말을 하촌리식 주거단계로 별도로 설정하셨고, 발표자 외에도 전기와 중기(송국리문화) 사이에 ‘하촌리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김병섭 2011; 송영진 2012). 이

에 대해 토론자는 주거지의 구조와 형태, 내부시설 등에서 전기의 주거지와 증기의 방형 주거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주거유형의 특징으로서 ‘하촌리식주거지’는 가능하겠으나, 별도의 시기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별도의 시기로 설정하신 보충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는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주거지 수가 급감하면서 주거지가 구릉에 입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대평리유적에서는 동취락에만 주거지가 소수 잔존하며 초전동과 초장동유적 등에서 약 20여동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취락의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평리유적의 환호에 대한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최종규(2002)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武末純一(2005)의 의견과는 유사하고 2호 환호를 가장 늦은 시기로 보는 견해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각 환호 시기의 주거지 양상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2호 환호 내의 유물을 살펴보면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외반구연토기, 삼각형석도, 유구석부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토론자가 이전 분류한 남강유역 4기(고민정 2004)에 해당되며 이러한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는 원형주거지 외에 대평리식 방형주거지에서도 늦은 시기의 유물이 출토된 예(옥방1지구(진주박물관) 6호·10호주거지, 옥방1지구(경고연) 1호·14호·33호주거지, 옥방2지구 22호주거지, 옥방3지구 27호주거지)가 있고, 상촌리C 1호·7호주거지, 사월리(동) 9호·17호주거지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형주거지는 옥방1지구(진주박물관) 8호·12호~15호·62호·557호주거지와 늦은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는 옥방1지구(진주박물관) 68호·70호·73호수혈, Z환호-2호 환호 등이 있습니다. 옥방1지구(진주박물관) 8호·12호~14호 주거지는 2호 환호의 안쪽에 밀집 중복 분포하고, 62호와 557호 주거지는 4호 환호의 내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형주거지인 옥방1지구(경고연) 1호·14호·33호주거지도 2호 환호의 내측에 분포하고 있고, 옥방1지구(진주박물관) 8호·12호~14호 주거지와 서로 인접하여 분포하는 양상으로 볼 때, 2,4호 환호 시기에 규모가 커진 대평리식주거지와 오폭리식주거지, 옥방1지구의 묘역지석묘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오폭리식 주거단계를 환호가 폐기되고 동취락에 소수의 주거지만 산포된 것으로 보시고 계신데, 오폭리식주거지를 환호 폐기 이후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기 후반에 초전동·초장동으로 중심취락이 이동한 것이라기보다는 남강일대의 모든 마을의 모습이 적게는 5~20동 정도의 주거지만 소수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남강유역의 고상창고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단축1칸×장축3칸 이상의 (세)장방형 구조에 대해 최초 1×1칸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저장물의 축적에 따라 증축을 통해 칸을 붙여 나간 것으로 대평리문화의 특징적인 창고형태 이면서 곡식창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붕구조상 저장물 축적에 따라 계속해서 증축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면과 측면 2~3칸 구조는 산청 묵곡리의 경우 주거지 주변의 옥 작업과 가까운 곳에 조성되어 곡식창고보다는 무계가 많이 나가는 물건(원석, 원자재, 기물 등)을 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다. 1유형의 경우 초전동유적에서는 1×10칸 구조도 확인되는 등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남강일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지만, 2유형이 더욱 안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그동안 발표자께서 고상건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셨으므로 이 두 유형의 건축적, 구조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어떠한 배경으로 남강일대에서 구덩이식 저장수혈, 2유형의 고상건물 보다 1유형의 고상건물이 더 활발하게 축조되었는지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발표해 주신 윤호필 선생님께서는 진주지역 무덤의 특징으로서 개석식지석묘의 분포양상이 가장 두드러지며, 하부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2중·3중의 개석을 덮고 또 다시 적석하는 것은 진주지역의 특징이자 경남 남해안지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매장양식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무덤의 배치형태가 지형적 여건 및 주변 자연경관의 영향으로 열상배치와 군상배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무덤조성의 계획성이나 무덤공간의 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열상배치가 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진주지역에서도 열상배치가 중심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상배치는 몇 기의 무덤들이 소군집을 이루어 배치되거나 한 무덤을 중심으로 몇 기의 무덤들이 소군집으로 배치되는데, 무덤공간의 범위가 좁거나 한정되어 있을 경우(예. 진주 귀곡동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무덤배치는 단순 지형적 영향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군상배치의 예로 든 가호동유적의 경우 환호 밖의 일정 공간에 밀집 조성되어 있는데, 취락 내 이러한 공간배치의 모습이 오히려 무덤조성의 계획성이나 무덤공간의 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열상배치 보다 효과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상배치의 경우에도 단순 밀집해 있는 상황과 하나의 무덤을 중심으로 둘레에 소형묘가 분포하는 양상(예. 옥방1지구 5호 지석묘, 초장동 1호 지석묘)과는 구분해서 설명되어야 하고, 열상배치의 경우에도 대평리 어은1지구에서는 받 경작지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 옥방1지구의 환호 출입구 내외측으로 열상배치, 진주 상촌리 E지구는 양쪽 주거군 사이에 열상배치된 형태 등 시기별, 사회 성격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완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주 상촌리 E지구 취락(좌) 진주 가호동 취락(우)의 공간구성(고민정 2010)

다음은 華玉氷 선생님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배덕환선생님과 윤호필선생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화옥빙선생님 발표문에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의 취락은 가옥이 반복해서 건축되고 생활용품, 생산도구, 장례풍습이 거의 표준화되어 5세기 동안 지속된 곳으로서 이곳에 ‘단일 지배국가’가 있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과 직접 연관성은 없겠지만 진주지역 청동기시대 사회연구에 참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중심취락과 수공업품 생산, 농경, 묘역지석묘 등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중기의 사회 연구에 있어, 전문화된 장

인의 존재 가능성은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로 가면서 단순 치프덤 사회에서 복합 치프덤 사회로 변화(김권구 2005: 219), 묘역지석묘 단계에 이미 권력이 집중된 개인묘가 공동체 묘지 가운데 등장하며 공동묘로 조성된 거석묘가 위세품이 다량 부장된 족장개인묘로 대체(이성주 2012), 지석묘 축조집단은 렌프류의 집단지향의 수장, 열의 협동 전략, 브룸필의 생필품 재정과 관련(이청규 2019: 13-16) 등 청동기시대 중기후반의 사회 성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기 후반의 묘역지석묘는 집단 내 유력개인의 무덤으로서 사회가 점차 계층화되어가는 것을 반영하고 불평등사회의 지배자(군장)가 등장한 완전한 계층사회는 아니고, 대부분 계층화의 과정 정도(이수홍 2019)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남강유역과 남해안의 대형묘와 중심취락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입니다. 청동기시대 중기의 진주지역의 대평리유적은 ‘都市’로의 가능성(이상길 2002)이 거론될 정도로,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장기간 유지되면서 생활용품, 생산도구, 장례풍습에서 표준화를 생각해볼 수 있고, 진주 평거동, 가호동, 초장동유적은 대형의 묘역지석묘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앞서 요서지역의 하가점하층문화의 취락과 직접 연관성은 없겠지만 참조하여, 경남지역의 묘역지석묘와 취락, 수공업생산, 농경생산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두 분 선생님께 진주의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한 高見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일본 야요이시대와 진주지역 문화 비교연구’에 대해 발표해 주신 히라 고리(平郡達哉) 선생님께서는 북부구주에서 야요이문화 형성기의 묘제를 개관 및 특징 추출을 기반으로 한반도 청동기시대 묘제와 비교검토를 하셨습니다. 일단경식 석축과 관옥, 토기부장풍습, 목관, 석개토광은 한반도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요소이고, 마제석 검과 가지무늬토기는 일본 지석묘에 정착하지 않은 요소로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지석묘는 97%가 구주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주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토대로 지석묘가 축조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으며, 여러 속성들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주지역에 지석묘가 집중 분포하는 상황을 문화교류의 측면, 더 나아가 집단의 이주 등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발표자의 보완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장유물 중 일본 지석묘 출토 옥류는 벽옥제 관옥과 곡옥이 있고, 관옥은 한

반도 남부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97)고 하였습니다. 남강일대에는 대평리 어은1지구와 초장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천하석제 옥을 생산했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산청 옥산리, 목곡리, 대평리유적 등에서는 대규모로 그외 대부분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옥을 생산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주변 지역으로 교환, 분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석묘의 묘제형태와 구조, 부장풍습 등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음에도 천하석제 옥의 부장은 확인되지 않는 것인지, 마제석검과 가지무늬토기와 같이 일본 지석묘에 정착하지 않은 요소로 보는 것인지 이에 대해 부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관옥 생산에 관한 직접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천하석제 옥을 생산한 흔적은 다수 확인되는 상황에서, 일본 열도 지석묘 출토 관옥이 한반도 남부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야요이 개시기와 병행하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매장자세에 대해 굴장은 확인되지 않고 모두 신전장이며 -완전한 신전장은 아니지만-, 규슈 북안의 지석묘에서 확인된 인골은 모두 굴장, 굴지장으로 매장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매장자세는 일본열도 지석묘의 상석 소형화와 관련된 것으로 매장주체부의 규모도 1m 정도가 주류를 이루며 이는 남강유역의 지석묘 상석의 형태와 규모는 이들과 유사성이 크다는 지적(端野晋平 2018)과 매장자세에 따라 매장주체부의 규모가 규제, 규정된다면 상석 소형화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강일대에는 소형석관묘들이 집자리나 밭 경작지 주변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뼈만 추려내어 따로 매장하였거나 특히 집자리 주변의 묘는 가족의 소아묘로 추정하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배덕환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대평리유적 동취락 옥방7지구 17호 석관묘의 단수인골(斷首人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고대 전쟁에서 주로 남성 전사에 한정되었던 것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수되었다는 점과 묘역에 시신을 안치한 점을 토대로 중요도가 높은 인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도 이러한 단수인골의 예가 있는지 그리고 피장자에 대해 어떠한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시 주최 국제학술대회

진주의 청동기시대 퐁퐁

인쇄 2023년 10월 19일

발행 2023년 10월 20일

주최 진주시

주관 한국청동기학회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연구원
